728.2

工學碩士 學位論文

西紀 1998 學年度

1920~1960년대 濟州市 都市住宅의 類型 및 變遷에 關한 硏究

Typology and Transformations of Urban Houses in Cheju City from 1920's to 1960's

指導敎授 金 鴻 植

明知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金 炯 男

明知大學校
MYONG JI UNIVERSITY
3000143826

1920~1960년대 濟州市 都市住宅의 類型 및 變遷에 關한 硏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 年 12 月 日

明知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金 炯 男

金炯男의 學位論文을 認准함

主審委員 金 慶 洙 ㊞

副審委員 朴 寅 碩 ㊞

副審委員 金 鴻 植 ㊞

1998 年 12 月 日

明知大學校 大學院

感謝의 글

본 논문은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항상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김홍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수 교수님, 박인석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대학원생들에게 개방하고 논문의 흐트러진 부분들을 잡아주신 김경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국건축역사연구실 선배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지도가 있었습니다. 강선중 교수님, 양상호 교수님, 김태현 교수님, 김왕직 교수님, 문영식 선배님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항상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김왕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조사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충고를 잊지 않으신 제주산업정보대학 신석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이천우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항상 동거동락하면서 본인의 모자람을 채워준 한국건축역사연구실 김성욱, 이충근, 정구필, 이승미 동학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학연구실 노정렬, 최우생, 성모영 후배들에게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시에 동반해준 제주산업정보대학 부경헌, 김태욱, 김창현, 박정심, 박선하, 최지은, 고명철, 양승환, 윤상용 후배들에게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현장조사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제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각 관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항상 염려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을 드립니다.

1998. 12.

김형남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나타나는 제주시 도시주택의 유형 및 변천을 고찰한 것이다. 도시주택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평면형태로써, 그것이 변화·발전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외부공간 및 배치유형

대문은 경계물의 역할과 방범, 출입제한 등의 기능 그리고 상징적, 심리적 보호물의 역할도 하고 있다. 마당공간은 공간의 축소로 통로나 넓은 옥외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며, 우영은 마당의 한쪽이나 정원에 부속되어 배치되고 있다. 화장실은 통시의 형태와 대문에 부속되는 형태 그리고 별도로 짓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실을 신축할 때는 원래의 자리에 짓는 경우가 많다. 건물 배면에 작은 뒷마당이 설정되는데 이것은 1960년대가 되면 사라지고 있다.

도시주택의 배치유형은 두거리형(複棟型)과 외거리형(單棟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채 좌향은 대체로 남향이 많으며 북향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진입로는 대부분 4M미만의 보행자전용도로로써 막다른 도로나 통과도로의 형식을 취하며, 가지형 도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두거리형(複棟型)의 진입방향은 남향과 북향이 가장 많으며, 이때 안채 좌향은 남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외거리형(單棟型)의 진입방향은 동향과 서향이 가장 많고, 이때 안채 좌향은 주로 서향과 남향을 하고 있다. 대문은 살림채와 ㄱ자나 二자의 배치형태를 하고 있으며, 직접 살림채 내부로 시선이 향하지 않게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평면유형

도시주택은 가사공간 분리형과 가사공간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별동정지형과 외래형이 특수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가사공간 조합형이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 분리형은 안방+고팡 분리형과 안방분리형으로 세분된다. 가사공간 조합형은 안방, 부엌, 고팡, 챗방이 하나의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유형이며, 세대별 공간분화를 보이고 있다. 가사공간 조합형은 가사노동공간의 조합형태에 따라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안방+부엌+챗방 형, 안방+부엌+고팡 형, 안방+부엌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수형 중 별동부엌형은 전통민가의 딴정지형이 유형적으로 지속된 형이며, 외래형은 전통적 공간 구성을 보이지 않는 평면형이다.

도시주택은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며, 4칸형이 주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3. 평면형태

一자형은 돌출없이 一자형의 평면형태를 유지하는 형이고 지붕은 一자형의 모임지붕으로 나타나고 있다. 一자+부분 돌출형은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을 말하며, 부분 돌출은 주로 고팡과 챗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붕은 모임지붕으로써, 고팡, 챗방, 부엌이 돌출될 때는 一자형이며 작은방이 돌출될 때는 ㄱ자로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一자+완전 돌출형은 하나의 실이 완전히 돌출되는 형태를 말하며, 완전 돌출은 주로 고팡과 챗방에서 일어나며, 작은방, 부엌도 돌출된다. 지붕은 모임지붕이며,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불규칙 ㄹ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방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마루는 대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부엌은 타실에 비해 면적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난방방식과 연료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챗방은 일정한 면적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챗방이 식사공간뿐만 아니라 수장공간이나 실내작업공간으로도 이용되면서 기능적 중요성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고팡은 1.5평 정도의 면적으로 구성되며 뚜렷한 면적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구조 및 의장

5량 구조는 무고주 5량과 간이식 5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채보다는 주로 바깥채나 부속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2고주 7량은 전통민가의 구조방식이 지속된 가구법이며, 이것의 간이식 또는 변형이 간이식 2고주 7량이다. 간이식 7량은 무고주로 구성된 가구방식으로써, 간이식 2고주 7량이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가구방식이며 일반 서민주택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부재의 단면적은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나 도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대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폭보다 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서까래는 원형이 주로 사용됐으며, 마구리 부분을 원추형이나, 6모, 8모로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도시주택의 내벽은 상부에서 하부까지 전체를 외를 엮어 구성하며, 외벽에 덧쌓는 석재는 가공술의 발달에 따라 다듬는 정도가 많아지고 있다.

도시주택의 기단은 보통 2단으로 구성되고,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다. 창호는 미서기, 미닫이, 여닫이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덧벽은 처마에서 1-1.5尺 정도 남기고 쌓으며, 이것은 1960년대가 되면 처마까지 모두 쌓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붕은 일식기와를 덮고 있으며, 대부분이 흙기와이고 시멘트의 보급으로 시멘트 기와도 나타나고 있다.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3

1.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1.4 기존 연구사 5

제2장 외부공간 및 배치유형 10

2.1 외부공간 10

2.1.1 외부공간의 형성 10

2.1.2 외부공간 구성요소 12

2.2 배치유형 18

2.2.1 두거리형(複棟型) 19

2.2.2 외거리형(單棟型) 32

제3장 평면유형 분석 40

3.1 실 구성에 의한 분류 40

3.1.1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42

3.1.2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 51

3.1.3 특수형 62

3.2 칸수에 의한 분류 67

3.2.1 칸수별 특성 67

3.2.2 칸수의 변화 72

3.3 실 위치변화와 공간분화 76
3.3.1 고팡의 위치변화 77
3.3.2 안방의 위치 변화 79
3.3.3 가사노동공간의 변화 80
3.3.4 세대별 공간분화 82
3.4 시대별 평면유형의 변천 83
3.4.1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 84
3.4.2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 86
3.4.3 특수형 90

제4장 평면형태 분석 95
4.1 평면형태 분류 95
4.1.1 一자형 95
4.1.2 一자 + 부분돌출 형 97
4.1.3 一자 + 완전돌출 형 99
4.2 시대별 형태 변화 101
4.2.1 1920년대 101
4.2.2 1930년대 102
4.2.3 1940년대 103
4.2.4 1950년대 105
4.2.5 1960년대 106
4.3 각 실의 면적 변화 110
4.3.1 안방 110
4.3.2 마루 111
4.3.3 부엌 112
4.3.4 찻방 114
4.3.5 고팡 116

제5장 구조 및 의장 특성 117
5.1 가구방식 117
5.1.1 5량 구조 118
5.1.2 7량 구조 119
5.2 구조부재 변천 128
5.2.1 기둥 128
5.2.2 대들보 131
5.2.3 내도리 132
5.2.4 서까래 133
5.3 벽체 및 각 실의 구조 136
5.3.1 벽체구조 136
5.3.2 각 실의 구조 138
5.4 의장 142
5.4.1 기단 142
5.4.2 창호 145
5.4.3 덧벽 147
5.4.4 지붕 150

제6장 결론 153
6.1 본문요약 153
6.2 분석종합 158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표차례>

<표 1-1> 연구대상 주택 목록 7
<표 2-1> 제주도 지방의 월별 풍향 23
<표 2-2> 두거리형(複棟型)의 안채 좌향 23
<표 2-3> 두거리형(複棟型)의 진입로폭 분석표 26
<표 2-4> 두거리형의 진입방향과 필지형태에 대한 안채 좌향 분석표 28
<표 2-5> 두거리형(複棟型)의 안채와 대문(채)의 배치형태 분석표 31
<표 2-6>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 좌향 33
<표 2-7> 외거리형(單棟型)의 진입로 폭 분석표 33
<표 2-8> 외거리형의 진입방향과 필지형태에 대한 안채좌향 분석표 35
<표 2-9>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와 대문의 배치형태 분석표 37
<표 3-1> 연대별 평면유형 분포 43
<표 3-2> 연대별 3칸형의 평면유형 분석표 68
<표 3-3> 연대별 4칸형의 평면유형 분석표 68
<표 3-4> 연대별 칸수 분석표 69
<표 3-5> 연대별 면적변화 분석표 71
<표 4-1> 연대별 평면 형태 분포 97
<표 4-2> 연대별 실 면적 분석표 111
<표 5-1> 연대별 가구형식 분석표 - 7량 121
<표 5-2> 연대별 기둥 단면형태 분석표 129
<표 5-3> 연대별 구조부재 치수 분석표 129
<표 5-4> 연대별 대들보 단면형태 분석표 131
<표 5-5> 연대별 내도리 단면형태 분석표 133
<표 5-6> 연대별 서까래 단면형태 분석표 134
<표 5-7> 연대별 서까래 내밀기 분석표 135
<표 5-8> 연대별 서까래 간격 분석표 135

<표 5-9> 연대별 벽장 높이 분석표 139
<표 5-10> 연대별 굴묵 입구 크기 분석표 139
<표 5-11> 연대별 기단 및 마루높이 분석표 144
<표 5-12> 외부 덧벽 분석표 149

<그림차례>

<그림 2-1> 두거리형(複棟型)의 배치형태 21
<그림 2-2> 접근로와 진입로 24
<그림 2-3> 막다른도로와 통과도로 25
<그림 2-4> 두거리형(複棟型)의 진입형태 29
<그림 2-5> 두거리형(複棟型)의 ㄱ자와 二자 배치형태 30
<그림 2-6> 외거리형(單棟型)의 배치형태 32
<그림 2-7> 외거리형(單棟型)의 진입형태 36
<그림 2-8> 외거리형(單棟型)의 ㄱ자와 二자 배치형태 39
<그림 3-1> 가사공간 분리형 43
<그림 3-2> 안방+고팡 분리형 45
<그림 3-3> 부엌+고팡+찻방 형 47
<그림 3-4> 성읍리 초가 신형 (바깥채 4칸) 49
<그림 3-5> 부엌+고팡 형 49
<그림 3-6> 부엌+찻방 형 50
<그림 3-7> 부엌 단독형 51
<그림 3-8> 가사공간 조합형 52
<그림 3-9> 전면부엌형 54
<그림 3-10> 속부엌형 55
<그림 3-11> 전면부엌형 56
<그림 3-12> 속부엌형 57
<그림 3-13> I자 조합형 58
<그림 3-14> 전면부엌형 59
<그림 3-15> 후면부엌형 59
<그림 3-16> 전면안방형 60
<그림 3-17> 안방+부엌+고팡 형 61

<그림 3-18> 안방+부엌 형 62
<그림 3-19> 제주도 초가의 딴정지 평면형태 63
<그림 3-20> 별동정지형 배치 63
<그림 3-21> 별동부엌형 65
<그림 3-22> 외래형 66
<그림 3-23> 제주도 전통초가의 안거리 평면유형 74
<그림 3-24> 도시주택의 변천 추정도 76
<그림 3-25> 고팡의 위치변화 78
<그림 3-26> 안방의 위치변화 80
<그림 3-27> 가사노동공간의 변화 81
<그림 3-28> 세대별 공간분화 83
<그림 3-29> 도시주택의 평면계통도 - 가사공간 분리형 92
<그림 3-30> 도시주택의 평면계통도 - 가사공간 조합형 93
<그림 3-31> 도시주택의 평면계통도 - 특수형 94
<그림 4-1> 一자형의 지붕형태 97
<그림 4-2> 一자+부분돌출 형의 지붕 형태 99
<그림 4-3> 一자+완전돌출 형의 지붕 형태 100
<그림 4-4> 연대별 평면 및 지붕형태 109
<그림 4-5> 부엌의 구조 변화 114
<그림 5-1> 도시주택의 무고주 5량 119
<그림 5-2> 제주도 전통초가의 가구방식 - 2고주 7량 120
<그림 5-3> 도시주택의 2고주 7량 122
<그림 5-4> 도시주택의 간이식 7량 125
<그림 5-5> 가구변천 추정도 - 7량 127
<그림 5-6> 칸가름기둥과 보의 이음 130
<그림 5-7> 내도리 단면형태 133
<그림 5-8> 처마서까래 끝부분 단면 모양 135
<그림 5-9> 도시주택의 내벽 단면도 137

<그림 5-10> 도시주택의 외벽 단면도 138
<그림 5-11> 마루의 종류 141
<그림 5-12> 기단석 크기의 여러 형태 143
<그림 5-13> 기단 설치의 여러 형태 144
<그림 5-14> 툇마루 전면문 설치 형태 146
<그림 5-15> 덧벽의 형태 148
<그림 5-16> 덧벽의 두께 및 높이 149
<그림 5-17> 일식기와의 형태 152

<사진차례>

<사진 2-1> 대문의 형태 14
<사진 2-2> 마당 및 정원 15
<사진 2-3> 우영의 종류 16
<사진 2-4> 화장실의 형태 17
<사진 2-5> 굴뚝의 형태 18
<사진 5-1> 벽장과 굴묵 140
<사진 5-2> 마루 천장 140
<사진 5-3> 창문의 종류 및 형태 146
<사진 5-4> 지붕 및 기와 형태 151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주거는 시대, 장소, 경제 수준, 문화 수준에 따라 건축기술의 응용, 공간 형식과 형태표현이 변천될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 자체가 창조적으로 행위와 습관을 동반하여 변모되는 것이므로 주거의 형성도 개인의 창조적 의지와 사회적 전통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자연환경과 조화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되는 주생활을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1)]

따라서 주거는 시대적 사회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경제의 역사적인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실존의 중심적 장소이며 본질적 근거지인 주거는 인간이 처한 환경의 적응방식이자 삶에 대한 인간의지의 표현으로 자연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한다. 그 결과 각기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생존요소와 시대적 상황 및 지역적 특수성이 담겨져 있고 가치·관념·사고 등의 정신문화가 상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2)]

주거는 민족, 지역, 시대에 따라 외형이나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공간 구성에까지 다양하고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 Keiser는 주거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생물·물리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 그리고 기술적 환경을 들었으며[3)] 石毛直道는 주거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자연환경, 생활양식, 기술체계, 가족형태, 집락형태, 사회구조, 정신구조의 정적인 구조와 타 문화 접촉이라는 동적구조라 하

---

1) 대한건축학회, 「주거론」, 기문당, 1997, 18쪽.
2) 김혜숙·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공간의 구성에 관한 연구-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3집(인문·사회과학편), 1991, 385쪽
3) Keiser, M.B., 「Housing on Environment for Living」, Macmillan pub, N.Y., 1978.

였다.[4] 한편 Rapoport는 종교적 믿음, 가족 및 친족의 관계, 사회적 조직, 생계유지 방법, 개인간의 사회적 관계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주거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5]

주거건축의 한 유형인 민가는 한 사회의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다. 민가는 민중들에 의해 창출되고 변화되며 계승되는 건축현상이며, 그 지역 및 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적 산물이다. 우리 나라의 민가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며 각기 고유한 생활양식과 독특한 주거환경 및 외형, 그리고 다양한 내부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제주도 민가는 그 형태나 구조 및 내부공간 구성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된다.

제주도는 島嶼라는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지리적인 환경과 인문, 사회적인 배경이 제주도만의 독특한 주거생활 양식을 만들었다.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구성은 민가 분류에서 '제주도형'이라는 독자적인 한 형태를 낳았으며, 근대적인 내부공간 구성요소인 챗방의 존재는 제주도 민가의 우수성을 단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민가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조건에 주목하여 기후결정론적인 지역성의 해석에 치중해 왔으나 이는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과 읍성의 발달에 기인한 도시 서민주거의 존재를 민가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6] 이러한 도시 서민주거는 시대가 흐르면서 도시적 입지와 도시적 생활방식에 따라 도시주택으로 발달하였다. 이후 도시주택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시기가 일제강점기이다.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도시화, 공업화, 근대화는 근대적 건축재료나 건축방식을 유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방식이나 생활양식을 변질케 함으로써 결국 주거문화의 변질을 유도하였다.[7] 이로 인해 도시주택에서는 전통요소와 외래요소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것은 일부 근대화의 과정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왔다.

일제강점기에 보이는 도시주택의 변화는 개항장이나 그 인접지역(도시)에서 뿐

---

4) 石毛直道, 『住居空間의 人類學』, 東京, 鹿島出版會, 1976, 239쪽.
5) Rapoport A.,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1969, 47쪽.
6) 대한건축학회, 앞책, 37쪽.
7) 대한건축학회, 앞책, 106-107쪽.

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일어났으며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제주지역, 특히 제주시 도시주택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제주지역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주택의 발달사를 연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며, 하나의 사료로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1차례의 현장답사와 2차례의 현장조사 및 실측조사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1차 현장답사는 1997년 8월 한달간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 대상 건물의 위치 파악을 위한 조사로서, 제주시 일원을 직접 현장 답사하여 연구대상 건물의 위치 및 소재지 파악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 300여 채의 연구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2차 현장조사 및 실측조사를 실행하게 되었다.

2차 현장조사 및 실측조사는 1998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75채의 건물을 실측 조사하였다. 1차 현장답사 자료를 근거로 실시하였으며, 논문조사표를 작성하여 실측 및 주생활조사를 하였다. 이때 조사한 자료 중 주소 및 건물주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주소 및 건물주로 명기하였다.

3차 현장조사 및 실측조사는 1998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2차 현장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측 조사하였다. 3차 현장조사시에는 62채의 현장 실측조사를 하였고 2차 현장 조사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였다.

3차에 걸친 현장조사로 총 137채를 실측 완료했으며 이중에서 본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건물을 제외한 100필지 113채(안채 102채, 바깥채11채)를 최종 연구대상 건물로 결정하였다. 건축연대 설정은 상량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량문에 기재된 연대로 하였으며, 다른 건물들은 구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여기에 건축물관리대장과 주민과의 면담(증언)을 참고로 하였다.

1.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주지역에서 나타나는 도시주택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상업, 경제 등이 집중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이중에서 제주시는 예로부터 문화, 행정, 경제, 상업 등의 중심지로서 도시화가 현저한 지역이며, 도시주택의 분포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주택은 그 당시 제주읍(現, 제주시)내에 보편적으로 지어진 서민주택이며, 그 주요 분포지역은 행정구역상 중심지였던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제주시는 외연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주변의 여러 지역을 흡수, 통합하여 그 면적이 과거에 비해 확장되고, 그로 인해 행정구역상의 통합이나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의 제주시를 이루었던 주요한 행정구역인 5개동을 위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연구대상 건물의 건축시기가 제주시내 타지역에 비해 앞서고 구시가지의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도시주택을 연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대상 주택과 성격을 같이하는 건물은 위의 5개동에만 건축된 것은 아니며 제주시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해안의 주요 거점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지어졌던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를 제주시 5개동에 한정한 것은 행정구역상 인접해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시기나 외형적인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이고, 그 지역에 도시주택이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우리 나라 전통적 주거형태 변화는 두 차례의 커다란 전환점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19세기말의 개항기이고, 또 하나는 1960년대의 4·19를 기점으로 하는 시기이다. 전기는 우리의 전통적 사회에 외래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 경제가 해체되고 재편성됨으로써 건축의 물리적 기초가 달라지게 되고 건축형태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시기이다. 후기(60년대)는 종속적 식민지 경제체제로부터 세계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전시기에 비해 대량의 물량이 공급됨으로써 건축이 변화하였던 시기이다.[8]

따라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로 한정한 것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에서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기 사이에 나타나는 제주시 도시주택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세기초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본 연구대상 도시주택이 20세기 중반인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발전되어가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주택의 목록은 <표 1-1>과 같다.

1.4 기존 연구사

제주도 주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00년 이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초가에 대한 연구에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전통초가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연구성과와 업적은 놀랄만하다. 그러나 대개의 연구가 정의현(현 성읍)내의 초가와 제주도 일원에 산재해 있는 초가에 집중해서 이루어졌으며 민가의 건축연대 또한 20세기 이전의 민가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1900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한 연구, 특히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었으며 도시적 형태를 갖춘 제주시의 도시 서민주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런 상황하에서 도시 서민주거 즉, 도시주택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제주도 주택사 연구에서 누락됐던 20세기 전반기 주택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제주도 주택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주택을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를 되돌아보고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도시주택 또한 제주도 전통초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결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주도 전통민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본 연구대상 주택의 건축적 특성을 밝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

8)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91, 210쪽.

현재까지 발표된 제주도 주택에 대한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도해치랑, 『제주도의 건축』, 1925.

야촌효문, 『조선주택의 변천과 개요』, 1942.

김정기, 김홍식, 『제주도 문화재 유적종합조사보고서』, 1973.

오홍석, 『제주도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박논, 1974.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980.

이경돈, 『전통민가 형식에 관한 연구 - 애월읍 하가리를 중심으로』, 중대석론, 1982.

현영숙, 『제주도 전통가옥의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 성읍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성신여대석론, 1982.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1983.

강행생,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건대석론, 1985.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론, 198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박론, 1996.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석론, 1987.

송성대,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박론, 1990.

최영철, 『제주도 토속조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석론, 1991.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한양대박론, 1991.

임호진, 『제주도 전통주거의 온열 환경에 관한 연구』, 연대석론, 1991.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박론, 1992.

김유봉, 『도시단독주택형에 관한 평면구성상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한대 산업대석론, 1993.

고태하, 『제주 비양도 마을의 주택배치 및 평면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한대 산업대석론, 1993.

제주도, 『제주의 민속 Ⅳ - 주생활편』, 1996.

<표 1-1> 연구대상 주택 목록

번 호	지 번	소유주	번 호	지 번	소유주
1	일도1동 1100-9	채종완	21	1043-25	김승훈
2	1102-11	김송형	22	이도1동 1254-5	김홍국
3	1103-1	장보배	23	1254-13	황정자
4	1243-1	문순여	24	1254-32	송산실
5	1261	고학봉	25	1330-5	박인상
6	1353-1	김근보	26	1330-38	김상선
7	1396-1	김홍길	27	1504-11	고두식
8	1484-7		28	1505-2	곽기순
9	1484-9	백경랑	29	1529-3	김광진
10	1485	박연수	30	1529-21	김범용
11	1486	신호근	31	1533	강을생
12	1486-2	박옥채	32	1535	장금향
13	1486-2	박준택	33	1539-5	황순오
14	1486-2	김병만	34	1539-6	김영순
15	일도2동 1040-1	현우정	35	1543-1	김요안
16	1040-4	김희호	36	1543-12	김용훈
17	1040-21	현상종	37	1554	정원식
18	1040-23	부영자	38	1554-3	장태훈
19	1043-16	강윤철	39	1555-3	현재천
20	1043-22	신보성	40	1555-8	한일랑

번 호	지 번	소유주	번 호	지 번	소유주
41	이도1동 1555-9	안준부	67	1175-1	서영훈
42	1555-17	현학송	68	1176-7	오천수
43	1559-11	이경현	69	1176-10	양홍식
44	1560-1	이계생	70	1179-5	김재수
45	1695-1	김태운	71	1179-7	김태준
46	1706-1	현경아	72	1179-17	김영배
47	1707-3	김인탁	73	1179-22	박인애
48	1708-5	안창렬	74	1179-23	이창수
49	1708-7	장인환	75	1179-28	조상홍
50	1709-11	김태만	76	1204-1	좌응기
51	삼도1동 153	강영화	77	건입동 1103-3	양배완
52	907-7	송종선	78	1103-7	강좌기
53	913-5	양부창	79	1103-10	송복선
54	삼도2동 41	김유택	80	1189-9	고점양
55	829-2	고일부	81	1189-11	고자환
56	830-9	임재찬	82	1189-16	고점양
57	830-13	김형규	83	1189-19	고성철
58	1063-1	전일혜	84	1256-2	임창준
59	1158-5	김성훈	85	1274-5	장근종
60	1158-23, 73	김수종 방재신	86	1274-7	황수일
61	1158-30	양익수	87	1275	
62	1158-33	김수종	88	1297	정태봉
63	1158-49	현창훈	89	1320	고공립
64	1161-13	채원배	90	1332	김준경
65	1167-16	구영모	91	1340	김두욱
66	1174-5	김중현	92	1357-1, 2	고정기

번 호	지 번	소유주	번 호	지 번	소유주
93	용담1동 13	고갑생	97	358-16	(주)제주상호신용금고
94	374-3	문용보	98	364-17	고명률
95	용담2동 357-17	한광섭	99	364-38	문두은
96	357-18	김재원	100	622-5	김관옥

제2장 외부공간 및 배치유형

2.1 외부공간

2.1.1 외부공간의 형성

건축공간구성에서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물이다. 건물은 일차적으로 내부공간을 위한 것이나 건물의 외형과 건물 상호간의 연관성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공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9]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건물의 종류나 규모,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니게 되며, 이렇게 구성된 외부공간 또한 각각 다양하고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

공간을 한정하는데 있어서는 건물이 일차적인 요소이지만, 작은 부분까지 한정하려면 보조적인 구조물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의 대표적인 것으로 담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본래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며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적인 기능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 외에 순수하게 공간감에만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10] 주택의 담장은 공간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생활에서 대지의 경계나 외부로부터의 방어와 같은 기능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민가가 한국 본토의 민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배치형식이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대칭형과 별동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기후에 대처한 요구, 이 섬에만 있는 특이한 가족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형식에서 생성된 외부공간은 집 밖에서부터 집 내부의 공간쪽으로 로 이동하는 사이에 완급과 폐쇄와 트임으로 공간체험의 충실도를 높여 주고 있

9)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제, 1998, 26쪽.
10) 안영배, 앞책, 30쪽.

음을 발견할 수 있다.[11]

이에 비해 도시주택은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인접주택과의 관계와 도로의 구성 등에 따라 배치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구성된 도시주택의 외부공간은 그 형태에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저마다의 상황하에서 개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외부공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조건과 제약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주택 개개의 외부공간 특성보다는 전반적으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도시주택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구조물로 대문이 있다. 대문의 설치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침입을 방지하고 대지 내부로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문으로 진입하는 외부인은 직접 건물 내부로 시선이 닿지 않고 건물의 모퉁이나 마당(또는 정원)과 마주친다. 도시주택에서 마당은 농촌지역보다 비교적 협소하게 구성되며, 대부분이 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원은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전통민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정원은 우영 공간과 함께 구성되기도 하며, 다양한 나무나 화초를 심는다. 우영은 도시주택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텃밭으로 특별한 공간으로 두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마당의 한쪽 구석이나 담장 옆에 붙여서 조성되며, 정원 공간과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주택에서는 전통민가에서 보이는 여성의 공간이자 폐쇄적인 공간인 안뒤 공간은 설정되지 않거나, 설정되어도 안뒤라는 성격보다는 작은 뒷마당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대가 흐르면서 이러한 공간은 점점 사라져서 건물이 담장에 붙어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시주택의 외부공간은 배치유형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시기적으로도 공간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지면적의 제약으

11) 김석윤, "전통가옥", 「제주도 민속자료」, 제주도, 1987, 143쪽.
제주도, 「제주의 민속Ⅳ - 주생활편」, 1996, 496쪽에서 재인용.

로 마당의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작은 정원공간이 설정되며, 우영 공간은 정원 공간에 함께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물 후면의 작은 뒷마당이나 공간은 점차 축소되어 통로의 역할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가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지면적의 축소로 외부공간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2 외부공간 구성요소

도시주택의 외부공간은 살림채와 대문(채)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고 여기에 부속채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도시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협소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넓은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주택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가 도시화되면서 대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상승되었고 이로 인해 넓은 대지를 갖고 있었던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작은 대지에 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외부공간 구성요소는 도시주택에서 살림채를 제외한 대지내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부속시설은 도시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도시주택의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간혹 대문이 설치되지 않거나 굴뚝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예라 할 수 있다.

1. 대문

제주도 주거(민가)의 출입구는 평면적인 문짝보다는 공간적인 문간의 역할을 하는 올래를 가지며 특히 긴 올래는 공간성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영역을 지나 목적하는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 대문이라는 평면체보다는 올래라는 밀도 짙은 중간영역을 거쳐야 한다는 공간적 통과의례의 성격이 강하다.[12]

도시주택에서는 기본적으로 살림채를 두고 여기에 대문을 따로 두는 형태를

12)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한대박논, 1991, 70쪽.

취하고 있다. 대문이란 집의 안팎을 연결시키는 시설인 동시에 집안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문이란 존재는 출입을 선별하는 속성을 갖는다.[13] 제주도 전통민가에서는 대부분 대문을 설치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도시주택에서는 대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문의 설치는 도시주택 전체에서 나타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도시주택에서 설치하는 부속 시설물이다. 대문은 살림채와 떨어져서 한쪽 측면에 설치되어 살림채의 측면으로 진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살림채의 정면으로 대문이 설치되거나 진입을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살림채의 정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살림채의 정면 끝을 향하여 진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외부인이 대문에서 내부로 진입할 때는 외부의 시선이 직접 살림채 내부로 향하는 것을 지양하는 배치형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대문의 위치(배치)와 살림채의 배치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채의 좌향을 결정할 때 대문의 위치에 따른 진입방향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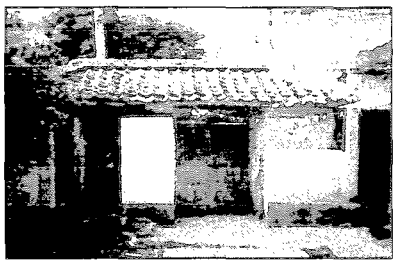
대문의 지붕은 일식기와를 덮으며 대부분이 모임지붕이고 박공지붕도 일부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도시주택의 살림채가 기와를 덮으며 모임지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서 유사한 형태 및 재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주택의 대문은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방범의 효과나 외부인의 자유로운 대지내 진입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잡귀, 병 등과 같은 미신적 위협을 차단시키려는 상징적, 심리적 보호물[14]의 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주택에서는 대지면적의 제약이나 대지 및 주거지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통초가에서 보이는 올래라는 공간의 설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래라는 공간의 설정 대신에 대문이라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대지내 진입을 유도하며, 한편으로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경계물의 역할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정영철, 앞책, 70쪽.
14) 정영철, 앞책, 70쪽.

대 문 1 (대문으로만 구성)



대 문 2 (화장실+창고+대문+목욕실)

<사진 2-1> 대문의 형태

2. 마당과 정원

도시주택은 마당과 정원이 배치되는데, 정원은 주로 마당에 위치하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조성되기도 한다. 정원 또는 마당은 그 주된 용도가 휴식처, 옥외작업장 또는 건물 내부로 채광과 환기 등의 공급처로서의 역할[15]을 한다.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정원의 존재는 전통초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써 도시주택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민가에서는 정원의 성격을 가지는 공간을 따로 설치하지 않으며 단지 올래의 돌담주위에 화초를 심는 정도로만 나타난다. 안뒤 공간에 심는 나무는 정원수가 아니라 안뒤 공간의 폐쇄를 위한 것이며, 특히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실내에 제공하는 것으로써 생활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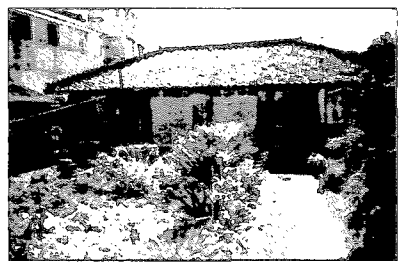
도시주택의 마당은 전통민가에서 보이는 옥외 작업공간이나 관혼상제의 기능보다는 통로의 기능이나 넓은 외부공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원이 마당의 가운데나 한쪽에 자리하기 때문에 마당 면적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마당의 기능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지가 넓은 경우에도 마당을 넓게 두기보다는 우영(텃밭)이나 정원공간을 넓게

15) 박시익 · 이정덕, 『풍수지리설에 의한 주택배치의 성격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84. 4, 117쪽.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당의 면적이 줄어들고 그 기능이 축소되며 또한 정원이 생기는 것은 도시주택의 외부공간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지면적의 대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192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마당+정원



마당+정원+우영

<사진 2-2> 마당 및 정원

3. 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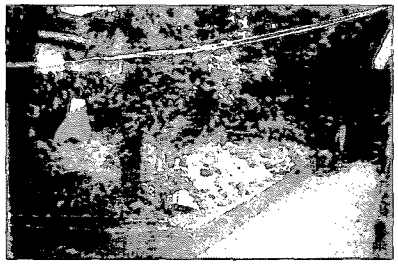
우영은 내부공간에서 이룰 수 없는 가사노동의 보충적인 공간[16]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전통민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영은 주로 매일 소요되는 부식을 공급하는 곳이다. 우영(텃밭)은 대지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따로 공간을 구성하며, 대지면적이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마당의 한쪽 구석이나 건물의 후면 또는 정원의 공간에 함께 배치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영과 마당을 구분하기 위해 담을 쌓기도 하나 대부분은 담을 쌓지 않고 경계를 나타내는 정도의 표시만을 해 두고 있다. 우영 공간은 특정한 공간을 설정하여 배치되기보다는 대지 안에서 여유의 공간에 설정되고 있다. 이것은 대다수의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현상으로서, 도시주택의 필지를 기능적으로 구성하면서 우영 공간은 나중에 여분의 공간에 필요한 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16)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235쪽.

있다. 필지가 넓게 구성되어 우영이나 텃밭이 넓게 자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필지 면적의 협소로 인해 우영이 작게 구성되거나 다른 공간과 병설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대부분의 도시주택에서 우영 공간을 두어 부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마당의 한쪽이나 정원공간의 나무 밑에 채소류를 심어 연중 내내 부식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우영과 같은 공간을 두는 것은 도시민들의 생활상의 지혜로 볼 수 있다.



앞우영

뒷우영

<사진 2-3> 우영의 종류

4. 화장실

도시주택에서 화장실은 통시의 형태를 취하여 따로 설치되는 경우와 대문에 부속되는 경우 그리고 따로 화장실 건물을 짓는 형태의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통시는 현재 대부분이 개량되어 정확한 위치나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소수의 주택에서 조사된 통시는 전통초가의 통시와 구조 및 형태가 유사하였으며, 대지의 한쪽 구석에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변소개량사업이나 새마을운동

으로 인해 대부분의 통시가 개량되어 푸세식이나 수세식 화장실로 신축되었다.

대문에 부속되어 나타나는 변소는 대문의 한쪽에 설치되며, 대변과 소변을 따로 설치하여 두 개의 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 대문이 바깥채나 대문채에 부속되어 한쪽 칸에 설치되는 경우에 화장실은 따로 두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화장실을 살림채 내에 두지 않고 외곽에 따로 두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전통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다.

화장실 건물이 따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대개 소변실과 대변실을 따로 두고 있다. 건물은 간이식의 형태를 나타내고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독립된 화장실 건물은 처음부터 따로 짓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통시를 헐고 그 자리에 화장실을 신축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시주택에서 통시를 헐고 화장실을 신축할 경우에는 원래의 통시 자리에 화장실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화장실 위치가 건물 신축시 정해지면 차후에 화장실을 개량하거나 신축을 하더라도 대부분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민간신앙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장실 1 (화장실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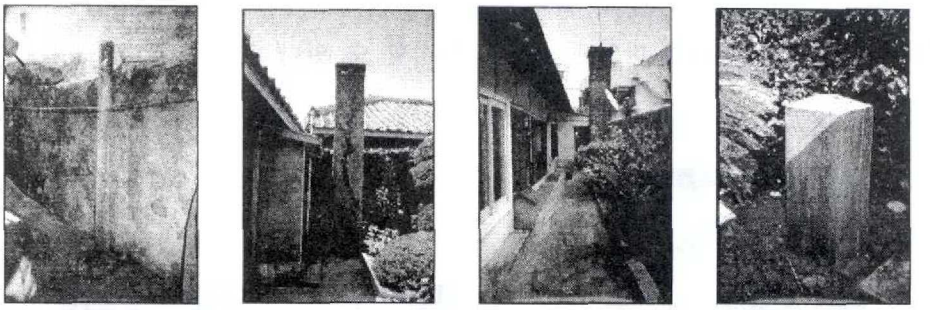
화장실 2 (대문+화장실)

<사진 2-4> 화장실의 형태

5. 굴뚝

薪炭만을 사용하던 온돌은 8.15 해방을 전후하여 무연탄으로 연료가 대체되고, 6.25사변 이후 구멍탄(연탄)을 사용하게 되어 온돌도 구멍탄 연소에 맞게 개조되었다.[17] 제주도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연탄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6.25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주택에서 굴뚝은 1950년대 연탄이 취사 및 난방 재료로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굴뚝은 주택 외벽이나 담장에 붙여서 배치되며, 간혹 주택과 멀리 떨어진 마당 한쪽에 설치되기도 한다.

굴뚝 모양은 방형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적조로 되어 있고, 방형의 몸채에 따로 Ø12~15㎝ 정도의 연통을 연결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높이는 지상에서 2~3m 정도로 하고 있다.



ⓐ시멘트연통 굴뚝 ⓑ시멘트벽돌 굴뚝 ⓒ적벽돌 굴뚝 ⓓ시멘트 방형+연통 굴뚝

<사진 2-5> 굴뚝의 형태

2.2 배치유형

17) 김선우, 「한국 주거난방의 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3권90호, 1979. 10, 20쪽.

사람이 한 장소에 머물러 살고자 하는 본능을 충족시키는 데는 집(주택)이라는 건축적 공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건축적 공간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넓은 대지 위에 위치를 결정하는 <배치>라는 개념과 공간의 밑바탕을 이루는 어떤 장에 펼쳐진 평면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택 연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18]

도시주택의 배치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건물의 성격구분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배치형태에서 도시주택이 가지는 특성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살림집은 일반적으로 안채와 바깥채, 헛간채 및 기타 곁채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헛간채나 기타 곁채는 거의 임시 가건물이며, 특히 헛간채를 제외한 기타 부속채들은 시설물이나 설비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헛간채까지를 살림살이에서 살림공간으로 인정하고, 살림집의 범주로 간주한다.[19]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주택의 배치유형을 구분하며, 특히 창고와 같은 부속시설물까지를 살림채에 준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배치형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도시주택의 배치유형은 두거리형(複棟型)과 외거리형(單棟型)으로 나눌 수 있다. 두거리형(複棟型)은 안채와 바깥채 또는 안채(살림채)와 그에 준하는 부속시설물로 이루어진 형태이며, 외거리형(單棟型)은 살림채 하나로만 구성되며 바깥채나 창고 같은 부속시설물이 없는 배치형태를 말한다. 두거리형(複棟型)은 외거리형(單棟型)보다는 주로 넓은 필지에서 나타나는 배치형태로 볼 수 있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넓은 필지에 외거리형(單棟型)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자주 보이고 있다.

2.2.1 두거리형(複棟型)

두거리형(複棟型)은 전통초가의 안·밖거리형 배치와 그 성격이 유사하며, 살림채(안채)와 바깥채 또는 대문채가 이루는 배치형태를 말한다. 두거리형(複棟型)

---

18) 주남철, 앞책, 73쪽.
19)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113쪽에서 재정리.

은 안채와 바깥채가 二자형이나 ㄱ자형으로 배치되며 부속채가 더해질 경우에는 ㄷ자 형태를 이루는 배치형태이다. 대지의 형태나 부속채의 크기에 따라 二자나 ㄱ자, ㄷ자의 배치형태가 다소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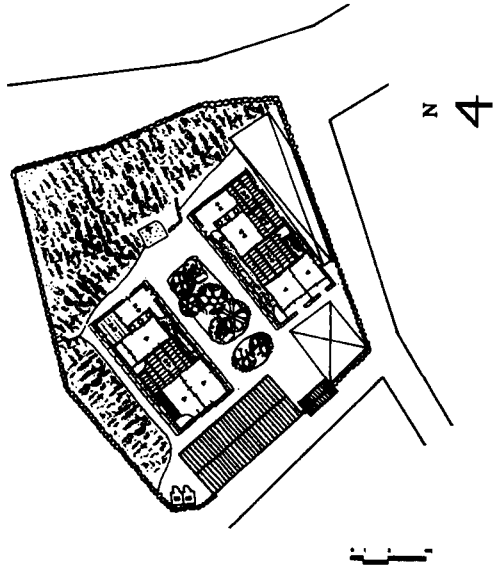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보면 안채의 방위에 따라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이 배치형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의 남쪽지방인 경우에는 집의 방위가 거의 남향으로서, 비록 멀리 있지만 한라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게 집을 짓는다. 만일에 살림채가 둘이면 안채는 남향집으로, 바깥채는 동향집이나 서향집으로 지어 'ㄱ'자 모양으로 배치한다. 그러나 북쪽지방의 경우는 시각의 안정감을 찾으려면 바다를 바라보는 북향이 좋고 태양의 방위각으로 보면 남향이 좋으므로, 안채와 바깥채를 나란히 배치하는 二자 방식을 쓰며 집의 앞뒤가 모두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다.[20]

도시주택에서 안채와 바깥채 또는 대문채로 배치된 두거리형(複棟型)은 전통초가의 안·밖거리형 배치형태와 같이 二자나 ㄱ자 형태의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부속채가 더해질 경우에는 ㄷ자 배치형태를 보이고 간혹 ㅁ자 배치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안채(살림채)와 부속채로 두거리형(複棟型)을 이룰 경우에 부속채는 창고나 헛간 등의 용도가 주를 이루며 주로 작은방이 첨가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살림채인 안채와 부속채는 二자, ㄱ자, ㄷ자로 배치되고 있다.

도시주택의 두거리형(複棟型)에서 보이는 이러한 二자, ㄱ자, ㄷ자 배치형태는 완전한 형태로 배치되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형태를 이루며 배치되는 예도 많다. 이것은 안채와 부속채로 두거리형(複棟型)을 이루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데, 도시주택은 그 도시의 구성상 필연적으로 대지에 대한 제약이 많고 또 그 형태도 다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21]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배치형태는 필지의 크기나 형태에 따른 배치 결과로 보이며, 특히 안채의 위치 및 좌향을 먼저 결정한 후에 부속채의 위치 및 향을 결정하면서 나타내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

20)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2권」, 한길사, 1992, 687쪽.
21) 김정기, 「주택사적 민가론-민가의 형성과 변천과정, 주거사적 측면에서 본 민가의 의미」, 건축과 환경 8710, 88쪽.



삼도2동 1158-23, 73 김수종, 방재신[22]

<그림 2-1> 두거리형(複棟型)의 배치형태

1. 안채의 좌향

집을 앉히는 방법은 자연환경으로서 좌위(좌위)와 향위(향위) 및 방위를 살펴보며, 인문환경으로서 다른 집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방위는 단순히 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로서 양명한 태양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잡아야 된다. 좌향은 건물이 등을 지고 앉은 좌와 바라보는 향을 합해서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일직선상에 놓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향위는 집안의 축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중심상이며 보는 이의 심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형적 요소로 바라보아야 한다.[23]

---

22) 원래는 하나의 필지였으나 현재는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소유주가 2인으로 되어 있음.

23)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2권」, 한길사, 1992, 676쪽.

안채의 좌향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시주택의 좌향 분석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좌향 분석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후에 도시주택의 안채 좌향은 방향(방위)만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며, 이것을 필지의 형상이나 진입로의 위치에 따른 진입방향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주택의 좌향은 배산임수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남제주군에서는 북쪽에 한라산이 있고 남쪽에 바다가 있으므로 배산임수 형태를 취한 남향집이 다수 분포하며 남향을 하더라도 정남향을 하는 집은 의외로 적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정남향을 꺼리는 속신에서도 유래한다.[24] 그러나 북제주군에서는 한라산이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위에 대한 개념이 더욱 약하다.

북제주군은 배산임수의 입지를 선택할 경우 가옥의 배치방향이 자연히 북향이 되는데, 북향은 풍수설과 관습상으로 凶方일 뿐만 아니라 동계에 탁월한 편서풍계의 풍토지역으로 풍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옥배치의 방향은 지형, 풍향, 일사량 등의 자연적 조건 외에 방위에 대한 길흉관습, 민간신앙 등의 제요인이 작용되어 동향 및 서향이 보편화[25]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일대는 이와 같은 요인 외에 따르는 占地選擇이 제약되어 남향의 비율은 저조해지고 있다.[26]

<표 2-1>에서 보면 10월에서 2월까지 즉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고, 3월에서 9월까지 즉 봄과 여름에는 주로 남풍, 남동풍, 남서풍이 불고 있다. 북제주군은 한라산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풍보다는 북풍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제주군의 주택 좌향은 남북개념보다는 바람에 의한 영향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제주도의 기후가 겨울에도 춥지 않고 해를 중심으로 생활해야할 청명일이 연중 많지 않은 데서도 연유한다.[27]

---

24) 제주도, 『제주의 민속Ⅳ - 주생활편』, 1996. 485쪽.
25) 정영철, 앞책, 127-8쪽에서 재인용.
26) 오홍석, 『제주도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박논, 1974, 93쪽.
27) 제주도, 앞책, 436쪽.

<표 2-1> 제주도 지방의 월별 풍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풍향	S	NW	SSE	S	S	SSW	S	NNE	NNE	NW	NNW	WNW

*제주시, 「도시계획 40년사」, 1994, 76쪽.

도시주택의 두거리형(複棟型)에서 안채의 좌향은 일정한 향을 갖지 않고 있다. <표 2-2>에서 보면 북서향 6채, 북동향 7채, 남서향 13채, 남동향 10채, 정서향이 2채로 나타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남향이 북향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서향 집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서향 집이 적은 것은 겨울철의 강한 북서풍에 의한 영향을 의식한 배치로 볼 수 있다.

제주시가 한라산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산임수형으로 보면 남향집보다는 북향집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도시주택의 두거리형(複棟型)에서는 오히려 남향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남향집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전통민가에서와 같이 북풍 특히 북서풍을 의식한 배치개념으로 생각되며, 대지구조나 주거지구조에 의한 일조 및 일사의 고려도 주된 좌향 결정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2-2> 두거리형(複棟型)의 안채 좌향

	북서향	북동향	남서향	남동향	정서향	합계
안채 좌향	6	7	13	10	2	38

2. 진입로와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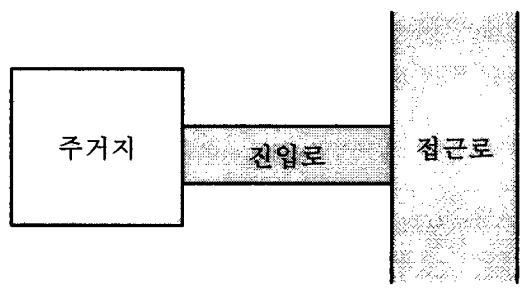
(1) 진입로

도시주택의 주거유형은 향에 대응하며 동시에 길의 구조에 대응함[28]으로써 개

28)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박논, 1990, 137쪽.

개의 필지에 놓여진다. 이것은 도시주택의 안채 좌향과 길의 형태 또는 위치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길은 주로 필지와 접하여 대문의 위치를 결정짓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필지와 길 즉 가로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도시주택의 배치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주택의 주거지에서 가로는 접근로와 진입로로 구분할 수 있다. 접근로는 주거단지 가구의 구성에 사용되는 주도로로써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폭원 4m이상의 것으로, 진입로는 접근로로부터 각 주호에 이르는 細街路로써 폭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m이하의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29] 주거지내에서 접근로는 가지형과 격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지형은 비정형의 가로체계로서 자연적인 질서에 기초하고 있으며, 격자형은 정형의 가로체계로 인위적인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지형은 장기간에 걸쳐 거주자가 대지에 적응하면서 전체를 구성해 나감으로써 완성된다. 한편 격자형은 전체가 일괄적으로 계획되어진 위에 거주자가 그 틀에 적응하면서 완성된다. 가지형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주거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격자형은 인위적으로 단기간 내에 개발된 주거지에서 주로 발견된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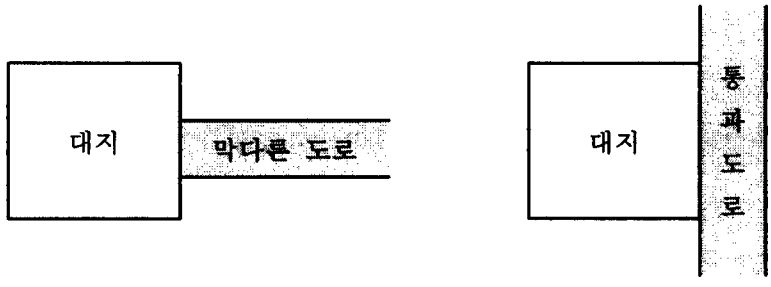
<그림 2-2> 접근로와 진입로

도시주택에서 진입로는 다양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나며, 가로의 공간적 성

29) 임창복, 『한국 도시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1989, 서울대 박논, 155쪽.
30) 송인호, 앞책, 62쪽에서 재정리.

격에 의해서 막다른도로와 통과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막다른도로는 공간적으로 도로가 단절되어 있으며, 통과도로는 도로가 공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미비로 주거지구조에 대한 고찰은 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점은 도시주택 개개의 필지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성격, 다시 말해서 대문(채)이 접해있는 도로의 형태를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막다른 도로와 통과도로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따라 도로와 필지의 관계를 분석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진입로의 위치에 따른 대문(채)의 위치결정과 그에 따른 대문(채)과 안채의 배치관계 그리고 안채 좌향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그림 2-3> 막다른도로와 통과도로

<표 2-3>은 두거리형(複棟型)에서 대문이 접한 진입로의 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막다른도로와 통과도로의 폭이 2~3.9m의 사이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입로 폭이 4m미만일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의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진입로는 차량보행자도로보다는 보행자 전용의 골목길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입로가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가 4m미만으로 노폭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진입로 폭이 4m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전통적인 도로 구조인 가지형 도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폭이 4m이상인 경우는 접근로로서 차량보행자도로로 볼 수 있는데, 두거리형

(複棟型) 도시주택에서는 통과도로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공적인 도로구조인 격자형 도로에서 보이고 있다. 특히 용담동 지역(용담2동)의 도시주택지에서 진입로가 격자형의 통과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주거단지계획에 의해서 들어선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표 2-3> 두거리형(複棟型)의 진입로폭 분석표 단위 : mm

	1.0-1.9	2.0-2.9	3.0-3.9	4.0-4.9	5.0 이상	합 계
막다른도로	0	7	6	0	0	13
통과도로	1	5	5	2	7	20
소 계	1	12	11	2	7	33

도시주택의 대문은 진입로와 접해 있으며, 따라서 대지로의 진입은 대부분 진입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혹 접근로에 대문이 접해 있어서 접근로에서 대문을 거쳐 바로 대지로 들어가는 형태의 도시주택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처음부터 접근로에서 바로 대지로 출입을 했던 경우이고, 둘째는 근래에 도시구조가 변하면서 도로확장공사에 의해 기존의 진입로가 접근로의 형태로 변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진입로에서 접근로로 대문의 위치를 옮기는 경우이다. 실제로 도시주택에서 이 세가지의 경우 중에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문이 항상 진입로인 골목길에 면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입로는 폭이 4m미만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규정할 수 있다.

도시주택에서 진입로인 골목길과 대문사이에 올래를 구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바로 대문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 전통초가에서는 올래라는 특수한 공간을 두기 때문에 대문을 두지 않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올래를 두지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대지면적에 대한 제약과 필지와 주거지도로의 구조상 올래라는 공간을 구성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대문이 하나의 공통적인 시설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도시주택은 대문을 대지로 진입하는 첫 번째 통과물로 두며, 이것이 배치형태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진입방향과 필지형태

도시주택지에서 필지와 필지는 가로에 의해서 연결되며 가로는 접근로와 진입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접근로와 진입로에는 대문이 접해 있는데 특히, 대부분의 도시주택의 대문은 진입로에 접해 있으며 대문을 통해서 대지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안채의 배치와 상관관계를 갖고 구성된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대문의 위치와 안채 좌향과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두거리형(複棟型)의 바깥채나 부속채의 배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옥의 배치와 방향이 도로망과 인접주택과의 관계, 대지공간의 상태에 따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도시지역이다.[31]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필지는 대부분 부정형을 취하면서도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배치 또한 남북방향이나 동서방향으로 일정하게 놓여 있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남북축이나 동서축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좌우로 틀어져서 배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필지로 통하는 도로 즉 대문이 접하는 도로의 위치 또한 일정한 방향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주택의 두거리형(複棟型)에서 필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배치관계를 동서남북으로 단순 분류하고 필지형태 또한 동서장방형과 남북장방형으로 단순 정리하여 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에서 보이는 수치로는 일정한 분포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나 비교적 빈도가 많은 것을 위주로 분석해 보면 대체적인 분포를 알 수 있다.

두거리형(複棟型)의 진입방향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남쪽 12채,

31) 오홍석, 앞책, 92-93쪽.

북쪽 11채로 대부분 남쪽과 북쪽에 진입도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입방향이 남쪽과 북쪽일 때 안채 좌향은 남향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으로 북향과 서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지 형태는 동서장방형과 남북장방형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안채 좌향이 남향일 때 필지형태가 남북장방향이 6채, 안채 좌향이 서향일 때 동서장방형이 6채로 가장 많고, 북향일 때는 남북장방형이 5채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두거리형(複棟型)의 안채 좌향은 남향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필지형태는 남북장방형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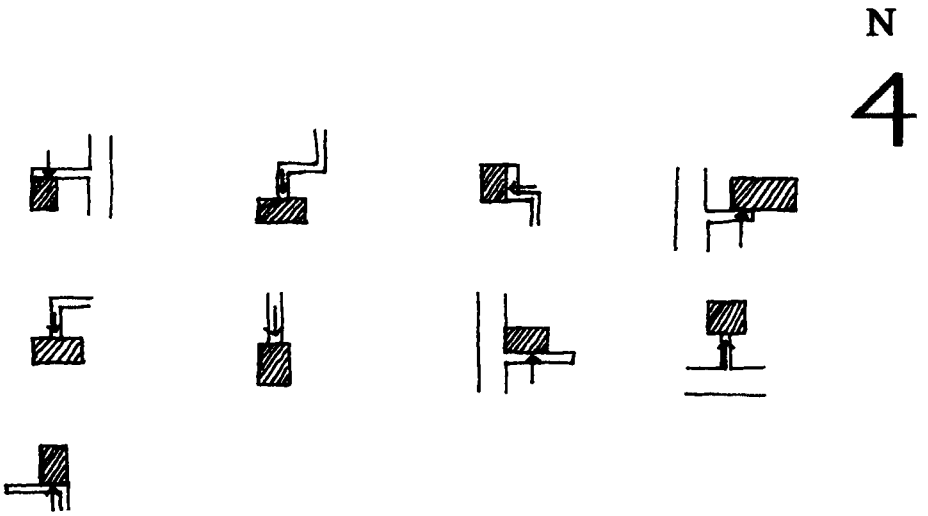
<표 2-4> 두거리형의 진입방향과 필지형태에 대한 안채 좌향 분석표

건물수	안 채 좌 향	진입방향(진입도로 위치)				필지형태		
		동	서	남	북	동서 장방형	남북 장방형	기타
34	동	1	1	1	3	3	1	2
	서	0	3	4	3	6	2	2
	남	2	1	7	2	3	6	2
	북	1	2	0	4	1	5	1
	소계	4	7	12	11	13	1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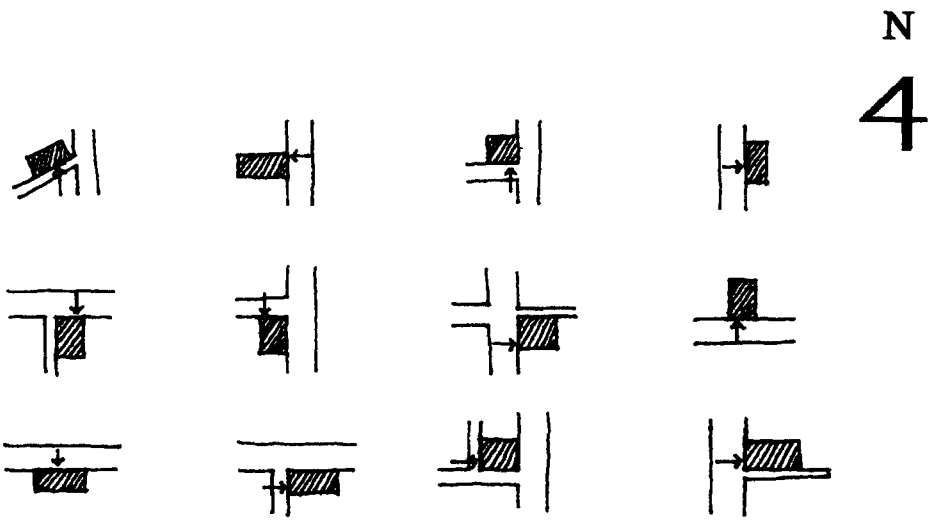
3. 안채와 대문(채)

도시주택의 두거리형(複棟型)에서 안채와 대문(채)의 배치는 안채와 대문이 ㄱ자의 형태로 꺽여서 배치되는 ㄱ자 배치형태와 대문이 안채의 정면이나 후면에 마주하여 배치되는 二자 배치형태로 나눌 수 있다. 두거리형(複棟型)의 대문 배치는 외부의 시선이 직접 안채 정면으로 향하지 않게 배치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ㄱ자 배치나 二자 배치는 안채의 정면으로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안채와 대문(채)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ㄱ자 배치형태는 안채와 대문의 향이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이 안채로 향하지 않는다.



막다른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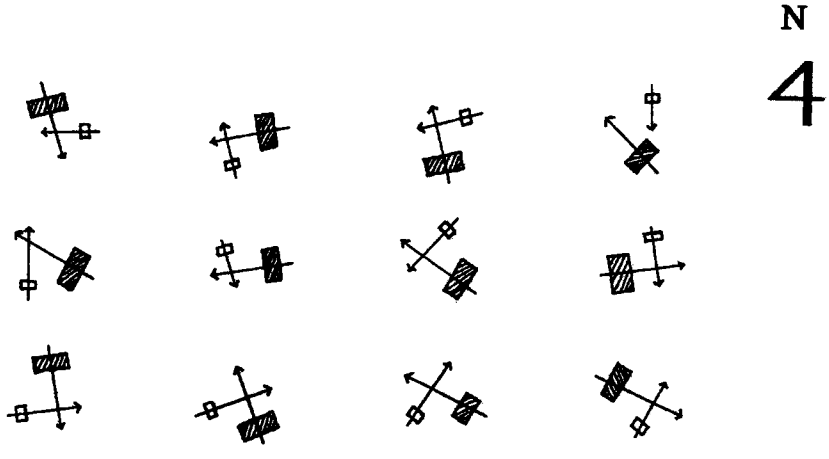


통과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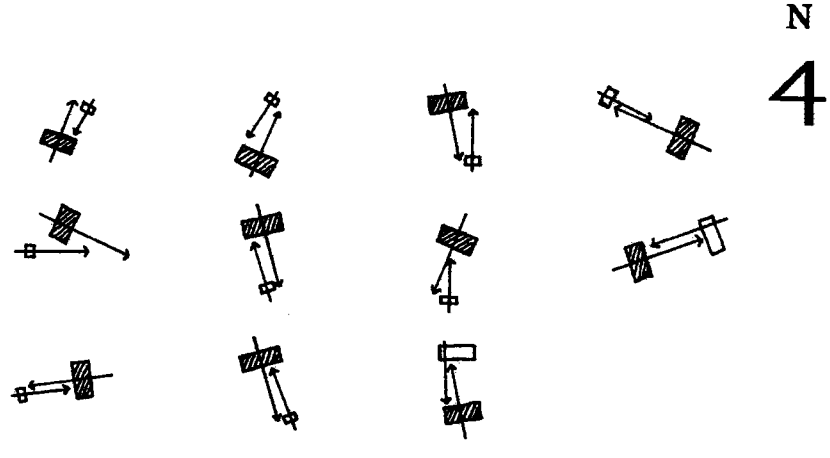
<그림 2-4> 두거리형(複棟型)의 진입형태

그러나 二자 배치형태는 대문이 안채의 정면에 마주하여 배치될 경우는 외부의 시선이 안채로 향하게 되며, 대문이 안채의 후면이나 후측면에 배치될 경우는

안채 내부로 외부의 시선이 향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문이 안채 정면에 마주하여 배치되는 경우에 대문이 안채의 정중앙에 배치되어 외부의 시선이 안채로 직접 향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대문은 안채의 정중앙에 놓이지 않고 안채의 정면 끝부분을 향하여 배치되어 안채 내부로의 외부시선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ㄱ자 배치형태



二자 배치형태

<그림 2-5> 두거리형(複棟型)의 ㄱ자와 二자 배치형태

두거리형(複棟型) 도시주택의 안채와 대문(채)의 배치형태별 분포를 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자 배치가 17채, 二자 배치가 17채로 배치 빈도가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두거리형(複棟型)에서 ㄱ자와 二자 배치형태는 안채 좌향과 대문(채)의 위치에 따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ㄱ자 배치형태는 안채의 좌향이 동향과 서향을 하고 있을 때 대문은 항상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안채의 좌향이 남향과 북향을 하고 있을 때 대문은 동쪽과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二자 배치형태는 안채의 좌향이 동향과 서향을 하고 있을 때 대문 또한 동쪽과 서쪽에만 위치하고, 안채의 좌향이 남향과 북향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대문은 남쪽과 북쪽에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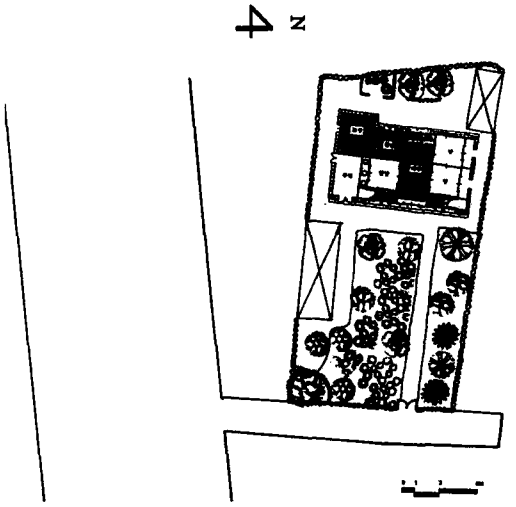
<표 2-5>에서 안채 좌향을 종합해보면 ㄱ자 배치형태에서 동향과 남향은 7채, 서향과 북향은 10채로 나타나고 있으며, 二자 배치형태에서 동향과 남향은 10채, 서향과 북향은 7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반주택의 안채가 갖는 상대적인 선호향인 동향과 남향이 비선호향인 북향과 서향의 빈도와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안채 좌향이 대문뿐만 아니라 필지의 형상, 풍향, 이웃 대지와의 관계 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표 2-5> 두거리형(複棟型)의 안채와 대문(채)의 배치형태 분석표

안채와 대문의 배치형태	건물수	안 채 좌 향	진입방향(대문의 위치)				합 계
			동	서	남	북	
ㄱ자	17	동	0	0	1	3	4
		서	0	0	4	3	7
		남	2	1	0	0	3
		북	1	2	0	0	3
		소계	3	3	5	6	17
二자	17	동	1	1	0	0	2
		서	0	3	0	0	3
		남	0	0	7	1	8
		북	0	0	0	4	4
		소계	1	4	7	5	17

2.2.2 외거리형(單棟型)

외거리형(單棟型)은 전통초가의 외거리형 배치와 그 성격이 유사한 형태로, 바깥채나 부속채가 없이 살림채 하나로만 구성되며 여기에 대문이 설치되는 배치형태를 말한다.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부속건물이 증축되거나 살림채에 덧붙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살림채의 후면이나 측면에 배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증축이나 덧붙임으로 인해서 살림채의 일조 및 일사, 채광이나 조망 등이 나빠지는 것을 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삼도2동 1161-13 채원배

<그림 2-6> 외거리형(單棟型)의 배치형태

1. 안채의 좌향

외거리형(單棟型)으로 배치된 도시주택의 안채 좌향은 <표 2-6>에서 보면 북서향 17채, 북동향 8채, 남서향 24채, 남동향 15채, 정서향 2채로 나타나고 있다. 남서향이 전체 외거리형(單棟型)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

으로 북서향과 남동향이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 좌향은 남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두거리형(複棟型)보다 북향집의 빈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두거리형과 외거리형이 비슷한 안채의 좌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정한 좌향을 갖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이 도시주택이 가지는 안채 좌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6>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 좌향

	북서향	북동향	남서향	남동향	정서향	합계
안채좌향	17	8	24	15	2	66

2. 진입로와 필지

(1) 진입로

도시주택의 외거리형(單棟型)에서 보이는 진입로의 특성은 두거리형(複棟型)에서 보이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7>은 외거리형(單棟型) 도시주택의 진입로 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막다른도로와 통과도로의 폭이 대부분 1~ 3.9m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2~ 3.9m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거리형(複棟型)과 마찬가지로 외거리형(單棟型)의 진입로 또한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7> 외거리형(單棟型)의 진입로 폭 분석표 단위 : mm

	1.0-1.9	2.0-2.9	3.0-3.9	4.0-4.9	5.0 이상	합 계
막다른도로	3	13	10	0	0	26
통과도로	3	5	7	0	9	24
소 계	6	18	17	0	9	50

폭이 4m이상인 경우는 막다른도로에서는 보이지 않고 통과도로에서만 보이고 있다. 노폭이 4m미만인 경우는 가지형 도로에서 보이고 있으며, 노폭이 5m를 넘는 진입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자형 도로에서 보이고 있다.

(2) 진입방향과 필지형태

외거리형(單棟型) 도시주택은 살림채 하나로만 구성되고 여기에 대문만이 설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거리형(複棟型)에 비해 대지면적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주택이 외거리형(單棟型)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단순히 두거리형(複棟型)보다 필지면적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외거리형(單棟型)의 배치를 보이는 도시주택에서도 넓은 필지면적을 갖고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거리형(單棟型) 도시주택의 필지형태 또한 두거리형(複棟型)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부정형을 취하면서도 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필지의 배치 또한 동서나 남북축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좌우로 틀어져서 배치되는 형태를 보이고, 개개의 필지로 통하는 진입도로의 위치 또한 필지에 접하여 같은 형태로 배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치형태를 단순 구성하여 보면 <표 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8>에서 보면 외거리형(單棟型)에서 진입방향은 두거리형(複棟型)에 비해 다양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진입방향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쪽 16채, 동쪽 15채로서 주로 서쪽과 동쪽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입방향이 남쪽과 북쪽일 경우도 9채, 10채로 비교적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어서 일정한 경향으로 보기 힘든 면이 있으나, 두거리형(複棟型)에서 진입이 주로 남쪽과 북쪽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되는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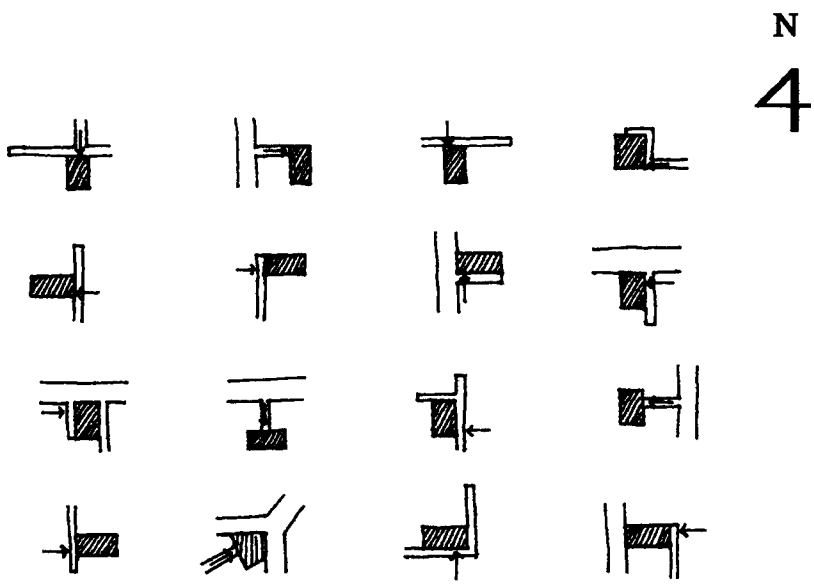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외거리형(單棟型)에서 진입방향이 서쪽일 때 안채 좌향은 서향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쪽일 때는 안채 좌향이 남향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필지형태는 동서장방형과 남북장방형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안채 좌향이 서향일 때 필지형태는 동서장방형이 10채로 남북장방형의 2채보다 비교적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안채 좌향이 남향일 때는 필지형태가 동서장방형 6채, 남북장방형 8채로 서향일 때보다는 비교적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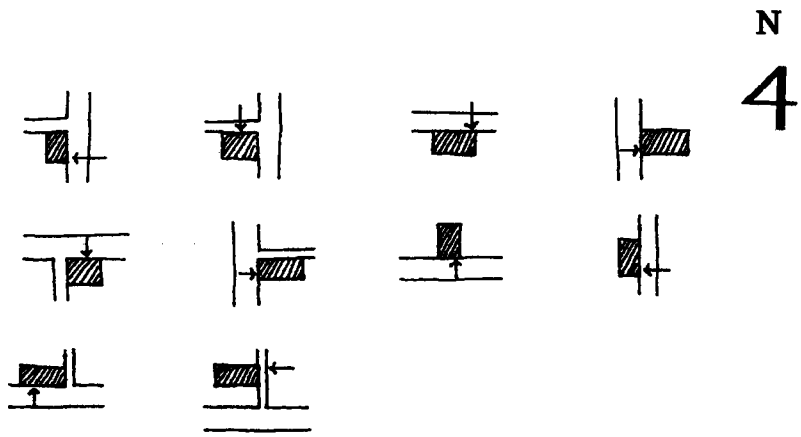
따라서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 좌향은 서향과 남향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필지형태는 안채좌향이 서향일 때는 동서장방형이, 남향일 때는 동서장방형과 남북장방형이 비슷한 빈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외거리형의 진입방향과 필지형태에 대한 안채 좌향 분석표

건물수	안 채 좌 향	진입방향(진입도로 위치)				필지형태		
		동	서	남	북	동서 장방형	남북 장방형	기타
50	동	4	3	3	3	7	5	1
	서	1	9	2	3	10	2	3
	남	8	3	3	3	6	8	3
	북	2	1	1	1	2	3	0
	소계	15	16	9	10	25	18	7



막다른 도로



<그림 2-7> 외거리형(單棟型)의 진입형태

3. 안채와 대문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와 대문의 배치도 두거리형(複棟型)과 마찬가지로 ㄱ자 배치형태와 二자 배치형태로 나눌 수 있다. 대문의 배치형태나 위치에 의한 외부시선의 유입정도는 두거리형(複棟型)과 거의 유사하며, ㄱ자 배치형태와 二자 배치형태의 빈도 또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9>에서 보면 외거리형(單棟型) 도시주택에서 안채와 대문의 배치형태별 빈도가 ㄱ자 26채, 二자 24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빈도는 두거리형(複棟型)과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며, ㄱ자 배치형태와 二자 배치형태 또한 안채 좌향과 대문의 위치에 따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외거리형(單棟型)에서 ㄱ자 배치형태는 안채의 좌향이 동향과 서향을 하고 있을 때 대문은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안채의 좌향이 남향과 북향을 하고 있을 때 대문은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二자 배치형태는 안채의 좌향이 동향과 서향을 하고 있을 때 대문 또

한 주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안채의 좌향이 남향과 북향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대문은 대부분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9>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와 대문의 배치형태 분석표

안채와 대문의 배치형태	건물수	안 채 좌 향	진입방향(대문의 위치)				합 계
			동	서	남	북	
ㄱ자	26	동	1	0	3	3	7
		서	1	0	2	2	5
		남	8	4	0	0	12
		북	2	0	0	0	2
		소계	12	4	5	5	26
二자	24	동	3	3	0	0	6
		서	0	8	0	1	9
		남	1	0	2	3	6
		북	0	1	1	1	3
		소계	4	12	3	5	24

외거리형(單棟型)에서 ㄱ자 배치형태는 안채 좌향이 남향일 때 진입은 주로 동쪽과 서쪽에서 이루어지는 빈도가 많으며, 안채 좌향이 동향일 때 진입은 남쪽과 북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二자 배치형태에서는 안채 좌향이 동향과 서향을 할 때 진입 또한 동쪽과 서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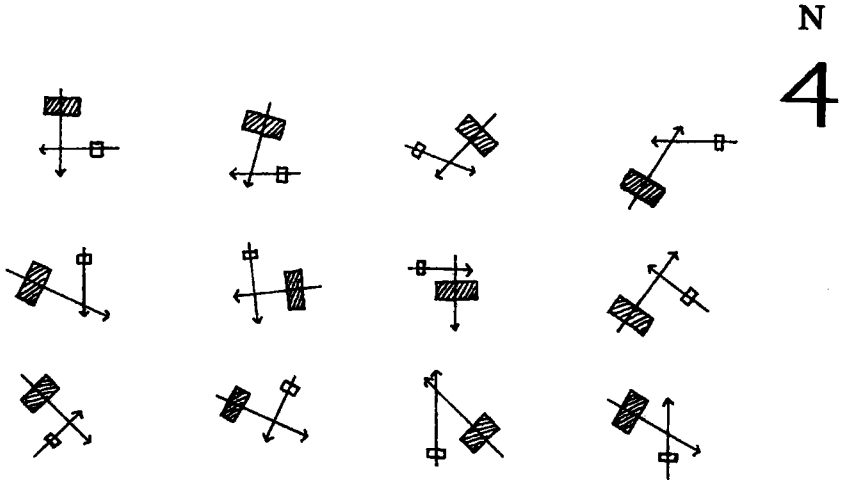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 좌향을 종합해 보면 두거리형(複棟型)과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표 2-9>에서 보면 ㄱ자 배치형태에서 안채 좌향은 남향과 동향이 19채, 서향과 북향이 7채로서 일반적인 주택의 선호향인 동향과 남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두거리형(複棟型)의 ㄱ자 배치형태에서 안채 좌향이 주된 향을 갖지 않는다는 점과 서로 비교가 된다. 반면에 二자 배치형태에서 안채 좌향은 동향과 남향이 12채, 서향과 북향이 12채로서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두거리형(複棟型)의 二자 배치형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써, 二자 배치형태의 주택 좌향이 일반적인 선호향에 집중되

지 않고 비선호향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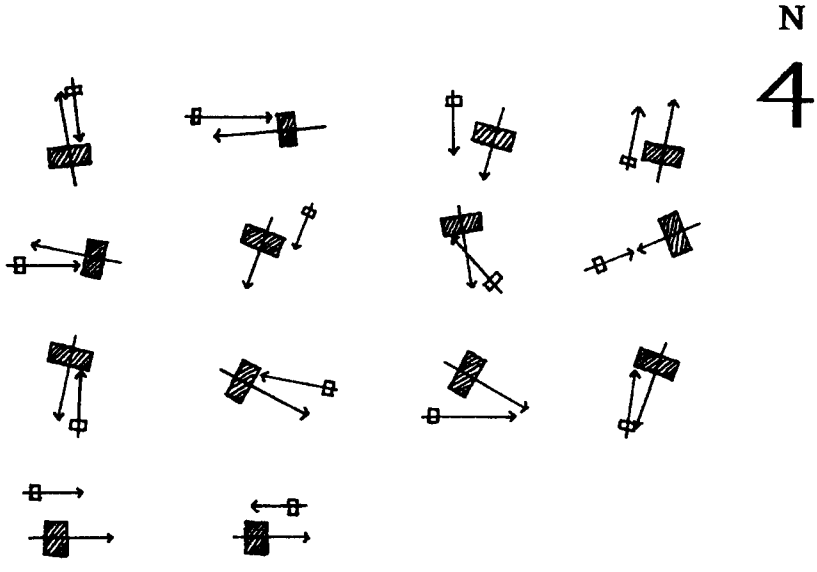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도시주택의 외거리형(單棟型)은 안채와 대문의 관계에서 보면 두거리형(複棟型)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분에서는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도시주택의 안채 좌향이 진입로와 필지(형태) 그리고 진입방향과 안채의 관계 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것이 두거리형(複棟型)과 외거리형(單棟型)에서 각기 특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주택의 두거리형과 외거리형에서 보이는 안채와 대문의 배치 형태는 빈도에서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외부시선의 유입 정도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안채와 대문채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시선이 안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도시주택의 배치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문(채)의 배치는 진입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배치가 안채의 좌향과 결부되어 ㄱ자나 二자와 같은 대문과 안채의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안채의 좌향과 대문(채)의 방위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부속채나 부속 시설물의 배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ㄱ자 배치형태



二자 배치형

<그림 2-8> 외거리형(單棟型)의 ㄱ자와 二자 배치형태

제3장 평면유형 분석

3.1 실 구성에 의한 분류

주생활의 기본적 내용은 개인적인 잠자리와 사회적 인간관계의 공간 및 가사노동 공간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이 가운데 시대가 발전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현저하게 변화하는 것이 가사노동 부분이다. 우선 가사노동의 방법이 달라지고 담당자가 변천하며 노동방법의 기초로서 땔감(에너지원)이 바뀌는 것이다.[32]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사노동 행태에서 중요한 변화는 그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땔감의 근대화에 있다. 1950년대까지 장작이 주 에너지원이던 것이 나무의 고갈로 말미암아 1960년대 이후 연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었다.[33] 이러한 땔감의 변화는 도시주택에서 부엌의 구조 및 공간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취사와 난방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제주시 도시주택에서 굴뚝의 존재와 연결되며, 굴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주택의 실 구성에 의한 평면유형 분류는 이러한 가사노동의 변화와 땔감의 근대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은 대상지역이 도시라는 점에서 농촌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사노동의 변화와 땔감의 근대화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도시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은 전통민가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다. 전통민가의 내부공간은 안방과 고팡이 면해 있으며, 부엌이 안방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3칸형과 4칸형이 동일하다. 도시주택의 평면은 안방, 작은방, 부엌, 고팡, 챗방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툇마루, 수납공간이 더해지며, 시기에 따라 현관이 덧붙여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은 실의 위치에 따른 공간분화로 설명할 수 있다. 집안의 가장과 주부가 거처하는 실인 안방과 주부의 가사노동이 주로 일어나는 부

32)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63쪽.
33) 김홍식, 앞책, 64쪽.

엌이 위치하는 형태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전통민가는 한 棟내에서 성별에 따른 영역구분은 볼 수 없지만 남녀분리의 의식에 의해 영역이 구분되는 것은 생활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큰구들은 그 집을 대표하는 가장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또 인접하는 상방도 남성의 영역으로 위치시켜 주인의 취침, 접객, 식사 등의 실로 이용된다. 이것에 비해 정지, 작은구들, 고팡, 챗방 등은 여성의 영역으로 위치[34]지워지는데, 여자의 공간이 남자의 공간보다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남녀의 내외법도가 육지에 비해 희박하여 가사나 가례에 여자의 역할이 확대, 적극화되었으며, 따라서 주거내 여자의 위치는 하위이나 영역은 훨씬 크게 점유된다고 할 수 있다.[35]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주택의 평면유형을 나누는 기본 틀로서 안방의 위치와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도시주택이 안방의 위치에 따라 구별되고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이 주로 일어나는 부엌과 고팡, 챗방의 배치에 따라 다양한 평면형태를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주택을 안방과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에 따라 분류한 것은 도시주택이 제주도 전통민가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고, 또한 그것이 변화·발전한 평면형태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주택이 나타내는 내부공간 구성의 특성을 이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분석하여 평면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주택이 가지는 제주도 전통민가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도시주택의 평면유형은 안방과 부엌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가사공간 분리형, 안방과 부엌이 서로 면해 있으면 가사공간 조합형으로 구분했다. 특수형은 별동부엌형과 외래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보이는 딴정지형이 도시주택에서 별동부엌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외래형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평면구성을 보이지 않는 외래적인 요소를 가지는 평면형태이다.

따라서 가사공간 분리형과 가사공간 조합형 그리고 특수형의 별동부엌형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평면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것이 변화, 발전되어

---

34)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한대박논, 1991, 34쪽.
35) 정영철, 앞책, 34쪽.

나타나는 평면형태로 볼 수 있다.

3.1.1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안방이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는 유형이다. 제주도 전통민가(초가)에서 안방(큰구들)과 부엌(정지)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 편에 위치한다. 안방(큰구들)의 후면에는 중요한 실인 고팡이 위치하여 주부가 관리한다. 따라서 제주도 전통민가(초가)의 내부공간 구성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부엌과 안방으로 이원화 또는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은 주부의 가사 노동공간인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볼 때 제주도 민가(초가)의 전통적인 내부공간 구성에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다. 고팡과 챗방의 존재와 특히 평면내 고팡의 위치는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전통적인 내부공간 구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다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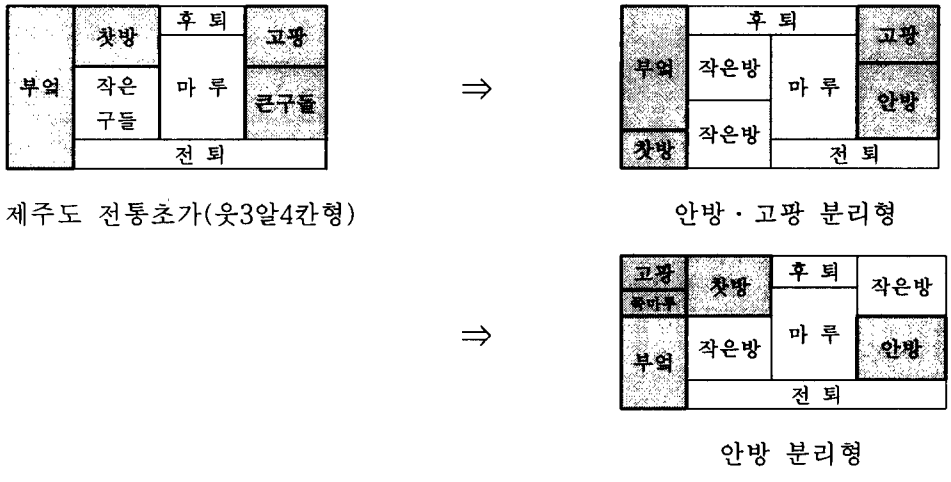
<표 3-1>에서 보면 가사공간 분리형은 가사공간 조합형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사공간 조합형이 가사공간 분리형에 비해 도시주택의 일반적인 평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1930년대 이후에는 그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략 1930년대 이후에는 가사공간 조합형이 도시주택의 일반적인 평면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이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의 전단계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사공간 분리형과 조합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 · 발전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평면뿐만 아니라 구조, 입면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주거유형이 우월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하게 되며, 하나의 주거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변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한 지역의 주거환경이 서로 동질성을 띠면서 동시에 다양성[36]을 지니기 때문이다.

<표 3-1> 연대별 평면유형 분포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가사공간 분리형		3	1	5	4	3	16
가사공간 조합형		4	6	29	16	24	79
특수형	별동 부엌형	-	-	1	-	1	2
	외래형	-	-	2	-	3	5
소계		7	7	37	20	31	102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하나는 안방과 고팡이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는 안방·고팡 분리형이고, 다른 하나는 안방만이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고 고팡이나 챗방은 부엌 내에 위치하거나 부엌에 근접 배치되는 안방 분리형이다.



제주도 전통초가(웃3알4칸형)

안방·고팡 분리형

안방 분리형

<그림 3-1> 가사공간 분리형

36)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15쪽에서 재정리.

1. 안방+고팡 분리형

안방+고팡 분리형은 안방과 고팡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 반대편에 배치된 형이다. 평면의 중앙에 마루를 두고 좌측 또는 우측에 안방과 고팡이 서로 면해서 위치하고, 부엌과 챗방이 그 반대편에 위치한 형이다.

이 형은 3칸형과 4칸형에서 보이고 있는데, 1920년대는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40년대와 1960년대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4칸형일 경우는 마루와 부엌사이에 작은방 2칸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방 3개로 구성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칸형에서는 방이 2개 또는 3개로 구성되며, 부엌은 돌출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에 나타나는 3칸형에서는 현관이 덧붙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방은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며 고팡은 안방의 후면에 배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엌은 평면의 후면에 위치하며, 그 면적 또한 방 한 칸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안방+고팡 분리형이 평면구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제주도 전통민가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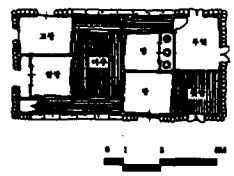
-고팡이 존재한다는 점,

-근대적인 공간분화를 보이는 챗방이 존재한다는 점,

-안방과 고팡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과 서로 마주하여 배치하는 점,

-안방이 고팡과 면해 있으며 고팡이 안방후면에 위치하는 점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안방+고팡 분리형이 제주도 전통민가가 도시주택으로 변화하여 나타난 형태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공간 구성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방의 수가 늘어나거나 돌출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부엌의 면적이 전통민가에 비해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직업의 분화,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주생활의 변화 그리고 연료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 소	평면도
1920년대	20-4	삼도2동1158-5 김성훈	

<그림 3-2> 안방+고팡 분리형

2. 안방 분리형

안방 분리형은 안방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의 반대편에 배치되는 형을 말한다. 이 형은 안방+고팡 분리형에서 안방후면에 위치했던 고팡이 부엌의 후면으로 이동하거나 근접하여 배치된다. 안방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과 서로 마주하여 배치되어 있고, 부엌, 고팡, 찻방이 하나의 가사노동군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 전통민가에서는 고팡이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항상 안방후면에 배치되는데 반해, 안방 분리형에서는 고팡이 부엌 내 또는 부엌 근처에 배치된다. 고팡이 부엌 내 또는 근처에 배치된다는 것이 고팡에 대한 중요성의 약화나 수장물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것은 주의식에 따른 주생활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공간의 근대적인 분화 및 분리에 의해 주부 가사노동공간이 기능적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엌, 고팡 그리고 찻방이 하나의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은 개개의 실이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며, 반면에 주부 가사노동공간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주부가 거처하는 실인 안방이 부엌 반대편에 배치되는 것은 제주도 민가의 전통적 내부 공간구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안방 분리형은 실들의 조합에 따라 부엌+고팡+찻방 형, 부엌+고팡 형, 부엌+찻방형, 부엌 단독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부엌+고팡+찻방 형

부엌+고팡+찻방 형은 안방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과 마주해 있는 형이며, 또한 부엌은 고팡, 찻방과 하나의 군을 형성하고 있는 형이다. 이 형은 1930년대를 제외하고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엌, 고팡, 찻방이 ㄱ자의 형태를 이루며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는 부엌이 평면의 전면에 배치되며, 1960년대에는 부엌 전면에 실이 추가되어 부엌이 실과 실 사이에 배치되면서 속부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팡은 부엌후면에 배치되며, 특히 1960년대가 되면 평면의 외부로 돌출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엌과 마루사이에 작은방이 배치되며, 이 작은방에 면하여 찻방이 후면에 배치된다. 따라서 마루에서 부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찻방을 거쳐야 하며, 찻방과 부엌의 원활한 동선연결을 위해서 부엌 내에 쪽마루를 설치했다. 이 쪽마루는 부엌과 고팡과의 원활한 동선연결에도 쓰이며, 부엌 바닥높이가 쪽마루보다 낮기 때문에 댓돌을 설치하기도 한다.

안방은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며, 특히 1960년대가 되면 정면으로 돌출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방의 후면에는 보통 작은방이 위치하는데 1920년대의 주택에서는 바닥에 마루를 깐 마루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마루방은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으며 평상시에는 자녀들의 공부방이나 놀이방 정도로 이용하는 실이다. 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마루방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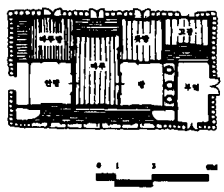
제주도 초가에서 보면 별동정지형 건물의 안거리(안채)에 골방이 있다. 이 방은 우물마루가 깔려 있으며 통상 광과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다.[37] 또한 19세기에 지은 중대형 민가에서 밖거리의 측면에 툇간을 툇마루로 해서 그쪽으로 즉 머리방으로 출입[38]하는 형식이 나타나는데, 이 머리방은 마루가 깔려 있는 마루방이다. 따라서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마루방은 이러한 골방이나 머리방이 그 용도나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요소인 골방이나 머리방이 도시주택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다만 그 위치나 용도

37) 제주도, 「제주의 민속Ⅳ - 주생활편」, 1996, 623쪽.
38)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박논, 1996, 104쪽.

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툇마루가 설치되며, 마루 정면의 툇마루에는 신발을 벗는 공간을 만든다. 특히 툇마루는 1960년대가 되면 면적이 축소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차츰 현관이 평면에 도입되면서 툇마루는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부엌+고팡+찻방 형은 안방+고팡 분리형의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형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평면내 실 구성의 변화는 주부 가사노동권을 형성하는 내부공간의 근대적 분화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20년대	20-7	삼도2동1158-49 현상종	

<그림 3-3> 부엌+고팡+찻방 형

(2) 부엌+고팡 형

부엌+고팡 형은 1920년대와 1940년대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찻방은 없고 부엌과 고팡만이 있으며, 이 두 개의 실은 서로 면해있다. 부엌은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며, 옆에는 작은방이 배치된다. 고팡은 부엌 후면에 위치하며, 고팡과 부엌사이에 쪽마루가 시설된다. 이 형은 부엌+고팡+찻방 형에서 보이는 찻방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제기방이나 작은방이 배치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찻방이 없어지면서 마루나 방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에서 부엌으로 가는 공간이 복도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칸 구획이나 실 구획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계획적인 공간구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는 툇마루가 설치되고 마루 전면에

는 신발을 벗는 공간이 마련된다. 안방은 평면의 전면에 배치되며,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특히 이 형 중에서 일도1동 1243-1번지 문순여氏 가옥의 안채는 1970년대 초에 조사된 성읍리 마을의 바깥채 신형과 평면구성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성읍리 바깥채 신형을 조사한 김홍식 교수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최근에 신축된 집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지어서 지역의 특성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는가 하면 전통적인 공간구성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약간 첨가되는 집도 있다. 신형은 오른쪽으로 가운데 복도를 두는 것이 약간 다를 뿐 공간의 구성방식은 전통적인 것과 유사한 예이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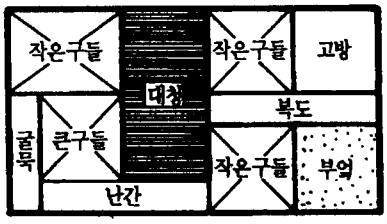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도시주택이 제주도 전통초가가 발전, 변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써 도시주택이 제주도 전통초가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주택은 전통초가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평면형태로 정착하면서 하나의 유형으로 발전, 변화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변형 평면이 도시적 성격을 띠는 성읍 마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주택 또한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평면형태로서 지리적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주시와 성읍은 과거부터 도시적 성격을 가지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도시주택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도시적 형태를 띠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의 평면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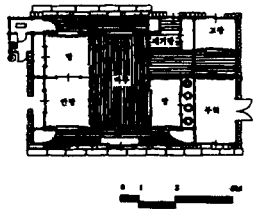
부엌+고팡 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의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평면형태라고 생각하며, 특히 부엌+고팡+찻방 형에서 찻방이 다른 용도의 실로 변화하여 나타난 형태라고 생각한다.

---

39)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124-5쪽.



<그림 3-4> 성읍리 초가 신형 (바깥채 4칸)[40]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20년대	20-1	일도1동1243-1 문순여	

<그림 3-5> 부엌+고팡 형

(3) 부엌+찻방 형

부엌+찻방 형은 1930년대와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 보이는 형으로서,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방과 부엌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배치되어 있고, 부엌과 찻방이 면해 있으며 고팡이 없는 형이다.

이 형은 부엌과 찻방의 위치에서 각 시대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30년대에는 찻방이 부엌 후면에 배치되어 부엌은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1950년대가 되면 부엌 전면에 방이 배치되거나 추가되어 부엌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찻방은 부엌의 측면에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주택에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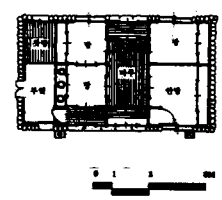
툇마루는 평면의 전, 후면에 시설되며, 1960년대가 되면 그 면적이 축소되어

40) 김홍식, 앞책, 124쪽. [그림 46] 바깥채의 평면구성 - 4칸집에서 인용.

나타나고 마루의 전, 후면에만 설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엌+찻방 형은 부엌+고팡+찻방 형이 변화 또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형이며, 부엌+고팡 형의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형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부엌+고팡+찻방 형에서 고팡이 사라지거나, 부엌+고팡 형에서 고팡 대신에 찻방이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엌+고팡 형과 부엌+찻방 형은, 그 나타나는 시기는 다르지만 실의 기능별 분화과정에서 보면, 두 형 모두 부엌+고팡+찻방 형의 다음 단계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형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엌+고팡 형과 부엌+찻방 형은 그 실의 조합에서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가사노동권의 형성이나 실의 기능별 구성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면 내에 고팡은 배치되고 찻방은 배치되지 않는 것과, 찻방은 배치되고 고팡은 배치되지 않는 것은 그 의미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팡만이 배치되는 것은 식량저장고인 수장공간의 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의미이며, 찻방만이 배치된다는 것은 식사공간의 확보를 보다 더 중요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주의식의 변화에 의한 주생활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30년대	30-5	삼도2동1179-5 김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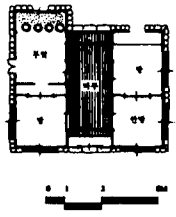
<그림 3-6> 부엌+찻방 형

(4) 부엌 단독형

부엌 단독형은 3칸형으로만 나타나며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형이다. 이 형은 안방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과 마주하여 배치됐으며,

고팡과 찻방이 없는 형이다.

부엌 단독형은 3칸형 중에서도 규모가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부엌은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며, 부엌전면에 작은방이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 후면에 설치되고 있다. 특히 1940년대 주택은 부엌아궁이에서 취사와 난방을 분리하며, 1950년대 주택에서는 취사와 난방을 한 아궁이에서 처리하고 있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40년대	40-20	일도1동1486-2 박옥채	

<그림 3-7> 부엌 단독형

3.1.2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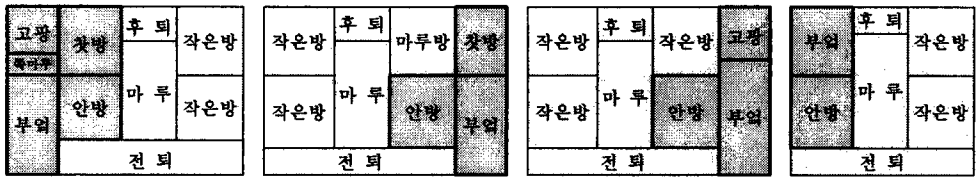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은 안방과 부엌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여 배치되는데 반해서,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은 안방과 부엌이 서로 면해 있는 형이다. 따라서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은 안방과 부엌이 마루를 기준으로 하여 좌측 또는 우측에 배치되고, 그 반대편에 작은방이 배치되는 형이다. 결과적으로 안방, 부엌, 고팡, 찻방이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며,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작은방이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는 형이다.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은 내부공간 구성에서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은 부엌, 고팡 그리고 찻방이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지만, 그 주체인 안방은 아직까지도 부엌과 떨어져 있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이 안방과 부엌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면구성이다.

반면에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은 안방이 부엌과 면하면서 안방, 부엌, 고팡 그리고 찻방이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며, 이러한 공간은 집안의 가장 또는 주부가 주로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공간 즉, 부모세대공간으로 구성된다.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작은방이 위치해 있으며, 이 공간은 자녀세대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공간 즉, 자녀세대공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은 마루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세대공간과 자녀세대공간으로 양분되는 세대별 공간분화가 일어난다.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은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에서 안방이 부엌으로 위치 이동하여 부모세대공간이 형성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의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은 주부 가사노동공간 즉, 부모세대공간이 조합되는 형태에 따라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안방+부엌+찻방 형, 안방+부엌+고팡 형 그리고 안방+부엌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안방+부엌+고팡+찻방 형은 □자 조합형, L자 조합형, I자 조합형으로 세분되며, 안방+부엌+찻방 형은 전면부엌형, 후면부엌형, 안방전면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림 3-8> 가사공간 조합형

1.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안방+부엌+고팡+찻방 형은 마루를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에 부모세대공간인 주부 가사노동공간이 배치되며, 그 반대편에는 자녀세대공간이 배치되는 형이다. 주부 가사노동공간은 안방, 부엌, 고팡, 찻방으로 이루어지며, 자녀세대공간은 작

은방으로 구성된다.

안방+부엌+고팡+찻방 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평면형이다. 이 형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평면면적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3칸형과 4칸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방+부엌+고팡+찻방 형은 안방, 부엌, 고팡, 찻방의 각 실이 조합된 형태에 따라 □자 조합형, L자 조합형, I자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 조합형

□자 조합형은 안방, 부엌, 고팡, 찻방이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여 주부 가사노동공간 즉, 부모세대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형은 주부 가사노동공간이 □자로 조합된 형을 말하며, 다른 평면형에서는 볼 수 없는 연대별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형으로서, 전체 평면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이 형은 4칸형으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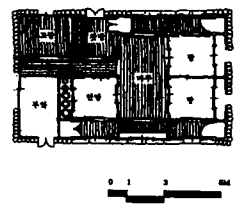
□자 조합형은 안방 옆에 부엌이 면해 있고, 찻방 옆에 고팡이 면해 있다. 안방 후면에는 찻방이 배치되고, 부엌 후면에는 고팡이 배치되기 때문에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이루는 실이 □자로 구성되어 있는 형이다. 이 형에서 안방은 항상 평면의 전면에 배치되고 찻방과 고팡은 평면의 후면에 배치된다.

부엌은 평면의 전면에 배치되거나 실과 실 중간에 배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 조합형은 부엌의 배치형태에 따라 전면부엌형과 속부엌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전면부엌형

전면부엌형은 □자 조합형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형으로서,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평면형이다. 이 형은 부엌이 평면의 전면에 배치되며, 부엌 후면에는 고팡이 배치된다. 안방 또한 평면의 전면에 배치되며, 안방 후면에는 찻방이 면해 있다.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의 동선은 주로 안방에서 찻방을 걸쳐서 고팡이나 부엌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부의 주된 가사노동이 일어난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 후면에 설치되며, 마루 정면에는 신발을 벗는 공간이 있다. 작은방은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며, 2개의 방이 면하여 배치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실 구성은 안방, 부엌, 고팡, 찻방, 작은방1, 2로 구성된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20년대	20-3	건입동1357-1, 2 고정기	

<그림 3-9> 전면부엌형

② 속부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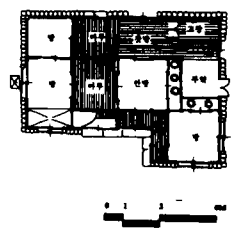
속부엌형은 □자 조합형 중에서 부엌이 실과 실 사이에 위치하는 형을 말한다. 부엌 전면에 작은방이 배치되기 때문에 부엌은 작은방과 고팡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부엌은 건물의 전면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측면에서만 인지된다.

속부엌형은 전면부엌형에서 작은방이 하나 추가되면서 나타나는 형이며, 이 작은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부엌이 속부엌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작은방이 부엌 앞에 배치되면서 전면부엌형에 비해 부엌 면적과 고팡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안방과 찻방의 면적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작은방은 돌출없이 부엌 전면에 배치되기도 하며, 돌출하여 배치되기도 한다. 돌출하여 배치되는 경우 작은방으로의 출입을 위해서 툇마루가 덧붙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은방으로 인해서 부모세대공간의 독립성이 전면부엌형에 비해서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부 가사노동공간의 구성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고 본다.

속부엌형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자 조합형의 전면부엌형에서 작은방 하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속부엌형이 전면부엌형에 비해서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40년대	40-6	이도1동1554 정태인	

<그림 3-10> 속부엌형

(2) L자 조합형

L자 조합형은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나타나며 안방, 부엌, 고팡, 찻방이 L자 모양으로 조합된 형태를 말한다. 부엌, 찻방, 고팡이 I자의 형태로 일렬로 배치되고, 안방이 부엌 옆에 배치되어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마루 반대편에는 작은방이 배치되어 자녀세대들이 생활하는 자녀세대공간이 배치된다.

안방 후면에는 작은방이 배치되기 때문에 마루에서 찻방으로 가는 공간이 복도화 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은방은 자녀세대가 이용하는 빈도보다 부모세대가 이용하는 빈도가 높게 조사됐으며, 따라서 이 작은방도 부모세대공간이나 주부 가사노동공간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찻방이 부엌과 고팡 사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고팡은 외부로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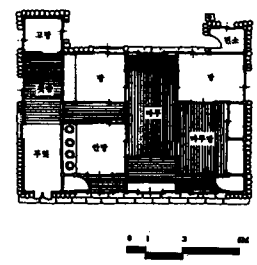
L자 조합형은 □자 조합형의 전면부엌형에서 찻방이 부엌 칸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형태라고 보며, 찻방이 있던 공간에 작은방이 배치되는 것은 자녀세대보다

는 부모세대의 기능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부엌의 위치에 따라 L자 조합형은 다시 전면부엌형과 속부엌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전면부엌형

전면부엌형은 L자 조합형 중에서 부엌이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는 형이며, 안방 또한 부엌 옆에 위치하여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는 형이다. 이 형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나타나며, 특히 4칸형으로 나타나며, 다른 평면형에 비해서 평면 면적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30년대	30-3	삼도2동1179-7 김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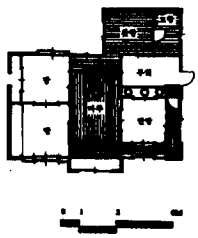
<그림 3-11> 전면부엌형

② 속부엌형

속부엌형은 3칸형으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전면부엌형에 비해 평면면적이 작게 구성되고 이로 인해 부엌이 안방 후면에 배치된 형태로 생각한다. 안방 후면에 부엌, 고팡, 찻방이 배치되며, 특히 고팡과 찻방은 평면 외부로 돌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찻방은 1950년대에는 부엌 후면에 위치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 마루 후면에 배치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가 되면 안방, 고팡, 부엌이 I자의 형태로 배열되고 찻방이 부엌 옆이나 마루 후면에 배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 후면에 배치되다가 1960년대가 되면 거의 사라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50년대	50-13	일도1동1486-2 김병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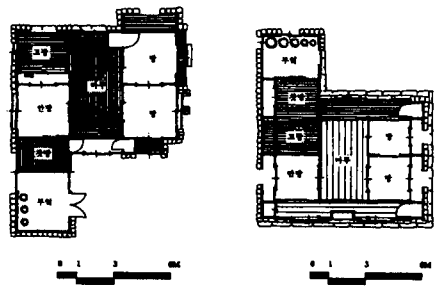
<그림 3-12> 속부엌형

(3) I자 조합형

I자 조합형은 3칸형으로 1940년대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평면이 ㄱ자형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안방, 고팡, 찻방, 부엌이 I자의 형태로 일렬로 배치되어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측에는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위주로 한 부모세대공간이 배치되고, 우측에는 작은방이 있는 자녀세대공간이 배치된다.

I자 조합형은 부엌이 평면 전면에 위치하는 형태와 후면에 위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부엌이 전면에 위치할 경우는 부엌, 찻방, 안방, 고팡의 순서로 배열되며, 후면에 위치할 경우는 안방, 고팡, 찻방, 부엌의 순서로 배열된다.

I자 조합형은 L자 조합형에서 안방이 부엌칸으로 이동하거나, 부엌칸이 안방칸으로 위치 이동하여 나타난 형태라고 보인다. 이 형은 단기간에만 나타나며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L자 조합형의 속부엌형으로 변하거나 흡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50년대	40-21	① 일도1동1353-1 김근보	 ① 전면부엌형 ② 후면부엌형
	40-22	② 건입동1332 김옥춘	

< 그림 3-13> I자 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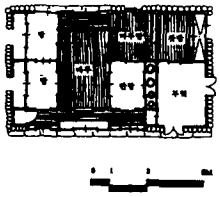
2. 안방+부엌+찻방 형

안방+부엌+찻방 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 중에서 고팡이 평면 내에 존재하지 않는 형으로 3칸형과 4칸형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 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며, 특히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다양한 평면형으로 세분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형은 마루를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에 주부 가사노동공간인 부모세대공간이 배치되고, 그 반대편에 작은방으로 구성된 자녀세대공간이 배치된다. 부엌의 위치에 따라 전면부엌형과 속부엌형으로 나눌 수 있고, 안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는 전면안방형이 있다.

(1) 전면부엌형

전면부엌형은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30년대를 제외한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형이다. 부엌 후면에 찻방이 위치하며, 안방은 부엌 옆에 위치한다. 안방은 넓은 한 칸으로 구성되거나, 후면에 방을 하나 더 배치하여 두 개의 방을 하나로 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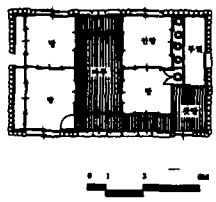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20년대	20-5	삼도2동1174-5 김중현	

<그림 3-14> 전면부엌형

(2) 후면부엌형

후면부엌형은 4칸형으로 나타나며,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는 형이다. 이 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는 찻방이 부엌 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엌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안방은 부엌 후면에 위치하게 되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방의 정면에는 작은방이 배치되며, 이 작은방은 부모가 사용하는 실이다.

1950년대에는 부엌공간이 평면의 후면에 위치하나 작은방이 부엌 앞에 배치되고 찻방은 부엌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형은 작은방이 부엌칸에 부속되어 배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건물정면에서 부엌으로 가는 공간이 좁은 통로와 같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40년대	40-19	이도1동1330-38 김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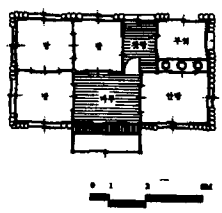
<그림 3-15> 후면부엌형

후면부엌형은 전면부엌형과 같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측 또는 우측에는 부모세대공간이 배치되고, 그 반대편에는 작은방으로 구성되는 자녀세대공간이 배치된다.

(3) 전면안방형

전면안방형은 3칸의 형태를 보이며,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안방, 고팡, 찻방이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며, 특히 안방이 부엌의 전면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루를 기준으로 부모세대공간과 자식세대공간이 마주하여 배치된다.

전면안방형에서 특이한 점은 찻방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1940년대는 찻방이 부엌과 마루에 걸쳐서 배치되다가 1960년대가 되면 완전히 마루 후면에 위치하게 되는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마루 공간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데, 1950년대까지는 마루를 통간으로 사용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 마루 후면에 찻방이 위치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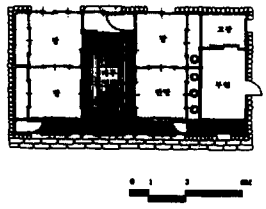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40년대	40-4	이도1동1554-3 장태훈	

<그림 3-16> 전면안방형

3. 안방+부엌+고팡 형

안방+부엌+고팡 형은 평면 내에 찻방이 설치되지 않는 형이며, 고팡이 부엌 후면에 위치한다.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는 형으로서 안방은 부엌 옆에 배치되다가 차후 부엌 전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60년대가 되면 안방, 부엌, 고팡이 일렬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안방, 부엌, 고팡이 주부 가사노동공간인 부모세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작은방이 위치하여 자녀세대공간을 이룬다. 고팡은 부엌 후면에 돌출되어 나타나며, 부엌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40년대	40-11	이도1동1539-6 김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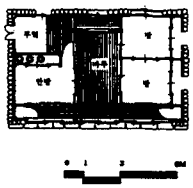
<그림 3-17> 안방+부엌+고팡 형

4. 안방+부엌 형

안방+부엌 형은 안방과 부엌만으로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며, 작은방이 마루 건너편에 배치되어 자녀세대가 생활한다. 이 형은 규모가 작은 3칸 형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며, 1930년대와 194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서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1960년대가 되면 아주 작게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툇마루의 축소 또는 소멸화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다가 현관이 도입되면서 그 현상은 가속화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안방+부엌 형은 전통적인 실 구성요소인 챗방과 고팡이 평면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견 외래요소가 평면구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면의 구성은 일자형의 겹집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붕의 형태 또한 일자형의 모임지붕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안방+부엌형은 평면면적의 협소나 기능적인 요구에 의해 챗방과 고팡과 같은 실을 두지 못하는 평면형으로써,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의 주택으로 생각한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30년대	30-6	삼도2동1167-16 구영모	

<그림 3-18> 안방+부엌 형

3.1.3 특수형

1. 별동부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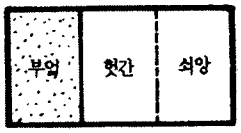
제주도 민가에서는 안거리 옆에 목거리를 두어 정지가 독립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화덕구조가 난방과 취사를 분리하였으므로 정짓간이 독립되는 것으로, 고구려 벽화에서처럼 정짓간이 완전히 독립되어 따로 있는 것이며, 식사공간까지 함께 마련된다. 민중들의 생활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과중한 외부노동과 가중되는 가사노동을 모두 주부가 담당해야 하므로 자연히 기능적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41]

이것은 1930년대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의 운동이 주로 위생적인 면에 치중했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의 개량으로 나타났다. 새생활운동은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외형적 형태로 진행되어 제주에서는 정짓간을 독립되게 마련했으며 뒷간에 판석을 깔고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구분되었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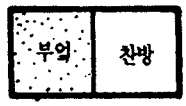
제주 민가의 별동 정지형은 상류층 민가와 일찍 도시성 취락을 형성한 제주성내, 화북, 조천, 애월 등의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민가형식이다.[43] 별동정지형 민가는 창건주가 지배층이거나 부농 계층에 속하는 신분이었고, 중·대형민가

41) 제주도, 앞책, 511쪽.
42) 김홍식, 앞책, 125쪽.
43) 김석윤, 앞책, 97쪽.

이며, 안거리의 간잡이는 공통적으로 3칸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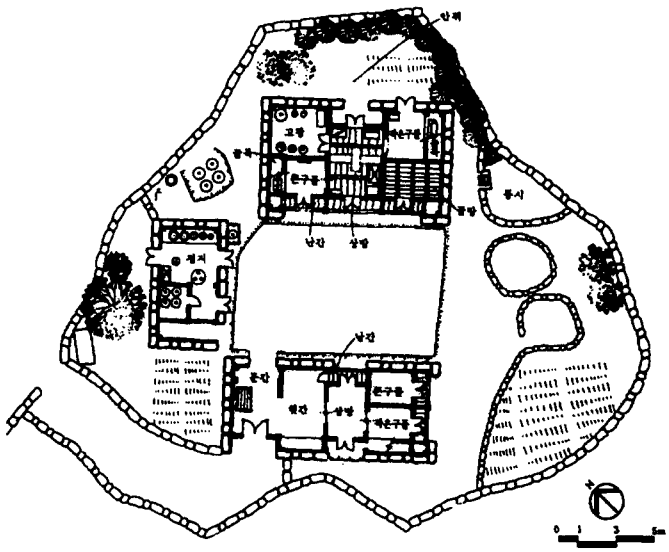


딴정지 - 3칸형[45]



딴정지 - 2칸형[46]

<그림 3-19> 제주도 초가의 딴정지 평면형태



<그림 3-20> 별동정지형 배치 -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909-1. 김여종[47]

제주도 민가에서 보이는 딴정지가 도시주택에서도 그 유형적 지속성을 보이고

44) 김석윤, 앞책, 105-106쪽에서 재정리.
45) 김홍식, 앞책, 127쪽. [그림 49]정지간의 공간구성-3칸집에서 인용.
46) 김홍식, 앞책, 125쪽. [그림 48]정지간의 공간구성-2칸집에서 인용.
47) 제주도, 앞책, 622쪽. <그림 52>에서 인용.

있다. 이것이 별동부엌형이며, 1940년대와 1960년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록 건물의 조사 채수는 연대별 1채에 불과하지만, 제주도 민가의 딴정지형이 도시주택에도 지속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적 증거라고 볼 때 도시주택의 별동부엌형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별동부엌형은 안채가 3칸형으로 나타나며, 부엌채는 2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한 2채중 1채(1940년대)는 부엌채가 소멸되어 정확한 크기와 평면구조를 알 수가 없으며, 다른 한 채인 용담2동 622-5번지 김관옥 가옥(1960년대)은 부엌채가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의 앞쪽으로는 부엌이 위치하고 부엌 후면에 작은방이 구성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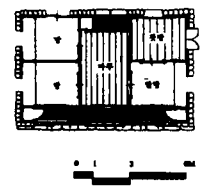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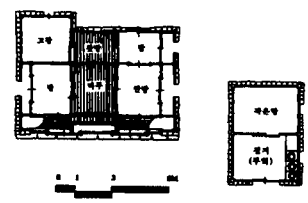
1940년대 별동부엌형의 안채는 고팡이 없으며, 찻방이 안방 후면에 배치된 형태를 하고 있다. 안방과 찻방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작은방과 마주하여 배치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모세대공간과 자녀세대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안채 평면 내에 고팡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부엌채에 고팡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엌채는 안방과 찻방 옆에 배치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안방과 찻방 그리고 부엌과 고팡이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엌이 별동으로 지어졌을 경우에도 부모세대공간 즉, 주부 가사노동공간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지어진 별동부엌형은 안채가 3칸형이며 찻방과 고팡이 배치된다. 찻방은 마루 후면에 위치하며, 고팡은 안방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부엌채는 고팡 후면 가까이에 배치되어, 부엌, 고팡, 찻방을 하나의 가사공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전통민가의 딴정지형에서 안거리(안채)가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주택에서 나타나는 별동정지형의 안거리도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이 극히 일부이지만 1940년대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도시주택의 별동정지형이 가지는 유형적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민가의 딴정지형이 가지는 공간적 기능성은 도시주택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도시주택의 별동부엌형은 그 실례가 많지는

않으나 하나의 유형으로서 지속된 형태라고 본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40년대	40-13	이도1동1529-21 김범용	
1960년대	60-23	용담2동622-5 김관옥	

<그림 3-21> 별동부엌형

2. 외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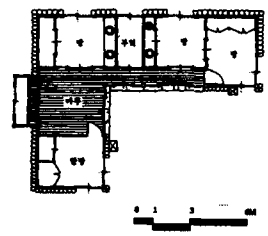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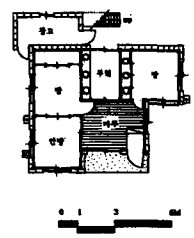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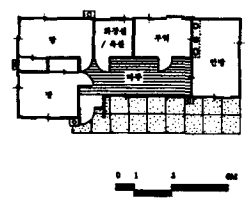
외래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평면의 구성이나 외형이 제주도 민가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형을 말한다. 1940년대 외래형 도시주택은 해방 후에 부족한 서민들의 주택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어진 형이며, 1960년대 외래형 도시주택은 정부의 장기융자금에 의해 서민들이 지은 집이다.

1940년대 외래형 주택은 경기도 지방의 ㄱ자형 집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홑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팡이나 챗방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마루가 평면의 한쪽으로 배치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지붕은 모임지붕이며 용마루가 완전히 ㄱ자로 꺾인 형태를 하고 있다.

1960년대 외래형 주택은 2가지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마루 후면에 부엌이 배치되며, 챗방과 고팡이 없는 형이다. 창고가 평면의 후면에 덧붙여지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평지붕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외벽마감을 블록으로 하고 있으며, 마루 전면에 테라스와 같은 기능의 외부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지붕모양은 모임지붕의 형태를 취하나, 지붕이 불규칙하게 꺽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벽돌로 지은 주택으로서 지붕은 박공지붕을 하고 있으며 ㄱ자로 꺽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평면 내에 화장실과 욕실이 하나의 실에 설치되며, 이 실은 부엌과 면해 있다. 조사한 주택이 서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주택은 평면설계를 하여 지은 주택으로 보인다.

건축연대	도면번호	주소	평면도
1940년대	40-1	이도1동1555-3 현재천	
1960년대	60-32	이도1동1254-32 송산실	
1960년대	60-6	이도1동1706-6 현경아	

<그림 3-22> 외래형

3.2 칸수에 의한 분류

3.2.1 칸수별 특성

도시주택은 일반적으로 3칸형과 4칸형으로 나눌 수 있다. 3칸형은 비교적 건물규모가 협소한 경우에 나타나며, 4칸형은 비교적 건물규모가 큰 경우에 나타난다. 도시주택에서 나타나는 3칸형과 4칸형은 그 분포빈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4칸형이 주를 이루면서 나타나며, 특히 1960년대가 되면 3칸형이 더 많은 분포빈도를 보이고 있다.

도시주택을 3칸형과 4칸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은 제주도 전통초가의 3칸형과 4칸형이 도시주택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주택을 3칸과 4칸으로 분류하는 것은 건물의 정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간혹 건물이 ㄱ자 형태로 구성되어 정면보다 측면이 칸수가 더 많더라도 정면을 기준으로 칸수를 분류하였다.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는 특수형 중 외래형은 제주도 민가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평면구성을 보이지 않고, 또한 평면칸수를 분류하기 힘들기 때문에 칸수 변화의 고찰에서 제외하였다.

1. 평면유형별 분포

(1) 3칸형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3칸형은 그 수는 많지 않으나 평면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가사공간 조합형이 주된 평면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에서 보면 3칸형은 전체적으로 가사공간 조합형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며, 특히 1960년대에는 가사공간 조합형이 가장 많은 분포 빈도를 보이고 있다.

3칸형에서 가사공간 조합형이 일반적인 평면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시주택에서 나타나는 평면유형이 가사공간 조합형에 특히 많은 분포빈도를 보이는 것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3칸형은 평면유형에서 가사공간 조합형이 일반적인 평면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특히 1960년대가 되

확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2> 연대별 3칸형의 평면유형 분석표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가사공간 분리형	-	2	3	1	6
가사공간 조합형	1	5	2	14	22
별동 부엌형	-	1	-	1	2
소계	1	8	5	16	30

(2) 4칸형

도시주택의 4칸형에서 보이는 평면유형별 분포는 3칸형에서와 같이 가사공간 조합형이 주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주택에서는 4칸집이 3칸집보다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칸형의 가사공간 조합형이 전체 도시주택 중에서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에서 보면 4칸집의 평면유형은 1920년대에 비슷한 분포를 보이다가 1930년대 이후로는 가사공간 조합형이 주된 평면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40년대는 그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연대별 4칸형의 평면유형 분석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가사공간 분리형	3	1	3	1	2	10
가사공간 근접형	4	5	24	14	10	57
소계	7	6	27	15	12	67

3칸집에서와 마찬가지로 4칸집에서도 가사공간 조합형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주부 가사노동의 변화에 따라 가사노동공간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방 또는 안방과 고팡이 부엌과 분리되어 있다가 부엌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의 세대별 분화를 형성하게 되고 주부의 가사동선 단축에 의한 가사노동 절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3칸과 4칸집에서 가사공간 조합형이 일반적인 평면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대적인 공간분화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챗방의 존재가 제주도 전통초가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사공간 근접형에서 보이는 안방과 부엌 그리고 고팡과 챗방을 위주로 한 가사공간 집중은 도시주택의 근대적인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연대별 분포

(1) 3칸형

도시주택의 3칸형은 전체조사 채수가 30채이며 이중에서 절반이상이 1960년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는 3칸형과 4칸형의 연도별 분포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에서 보면 3칸형은 1920년대는 나타나지 않으며 1930년대는 1채만이 나타나고 있다. 1940년대에는 전체 37채 중에서 8채(22%), 1950년대에는 전체 20채 중에서 5채(25%)로 전시대에 비해 비교적 많은 빈도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60년대가 되면 전체 31채 중에서 3칸형이 16채(52%)로서 4칸형의 12채(39%)보다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3-4> 연대별 칸수 분석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3칸형	0	1	8	5	16	30
4칸형	7	6	27	15	12	67
소계	7	7	35(2)	20	28(3)	97(5)

* ( )안은 외래형

3칸형은 1940년대 이후에 비교적 많은 분포빈도를 보이다가 1960년대가 되면 오히려 4칸형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칸수의 분포빈도는 3칸형이 도시주택에서 1940년대 이후에는 일반적인 평면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1960년대 이후로는 일반 서민주택의 주된 평면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칸수별 분포 변화는 주생활의 변화나 경제력의 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물면적이나 대지면적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족수나 가족 구성원이 변하고, 이것이 건물규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경제력에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넓은 대지를 확보하기 힘들었고 이에 따라 건물의 면적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60년대가 되면 평면을 4칸보다는 3칸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평면면적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것은 대지면적의 상대적인 축소도 있지만 경제력에 맞는 평면면적의 구성이나 실생활에 맞는 평면구성을 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어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4칸형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4칸집은 도시형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48], 분포지역은 도시화가 현저한 일주도로의 沿邊 및 지방행정 중심지로 갈수록 현저하다.[49]

이러한 경향은 도시주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주택의 4칸형은 3칸형보다 전체적인 수로는 2배 이상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4칸형이 도시주택에서 주를 이루며 나타나는 일반적인 평면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통초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4칸형이 다수를 점하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도시주택의 4칸형은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와 1930년대는 3

48) 김홍식, 앞책, 282쪽.
49) 제주도, 『제주도지 上』, 1982, 615쪽.

칸형보다 우위를 점하며 나타나고 있다. 1940년대에는 4칸형이 전체 37채 중에서 27채(73%)로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에는 전체 20채 중에서 15채(75%)로 전 시대보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에는 3칸형보다 다소 적은 빈도를 보이는데 전체 31채 중에서 12채(39%)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 3칸형이 4칸형보다 많은 빈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4칸형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주택의 일반적인 형태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평면면적 변화

(1) 3칸형

3칸형은 4칸형에 비해 비교적 평면면적이 작게 구성되며 15.67평 정도의 면적을 보이고 있다. <표 3-5>에서 보면 도시주택의 3칸형은 194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는 16.5평 정도의 평면면적을 보이다가 1960년대에는 14.77평으로 약 1.5평정도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주생활의 변화나 그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경제력에 따른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의 축소현상으로 볼 수 있다.

3칸형이 4칸형보다 평면면적이 작게 구성되는 것은 3칸형과 4칸형의 평면내실 구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칸형은 4칸형에 비해 방의 수가 적거나 평면면적의 제약으로 찻방이나 고팡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3칸집과 4칸집의 평면면적 차이는 실 면적의 차이보다는 실 구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표 3-5> 연대별 면적변화 분석표 단위 : ㎡ , ( )안은 坪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평균
3칸형	-	49.63 (15.04)	54.06 (16.38)	54.40 (16.49)	48.73 (14.77)	51.71 (15.67)
4칸형	62.35 (18.89)	61.69 (18.70)	64.46 (19.53)	69.57 (21.08)	64.80 (19.64)	64.57 (19.57)

(2) 4칸형

도시주택의 4칸형은 평면면적이 비교적 넓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4칸형은 대략 18.70~21.08평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19.57평 정도로 구성되고 있다. 이것은 3칸형의 15.67평에 비해 약 4평정도 큰 면적이다.

이러한 면적의 차이는 3칸형과 4칸형을 구성하는 각 실의 면적차이로 볼 수 있으나 실 구성에 의한 차이가 주원인으로 보인다. 이것은 4칸형이 3칸형보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실이 더 많이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평면구성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4칸형이 3칸형보다 방의 수가 많으며, 또한 3칸형에서는 고팡이나 챗방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표 3-5>에서 보면 도시주택의 4칸형은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평면면적이 늘어나며 1960년대가 되면 다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20년대에 62.35㎡(18.89坪)이었던 것이 1950년대에는 69.57㎡(21.08坪)으로 약 2평 정도의 면적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적의 증가현상은 안방의 면적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주생활의 변화에 의한 안방면적의 확대나 안방위치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3칸집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방을 제외한 각 실의 면적 특히 부엌과 마루의 면적이 줄어듦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3.2.2 칸수의 변화

도시주택은 기본적으로 3칸과 4칸으로 구성되며 나타난다. 이러한 3칸형과 4칸형의 존재는 제주도 전통초가의 안거리 평면에서 보이는 3칸형과 웃3 알4칸형과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시주택에서 4칸형은 지속적인 형태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으나 3칸형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서는 1채만이 조사되어 1940년대 이전에는 유형적 지속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3칸형은 194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부터 일반적인 평면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 전통초가의 3칸형과 4칸형

제주도의 전통초가는 7량집으로 전후좌우퇴를 돌리기 때문에 그 간사이의 크고 작음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칸 전후좌우퇴집으로서 완결형이고 그것을 어떻게 간잡이 하느냐 하는 정도의 변화만이 존재한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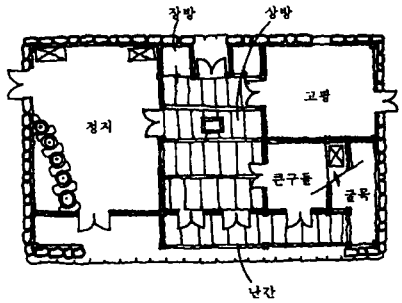
제주도 초가의 3칸형은 작은 구들이 있는 형과 없는 형으로 구분되고 다시 작은 구들이 있는 형은 한칸형, 정지내형, 중마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은구들이 없는 세칸집은 안에 구들이 하나만 배치되는 집으로, 평면구성은 가운데에 상방(마루)을 두고 왼쪽으로 정지가 있으며, 오른쪽으로 앞뒤에 큰구들과 고팡이 위치한다. 이런 유형의 집은 북제주군보다 남제주군에 더 많이 존재한다.

작은구들이 있는 세칸집에서 한칸형은 가운데에 상방을 두고 왼쪽으로 앞뒤에 큰구들과 고팡, 오른쪽으로 앞뒤에 정지와 작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집은 밀집한 도시형 촌락에 많으며 산북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정지내형은 작은구들이 없는 세칸집의 정지 안에 작은구들을 꾸민 집으로서 작은구들의 구조는 건물의 구조와 별개로 된 집이다. 이런 형은 지역에 관계없이 볼 수 있으며 특히 남제주군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중마루형은 정지내형과 같은 간살로 하되 작은구들을 상방에 붙이지 않고 거꾸로 상방 반대쪽에 붙여 상방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이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런 집은 지역에 따라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데, 특히 북제주 서부지역에서 자주 볼 수가 있다.[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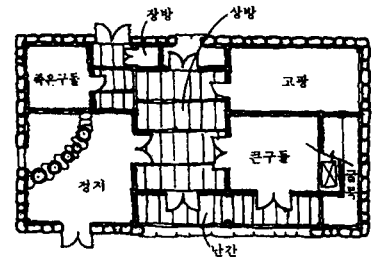
웃3 알4칸형은 중앙에 상방이 설치되고 그 우측(또는 좌측)에 챗방과 작은 구들이 전후로 놓이며 또 그것의 좌측에는 부엌이 길다랗게 만들어진다. 상방 좌측 또는 우측으로는 3칸집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난간과 구들, 고팡이 있고 방측면에 굴묵이 구성된다. 이 형은 3칸집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부엌공간이 분화하여 작은구들과 인접한 챗방이 더 있는 구조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52] 분포지역은 도시화가 현저한 일주도로의 행정 중심지로 갈수록 뚜렷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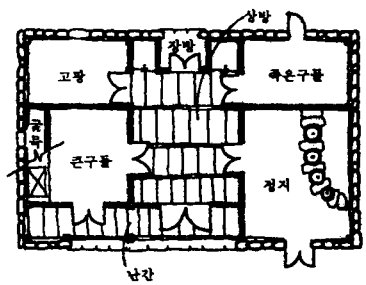
50) 제주도, 앞책, 452쪽.
51) 제주도, 앞책, 516-521쪽에서 재정리.
52)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대박논, 1992, 34-35쪽에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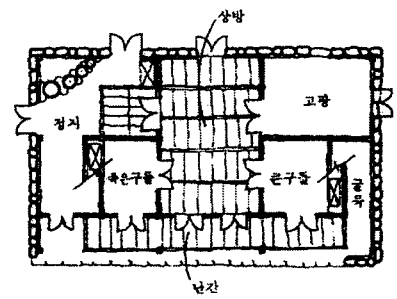
작은구들이 없는 3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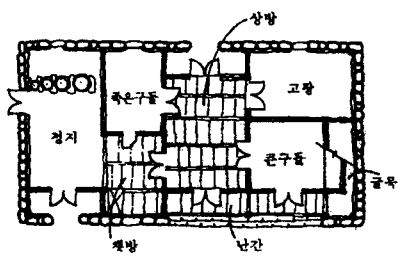
작은구들이 있는 3칸형-중마루형



작은구들이 있는 3칸형-한칸형



작은구들이 있는 3칸형-정지내형



4칸형(웃3알4칸형)

<그림 3-23> 제주도 전통초가의 안거리 평면유형[53]

53) 제주도, 앞책, 516-521쪽. 안거리 평면유형의 그림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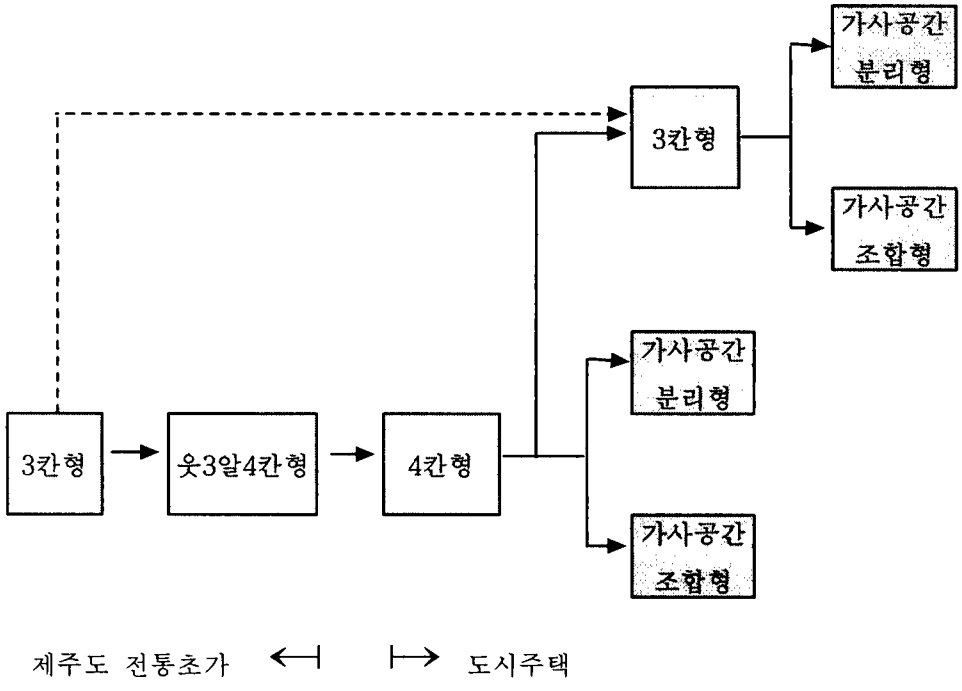
2. 도시주택의 3칸형과 4칸형

도시주택의 3칸형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3칸형이 그 시기까지 도시주택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도시주택에서 지속적인 평면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분포 빈도를 보이고 있는 4칸집은 도시주택의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전통초가에서 웃3알4칸형 집이 도시나 도시인근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는 것과 미루어 볼 때, 도시주택에서 4칸집이 3칸집보다 먼저 도시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초가의 3칸집과 3칸형 도시주택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전통초가에서 작은구들이 있는 3칸형 중 한칸형 또한 도시촌락에서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3칸집이 비록 1920년대나 1930년대에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3칸집이 4칸집과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시기에 도시주택의 한 유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1940년대 이전에 3칸집이 일부 존재했다고 해도 이것이 도시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을 것으로 여기며, 또한 3칸집이 1940년대 이후, 특히 1960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주택의 3칸집은 4칸집의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에서 3칸집은 1940년대 이전에는 일부 계층에서 소수로 지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1940년대 이후에 다소 많이 지어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960년대가 되면 일반적인 평면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칸집은 평면유형에서 가사공간 분리형과 가사공간 조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주택의 4칸집은 3칸집에 비해 연대별 분포가 많으며, 특히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4칸집은 도시주택의 일반적인 평면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주택에서 하나의 평면유형으로 3칸집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통초가의 웃3알4칸집이 도시주택의 4칸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4칸집은 평면유형에서 가사공간 분리형과 가사공간 조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4> 도시주택의 변천 추정도

3.3 실 위치변화와 공간분화

도시주택은 기본적으로 3칸과 4칸으로 구성되며 평면구성은 제주도 전통초가의 평면구성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제주도 전통초가는 일자형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완결형의 평면구조로 되어 있다. 전통초가는 마루를 기준으로 좌우로 큰구들과 부엌이 마주해 있고 큰구들 뒤쪽에 고팡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작은구들과 챗방(챗방)이 더해지면서 불완전형의 4칸형으로 평면이 발전해 나가게 된다. 즉 3칸형에서 4칸형으로 발전해가면서 3칸형의 부엌공간이 공간분화하여 4칸형의 챗방이 생기게 된다. 전통초

가의 4칸형은 상부는 3칸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하부는 4칸으로 평면이 구획되어 있는 웃3알4칸형의 구조로 되어 있다.

도시주택의 평면구성은 제주도 전통초가의 평면구성요소인 큰구들과 작은구들, 마루와 부엌 그리고 고팡과 챗방으로 이루어진다. 제주도 전통초가는 항상 마루를 기준으로 하여 좌우로 큰구들과 부엌이 마주하여 배치되고 큰구들 뒤에는 고팡이 배치된다. 4칸형에서는 상방(마루)과 부엌사이에 작은구들과 챗방(챗방)이 배치된다.

도시주택은 이러한 제주도 전통초가의 기본적인 평면구성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첫째로 고팡이 부엌의 후면으로 이동하는 고팡의 위치 변화이며, 둘째로 안방이 부엌과 상방(마루)사이로 이동하는 안방의 위치변화이다. 셋째로 고팡과 안방이 공간이동을 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주부 가사노동공간의 변화이며, 넷째로 이러한 고팡과 안방의 위치변화에 따른 내부공간의 세대별 공간분화이다.

3.3.1 고팡의 위치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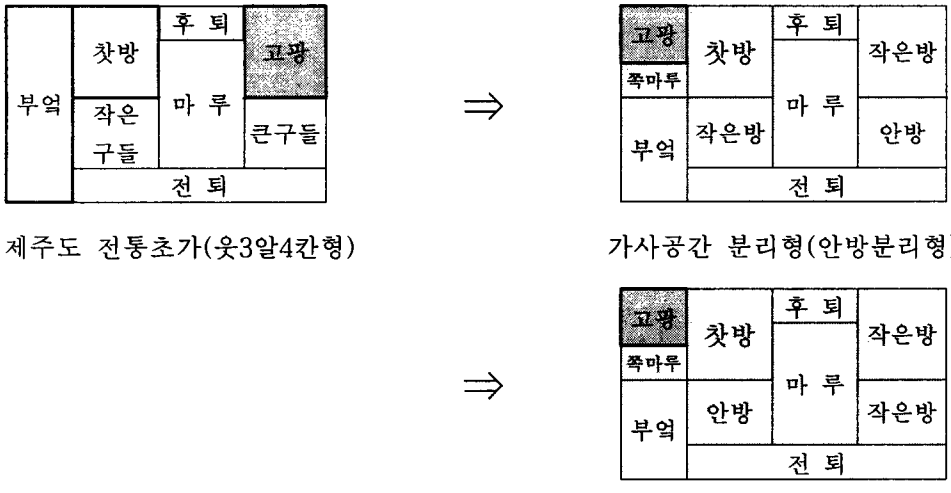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고팡은 큰구들 뒤에 접하여 배치되는데, 주로 된장과 간장 그리고 젓갈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곡물을 보관한다. 고팡은 수장공간으로 평면상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평면구성요소이다. 고팡이 기능상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지와 떨어져서 상방을 사이에 두고 큰구들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평면계획상 구조 등의 제약으로 분할식 방법에 의한 칸 나누기를 합리적으로 한 것과 취침시에 집안에서 가장 통제하기 쉬운 구들 옆에 붙여 놓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는 소농 등의 생활환경에서 식량의 비축이 절실함에서 온 근면절약정신이 유형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54]

도시주택에서 고팡은 용도나 기능은 변함이 없으나 평면 내에서 그 위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큰구들에 접하여 그 후면에 위치하던 고팡은 부엌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여 그 후면에 위치하거나 또는 부엌공간을 분할하여 위치하지 않고 부엌후면에 접하여 외부로 돌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고팡의 위치

54) 제주도, 앞책, 512쪽.

변화는 본 시기의 도시주택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제주도 전통초가의 일부 변형된 평면으로 조사된 사례도 있다.[55]

고팡이 부엌후면에 접하여 위치하게 됨으로써 원래 고팡이 위치했던 공간은 방이 만들어진다. 또한 고팡이 부엌후면에 접하여 위치하게 됨으로써 부엌의 면적을 분할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엌의 면적은 축소되는 현상을 보인다. 고팡의 출입은 부엌이나 찻방에서 하게 되며 찻방에서 출입하는 경우는 바닥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바로 출입할 수가 있지만 부엌의 바닥높이는 고팡바닥보다 보통 2자에서 3자정도 낮기 때문에 부엌에서 고팡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작은 쪽마루를 설치하여 댓돌을 놓고 출입한다.



제주도 전통초가(웃3알4칸형)

가사공간 분리형(안방분리형)

가사공간 조합형

<그림 3-25> 고팡의 위치변화

이러한 고팡의 위치 변화 원인은 부엌과 고팡의 기능적인 연관성에 기인하고 또한 하나의 건물 내에서 2세대가 거주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방의 수가 늘어나야 하는 필요성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팡은 부엌에 접하여 후면에

55) 제주도, 앞책, 592쪽.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153번지 고수일 가옥의 안거리 평면.

위치하고 부엌과 마루 사이에는 찻방이 위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엌과 찻방, 고팡이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여 살림을 하는 주부의 가사노동권이 하나의 공간으로 기능상 연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고팡이 부엌으로의 위치변화는 기능상의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부엌의 면적이 줄어들고 주부의 가사노동이 절감되며, 주부의 주된 실내 가사노동권이 하나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3.2 안방의 위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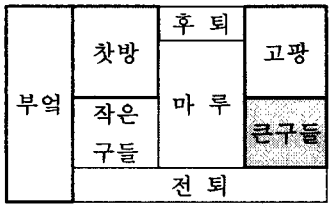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초가의 3칸집에서 구들이 하나일 때는 대소의 구별없이 구들이라 하고 둘 이상일때는 고팡과 접한 구들을 큰구들, 나머지를 작은구들이라 부른다. 큰구들과 작은구들의 크기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큰구들이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고팡에 접하고 집안의 가장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밖거리 구들에는 장성한 아들부부 또는 경제적 능력을 잃은 노부부 등이 산다.[56] 4칸집 또한 3칸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들의 호칭이 같으며 밖거리의 구들은 둘 이상이라 할지라도 큰 구들이라 부르지 않고 작은구들이라 부른다. 큰구들은 항상 마루를 기준으로 하여 정지(부엌)과 마주하여 배치하게 된다.

도시주택의 안방은 집안의 가장이 사용하는 방으로 전통초가의 큰구들과 같다. 고팡의 위치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전후로 하여 도시주택의 안방 또한 마루와 부엌사이로 위치 이동하게 된다. 도시주택의 안방이 위치하는 공간은 전통초가의 3칸형과 4칸형 평면에서 작은구들이 위치하는 공간이며 후면에 찻방이 면해 있다. 안방이 부엌옆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작은 방은 안방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안방은 부엌과 고팡 그리고 찻방과 같이 하나의 연속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마루를 사이에 두고 주부의 살림영역이 하나의 연속적인 공간군으로 형성되고 한쪽으로는 자식세대의 공간군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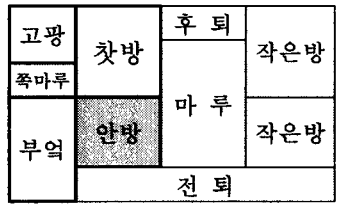
집안의 경제권을 가지는 가장이 기거하는 안방과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물건(식

56) 제주도, 앞책, 508쪽.

량 등)을 보관하는 고팡 그리고 식생활에 관련된 부엌과 챗방이 하나의 영역군을 이루는 것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 제주시 도시주택의 평면 특성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제주도 전통초가(웃3알4칸형)



가사공간 조합형

<그림 3-26> 안방의 위치변화

3.3.3 가사노동공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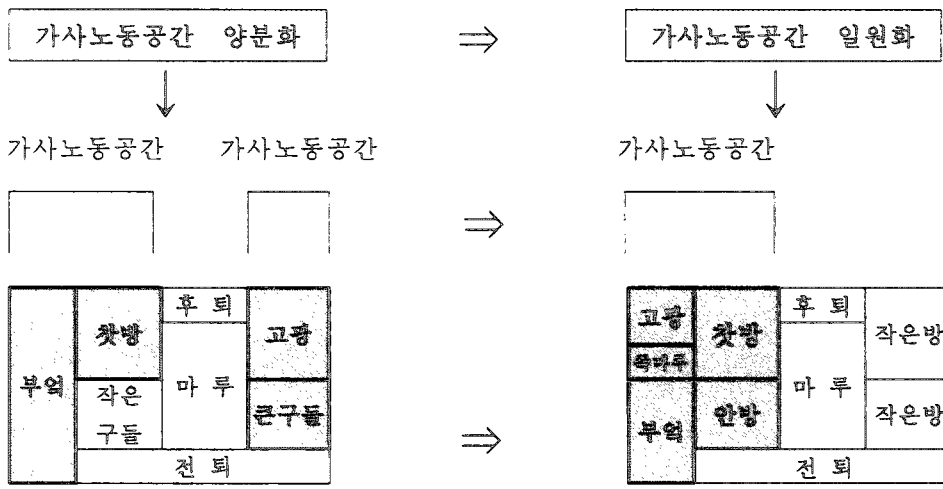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주부의 실내 가사노동공간은 두 개의 가사노동권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3칸형에서 마루를 중심으로 한쪽으로 큰구들과 고팡이 위치하고 반대편에 정지(부엌)가 위치하며, 4칸형에서는 부엌 옆에 챗방이 위치한다. 주부의 실내 가사노동 중 특히 식사에 관련한 행위는 고팡과 부엌, 챗방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챗방의 존재가 근대적 공간분화라는 점에서 제주도 민가를 높이 평가케 하는 중요한 요소[57]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식사행위와 관련된 고팡과 부엌, 챗방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양분되어 있다는 점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고팡의 부엌으로의 위치변화와 안방의 부엌 옆으로의 위치변화는 이러한 주부의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고려해 볼 때 상당히 기능적인 실배치라고 생각한다. 부엌과 고팡 그리고 안방(큰구들)과 챗방이 하나의 영역군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4개의 실은 상호 기능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주부는

57) 김정기 · 김홍식, "주택",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304쪽.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마루 건너편의 자식세대가 기거하는 방(작은방)쪽으로 가는 일이 없어지게 되어, 공간활용의 효율성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주도는 화산도로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작방식이 소농경영에 의하였으므로 富의 축적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58] 이에 따라 집안의 가장이나 남자는 물론 주부도 밭농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바다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과중한 외부노동과 가중되는 가사노동을 모두 주부가 담당해야 하므로 자연히 기능적 공간구성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그림 3-27> 가사노동공간의 변화

본 연구대상 도시주택 중에는 부엌과 고팡 그리고 안방과 챗방의 4개의 실이 하나의 영역군을 형성하지 않는 형태도 나타난다. 이것은 평면면적의 협소로 고

58) 김혜숙 · 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제주대논문집, 1991, 389쪽.

팡 또는 찻방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여 고팡의 기능을 찻방에 추가하여 고팡을 시설하지 않거나, 고팡은 설치하더라도 평면면적의 제한으로 찻방을 설치하지 않고 찻방의 기능을 마루에서 해결하는 양상도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방, 고팡, 부엌 또는 안방, 부엌, 찻방이 연접하여 하나의 영역군으로 이루어지는 실 구성배치는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적 공간구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3.3.4 세대별 공간분화

우리 나라의 전통가옥에서 상류주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공간분화가 현저하며 일반 민가에서는 이처럼 미분화되지는 않아도 성별에 따라 영역이 구분된다. 즉, 상류주택에서와 같이 사랑방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 비해 제주민가는 棟과 棟간에도, 한 棟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영역구분은 볼 수 없다. 단지 세대별 분화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며 세대간에도 위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특성은 생산방식과 관계된 어려운 생활여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유교의식의 약화로 남녀유별이나 내외의식 그리고 권위나 서열의식 등이 희박했던 데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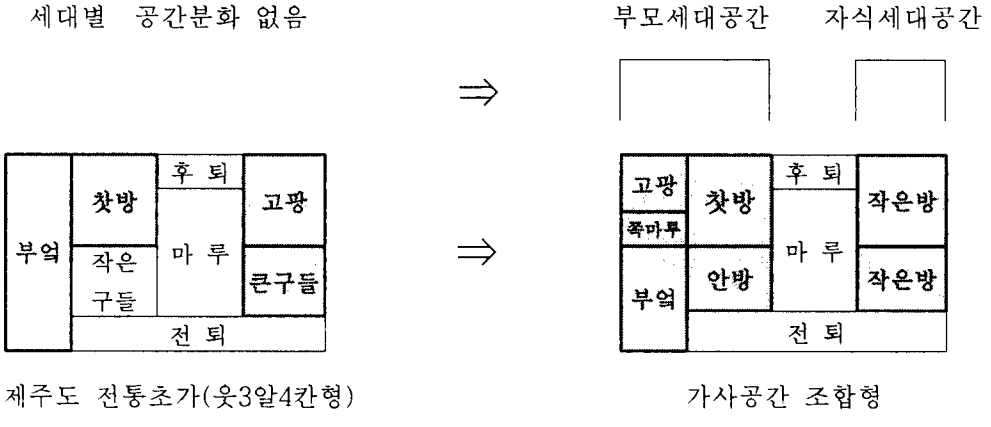
이에 반하여 도시주택에서는 대부분 한 棟내에서 2세대 또는 3세대가 거주하게 됨으로 인하여 한 건물 내에서 세대별 공간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고팡과 안방이 부엌 안 또는 부엌 옆으로 이동하여 생긴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주로 한 棟내에서 2세대 또는 3세대가 거주하는 도시주택은 3칸형이나 4칸형 모두 마루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공간분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마루를 중심으로 한쪽에 안방, 부엌, 고팡 그리고 찻방이 하나의 영역군으로 공간이 형성되면서 이 공간은 1세대(부모)의 공간 또는 집안의 경제력을 가진 세대의 부부가 기거하게 된다. 마루를 중심으로 다른 한쪽은 방 또는 작은방으로만 실이 구성되고 여기에는 2세대(자식 또는 자식부부)가 기거하면서 생활을 하는 자식세대의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부공간의 세대별 공간분화는 점진적

59) 김혜숙 · 김행신, 앞책, 393쪽.

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팡이 부엌으로 이동하여 주부의 가사노동 영역이 서로 근접하여 형성되고 다시 주부의 기거공간인 안방이 부엌 옆으로 이동하면서 세대별 공간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공간분화가 평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능적인 실 배치의 결과이기도 하며, 세대별 독립성(privacy)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챗방이라는 근대적인 실 구성요소를 넘어서 평면 자체에서도 근대적인 공간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28> 세대별 공간분화

3.4 시대별 평면유형의 변천

시대별 평면유형의 변화과정은 실 구성에 의한 평면유형과 칸수에 의한 평면유형을 동시에 고찰하기로 한다. 실 구성에 의한 평면유형과 칸수에 의한 평면유형을 개별적으로 고찰하면 시대별 변화과정 및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며, 또한 3칸형의 경우 시대별로 칸수의 지속적인 흐름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별로 실 구성에 의한 평면유형의 변화를 고찰하고 여기에 칸수의 변화까지를 포함시켜서 서술하고자 한다.

3.4.1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

1. 안방+고팡 분리형

안방+고팡 분리형은 1920년대, 194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1920년대는 4칸형의 평면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40년대와 1960년대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1920년대는 부엌의 위치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1920년대와 1940년대 주택은 작은방이 3개로 구성되나 1960년대 주택은 작은방이 2개로 구성되고 있다. 찻방과 고팡은 1940년대 주택에서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평면적의 협소로 취침실인 방의 수는 3개로 하는 대신 찻방과 고팡은 두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1940년대 주택은 부엌이 건물 후면에 돌출되어 나타나고 1960년대 주택에서는 부엌은 건물 후면에 현관은 정면에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툇마루는 1920년대 주택에서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다가 1940년대 주택에서는 건물의 정면에만 설치되고, 1960년대 주택에서는 툇마루가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안방 분리형

(1) 부엌+고팡+찻방 형

부엌+고팡+찻방 형은 1930년대를 제외하고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비교적 평면면적이 크게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안방은 평면의 전면에 설치되고 부엌 또한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 부엌전면에 작은방이 추가되면서 속부엌화되고 있다. 따라서 방의 수는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는 3개로 구성되다가 1960년대가 되면 4개로 구성되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며, 1960년대가 되면 툇마루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현관은 1960년대에만 건물의 정면에 돌출되어 설치되고 있으며, 고팡은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어 배치되고, 안방이 평면의 전면으로 돌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부엌+고팡 형

이 형은 1920년대와 1940년대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4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 내에 챗방이 구성되지 않는 대신 1920년대 주택에서는 제기방이 설치되고 1940년대 주택에서는 작은방이 설치되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비교적 넓게 배치되고 있다.

이 평면형은 1920년대와 40년대에만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평면형으로 생각한다. 챗방이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작은방으로 변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실 구성의 변화는 지리적 특수성이나 가족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주생활의 변화로 인한 실 면적 또는 수의 증가로 생각한다.

(3) 부엌+챗방 형

부엌+챗방 형은 1930대에 나타나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서 지속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형은 1930년대와 1960년대는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엌은 1920년대 주택에서는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다가 1950년대와 60년대가 되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고 있다. 1950년대 주택에서 부엌은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어 배치되고 있다. 방의 수는 1920년대와 60년대에는 4개로 구성되고 1950년대 주택에서는 평면적의 협소로 3개로 구성되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는데 1960년대가 되면 현관이 설치되면서 마루의 후면과 전면에만 설치되고 있다.

(4) 부엌 단독형

이 형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부엌은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1940년대 주택은 부엌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어 배치되고 있다.

1940년대에는 방이 3개로 구성되고 1950년대에는 작은방이 평면의 정면에 돌출형태로 추가 배치되어 4개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주택은 평면형태가 ㄱ자로 꺽이면서 구성되고 그로 인해 지붕의 형태 또한 ㄱ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3.4.2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

1.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1) □자 조합형

□자 조합형은 전체 평면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빈도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는 형이며, 전체적으로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형에 비해 평면면적이 넓게 구성되고 있다.

□자 조합형 중 전면부엌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형이며, 속부엌형은 1940년대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형이다. 돌출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돌출이 일어나는 주된 실은 고팡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면부엌형은 취침실인 방이 대부분 3개로 구성되고 작은방이 하나 더 추가되어 배치될 경우에는 덧붙이거나 찻방 공간의 뒤에 작은 방을 만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형은 연대별로 방의 수가 뚜렷하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평면구성의 형태 또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40년대에 작은방이 평면의 전면에 돌출되기도 하며, 1950년대에는 고팡이나 현관이 평면의 전, 후면에 돌출형식으로 배치되어 다소 불규칙한 평면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는데 시대별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관은 1930년대와 1950년대 주택에서 간혹 나타나고 있으며, 마루의 정면에만 설치되고 있다.

속부엌형은 전면부엌형에서 작은방이 부엌의 전면에 배치되면서 부엌이 속부엌화되는 평면형이기 때문에 방의 수가 전면부엌형에 비해 하나 정도 많다. 이 형은 전면부엌형의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속부엌형은 1940년대에는 작은방이 전면에 돌출되어 나타나고 1950년대에는 작은방은 돌출되지 않고 고팡 및 찻방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작은방과 고팡, 찻방이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서 돌출하면서 불규칙한 형태의 평면을 보이기도 한다.

(2) L자 조합형

L자 조합형은 1930년대에 나타나서 1960년대까지 지속되는 평면형이다. L자의 형태는 평면에서 좌, 우측에 배치되어 간살이 바뀌기도 한다. 이 형의 가장 큰 특징은 고팡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 배치되어 L자를 이룬다는 것이다.

L자 조합형은 전면부엌형과 속부엌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면부엌형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가 4칸형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속부엌형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면부엌형은 1940년대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50년대가 되면 고팡이 평면 후면의 양쪽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가 되면 찻방, 고팡, 작은방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어 ㄱ자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툇마루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되는데 특히, 후면에는 마루부분에만 배치되고 있다. 현관은 1950년대에만 나타나고 있다.

속부엌형은 안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여 부엌이 속부엌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의 수는 전면부엌형과 차이가 없이 3개로 구성된다. 이 형은 전면부엌형에서 변화된 평면형으로 볼 수 있으며, 찻방의 위치변화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찻방은 전면부엌형에서 부엌의 뒤에 배치되다가 1950년대에는 부엌과 마루사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며, 1960년대가 되면 마루 뒤편에 위치하는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1950년대에 비해 1960년대가 되면 작게 구성되거나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

(3) I자 조합형

I자 조합형은 L자 조합형의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형으로써 1940년대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평면형이고,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3칸형이면서도 평면면적이 넓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ㄱ자를 이루고 있다. 이 형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평면형태로 보이며, 차후에 이러한 평면형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형적 지속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형은 L자 조합형으로 흡수되거나 1950년대 이후의 L자 조합형의 변화과정에 편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안방+부엌+찻방 형

(1) 전면부엌형

이 형은 1930년대를 제외하고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형이다.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며 찻방이 부엌의 후면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면부엌형은 간혹 1950년대 주택에서 방이 3개로 구성되는 형태도 보이고 있으나,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방의 수가 4개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시대별로 뚜렷한 면적변화는 없으며,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되고 있다.

(2) 후면부엌형

후면부엌형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는 평면형이며, 시대별로 4칸형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방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4개로 구성되고 있으며, 1940년대와 1960년대 주택에서 안방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주택은 찻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며, 1950년대에는 작은방이 부엌

의 전면에 위치하고, 1960년대에는 부엌의 전면에 찻방이 배치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가 되면 부엌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되며, 시대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현관은 1960년대 주택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3) 전면안방형

전면안방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는 평면형으로써 1940년대는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면안방형은 전면 부엌형의 변형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찻방의 위치 변화과정에서 시대별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이전에는 찻방이 부엌의 뒤편에 위치하다가 1940년대가 되면 찻방은 부엌과 마루에 걸쳐서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960년대가 되면 찻방이 마루의 후면에 배치되어 마루의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찻방의 위치는 부엌의 후면이나 옆에 위치하다가 점차 마루의 후면으로 이동하여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3. 안방+부엌+고팡 형

안방+부엌+고팡 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평면으로써 1940년대에는 4칸형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3칸형으로 구성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4칸형에서 3칸형으로 변화되면서 평면면적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주택의 부엌은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 안방이 부엌의 전면에 배치되면서 속부엌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엌면적은 1940년대 보다 1960년대가 작은 면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마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찻방이 없기 때문에 마루에서 식사를 하며, 고팡은 1940년대에는 부엌의 후면에 배치되다가 1960년대가 되면 부엌의 후면에 돌출되어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의 평면형태는 ㄱ자로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1940년대에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비교적 넓게 배치되나 1960년대가 되면 평면면적의 협소로 마루의 전면과 후면에 작은 면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현관이 마루 전면에 배치되면서 전면 툇마루는 쪽마루 형식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안방+부엌 형

안방+부엌 형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평면면적이 작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전체적으로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방의 수는 전체가 3개로 구성되고 있으며, 찻방과 고팡이 없는 형태이다. 툇마루는 1950년대까지는 비교적 넓게 구성되고 있지만 1960년대가 되면 툇마루가 없고 현관이 설치되고 있다.

3.4.3 특수형

1. 별동정지형

별동정지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평면유형으로서 안채는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정지(부엌)건물은 정면1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형은 뚜렷한 변화과정을 보기는 힘들지만 찻방의 위치변화는 보이고 있다.

찻방은 1940년대에는 안방의 후면에 배치되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마루의 뒤쪽에 배치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평면형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방은 3개로 구성되고, 툇마루는 1960년대에는 마루의 전면에만 설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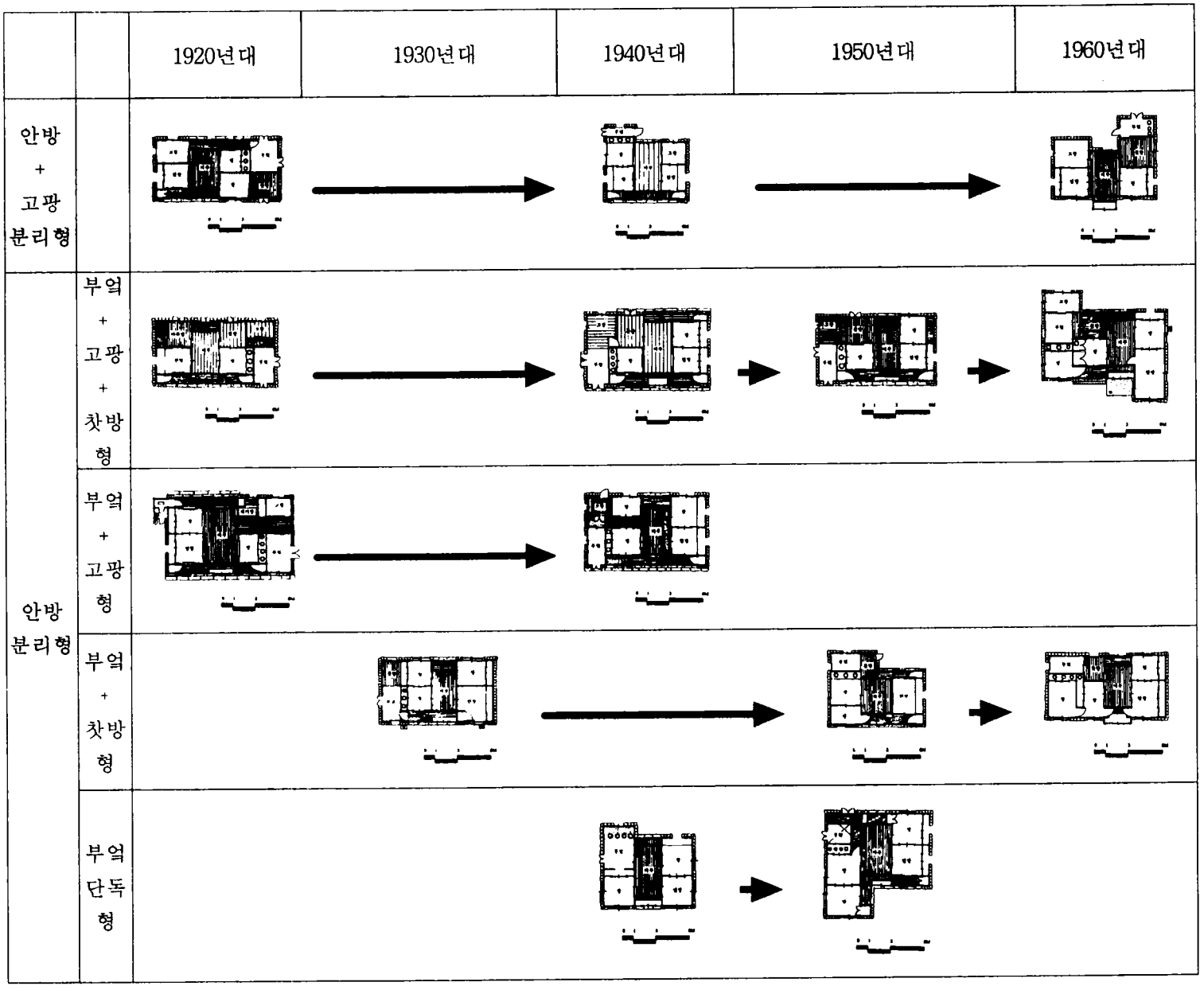
2. 외래형

외래형은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시대별로 유형적 지속성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외래형 1940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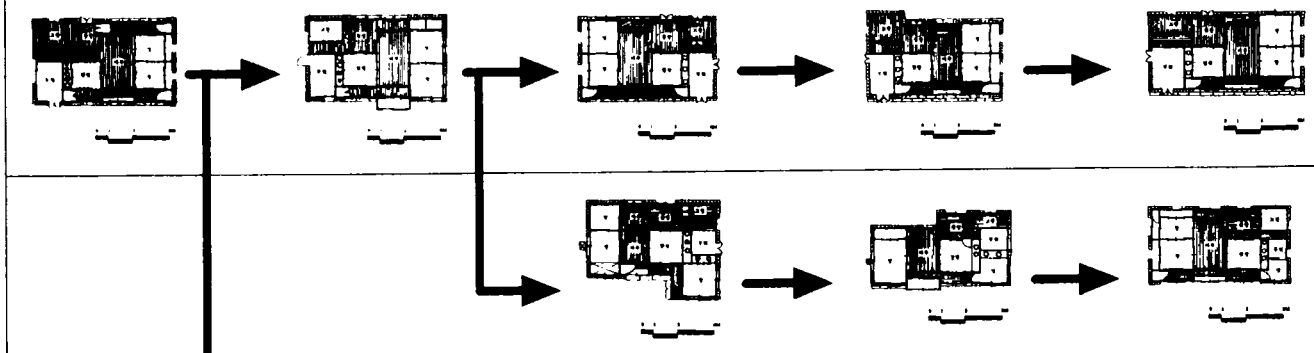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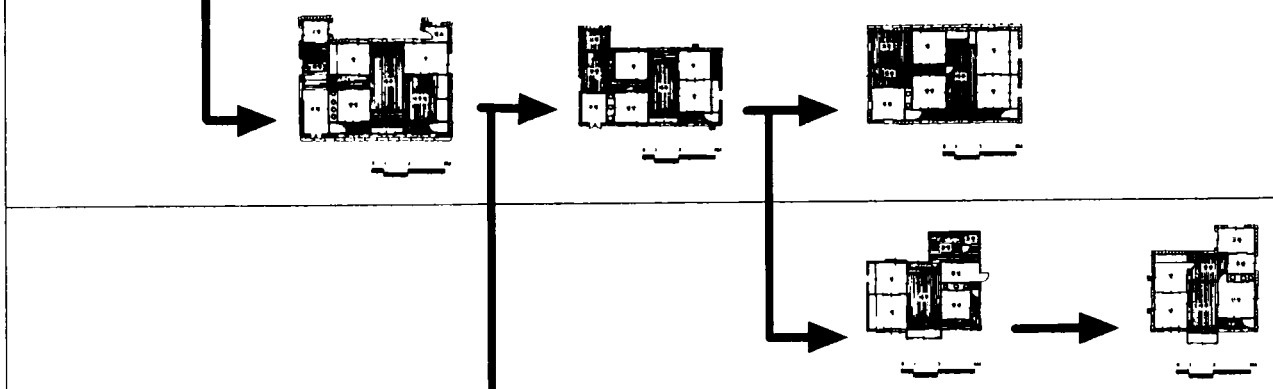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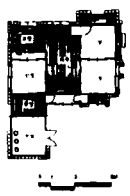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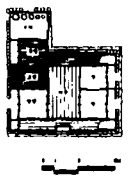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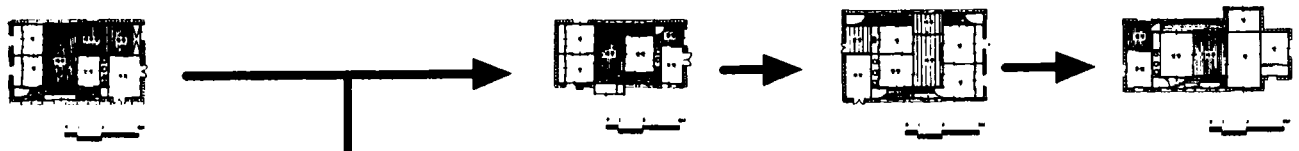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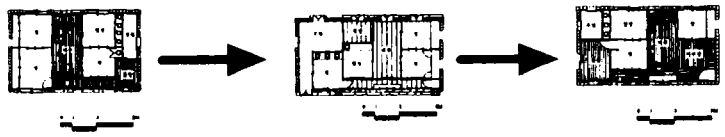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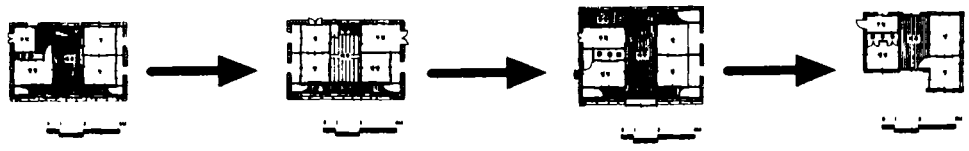
져서 도시주택의 다른 평면형의 변화·발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40년대 주택은 ㄱ자형 홑집이며, 1960년대는 서울 도시단독주택 평면형을 하고 있는 평면형과 벽돌조 주택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융자에 의해 지은 주택이며, 1960년대 벽돌조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지은 주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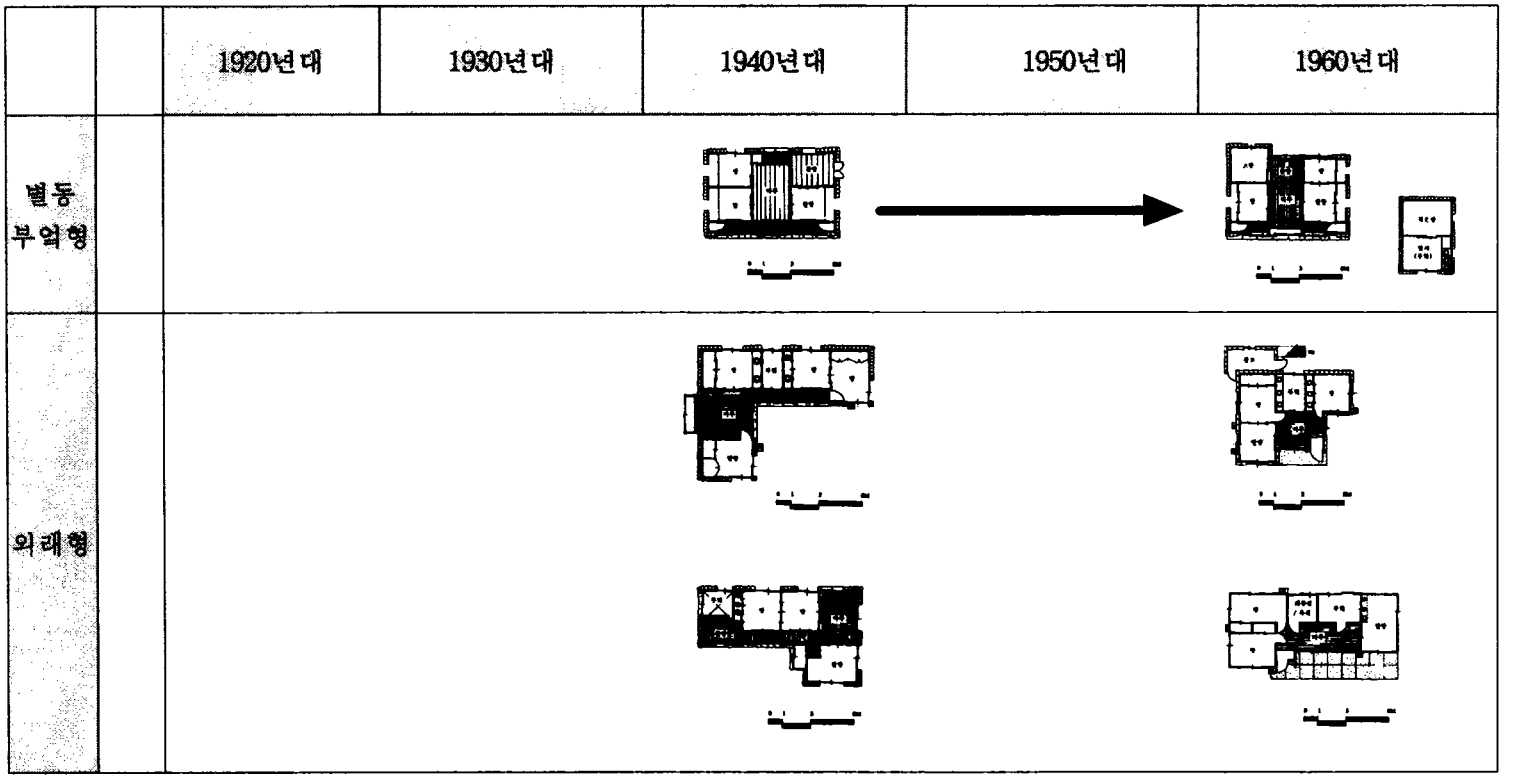
1960년대 주택에서 계단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옥상을 장독대나 건조장으로 이용하는 주택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계단의 출현은 1960년대 이후 시멘트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후에 2층 주택이 나타나면서 계단의 설치는 보편화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3-29> 도시주택의 평면계통도 - 가사공간 분리형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안방+부엌+고팡+찻방형	ㅁ자 조합형					
	L자 조합형					
	I자 조합형					
						
안방+부엌+찻방형	전면부엌형					
	후면부엌형					
	전면안방형					
안방+부엌+고팡형						
안방+부엌형						

<그림 3-30> 도시주택의 평면계통도 - 가사공간 조합형



<그림 3-31> 도시주택의 평면계통도 - 특수형

제4장 평면형태 분석

4.1 평면형태 분류

도시주택의 평면을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도시주택의 외형적 변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형적 평면변화가 각 시대별로 그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고,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도시주택의 한 특성으로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도시주택의 평면 외형 변화를 관찰함에 있어 그 기준은 제주도 전통초가의 一자형 겹집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도시주택의 평면구성이 제주도 전통초가의 평면구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 외형 또한 일자형의 연속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도시주택의 평면을 외형에 의하여 분류하면 크게 一자형, 一자+부분돌출 형, 一자+완전돌출 형으로 나눌 수 있다. 一자형은 돌출부가 전혀 없는 형태를 말하며, 부분 돌출형은 하나의 실이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을 말한다. 완전 돌출형은 하나 이상의 실이 완전히 돌출되거나 덧붙여진 형태를 말한다.

도시주택의 외형 분류는 안채(안거리)만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도시주택이 살림채 하나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안채로 하여 분류하였다. 도시주택의 평면은 기본적으로 겹집의 형태로 이루진 것으로 보이며, 고유의 전통적인 요소인 고팡과 챗방이 평면내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평면 형태가 겹집 이외의 형태로 이루어 졌거나, 전통요소를 보이지 않는 주택은 외형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즉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보이는 외래형은 외형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4.1.1 一자형

제주도의 민가는 한일자 모양의 겹집[60]에 속하며 남해안, 특히 남해도서지역의 민가와 평면구성 및 배치 상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해도서지역은

살림채인 안채만 발달하고 곁채는 단순한 경영시설인데 비해서 제주도에서는 안거리, 밖거리가 모두 살림채로서 구성되며 공간구분이 남녀가 아닌 세대별 구분이라는 점과 살림을 따로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한 유형이다. 또한 건물의 규모는 육지에 비해서 대단히 큰 반면 건물의 높이는 외부에서 볼 때 비교적 낮다.[61]

一자형은 도시주택의 안채 중에서 제주도 전통민가(초가)의 一자형의 평면을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유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20년대 도시주택의 평면 외형은 一자형을 고수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며, 돌출이 일어나더라도 고팡 부분에서만 작게 일어나고 있다.

一자형은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4칸형에서 一자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에서 보면 전체 97채 중에서 一자형은 42채(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형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一자형은 1920년대에서 1950년대 도시주택 중에서 거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一자형 도시주택의 지붕은 전체가 모임지붕이며, 그 형태는 꺽임이 없이 一자

---

60) 겹집 : 구조적으로 전후퇴와 3평주방식이 섞여서 결구되며, 간잡이방식도 복판에 대청을 두고 양쪽에 구들 등을 배치하되 간살이 홑으로 또는 겹으로 배열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기둥의 가로줄이 양통집이나 혹은 홑집과는 달리 한 줄로 놓이지 않고 복판에 오거나 혹은 보기둥 자리에 놓이거나 함에 따라, 간살이 홑으로 배치되다가 한쪽 끝에서 앞 뒤 2줄로 배치되기도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평면구성은 제주도 살림집에서 볼 수 있으며 조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삼남지방에도 많이 분포한다.

양통집 : 구조상으로 두줄백이집이라고도 하며(중부지방) 기둥을 3열로 배열하고 간살을 2줄로 배치한 집을 말하며 간살이 3겹으로 간잡이되는 사방집(세겹집)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이 겹집과 다른 점은 전후퇴를 제외하고 기둥을 정확히 세줄로 배치한다는 점이다. 분포지역은 함경도를 중심으로 태백산맥을 따라 남하하는 동해안지대와 안동지방 및 광주산맥을 따라 서쪽으로 옹진에서부터 서해안지대까지 점점이 남아 있으며 남해안지대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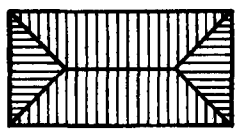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39-40쪽.

61) 김홍식, 앞책, 119쪽.

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一자형은 제주도 민가의 외형적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외형적 지속성은 도시 서민들의 의식속에 내재된 전통성 유지 및 계승의 외적표현으로 볼 수 있다. 도시주택의 외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一자형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감에 따라 외형적 지속성 또한 약화되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4-1> 연대별 평면 형태 분포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일자형	6	2	21	7	6	42 (43%)
일자+부분돌출 형	1	4	6	7	9	27 (28%)
일자+완전돌출 형	0	1	8	6	13	28 (29%)
합계	7	7	35(2)	20	28(3)	97(5) (100%)



<그림 4-1> 一자형의 지붕형태

4.1.2 一자 + 부분돌출 형

제주도 민가는 한일자 겹집을 기본으로 하여 분할식으로 평면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이 짓지 않으면 안된다.[62] 따라서 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돌출시키거나 덧붙이는 일이 없다.

도시주택에서 공간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돌출을 하거나 덧

62) 제주도, 「제주의 민속 Ⅳ - 주생활편」, 제주도청, 1996, 497쪽.

붙이는 것이며, 이것이 一자+부분돌출 형이다. 부분 돌출이나 덧붙임은 대략 반 칸을 전후로 하여 일어나며, 건물의 정면과 배면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부분 돌출이나 덧붙임이 일어나는 실은 주로 고팡과 찻방이며, 작은방과 부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1960년대에 간혹 안방이 부분 돌출하는 주택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안방과 마루는 돌출되지 않는 실로 판단한다.

1930년대 이후 현관의 덧붙임에 의해서 부분 돌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며, 특히 현관은 툇마루의 유무에 관계없이 마루 전면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현관이 언제부터 도시주택에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1930년을 전후하여 일부 도시주택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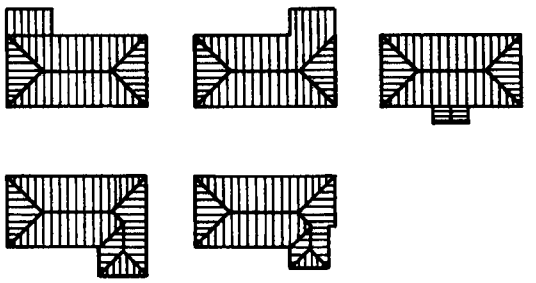
<표 4-1>에서 보면 1920년대에는 부분 돌출의 빈도가 미미할 정도로 작으나, 1930년대 이후로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에 一자형 주택은 6채에 비해 부분 돌출되는 주택이 9채로 나타나 부분 돌출되는 빈도가 一자형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 돌출은 1930년대 이후 완전 돌출과 함께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40년대 이후로 갈수록 완전 돌출의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一자+부분돌출 형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붕이 ㄱ자로 꺽이지 않고 一자형을 이룬다. 고팡이나 찻방 그리고 부엌이 부분 돌출되는 경우는 지붕을 돌출부분만 잇거나 눈썹지붕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방이 부분 돌출하는 경우에는 지붕이 ㄱ자로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꺽임지붕 형태는 완전 돌출형으로 이어져 꺽임지붕의 빈도가 늘어나는 양상으로 흐른다.

一자+부분돌출 형은 一자형에서 공간을 넓히려는 의지나 기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 형태로 생각한다. 一자+부분돌출 형은 一자+완전돌출 형의 전단계로 생각하며, 一자+부분돌출 형의 형태적 특성은 도시주택의 외형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一자+부분돌출 형은 기본적으로 一자형에 부분적으로 돌출하거나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一자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부분 돌출된 부분을 평면에서 제외하면 一자형과 거의 같은 평면 외형을 나타낸다. 이것은 일자형에 비해서는 다소 약화됐지만, 서민들의 의식 속에 평면 외형의 전시대적인 형태를 유지하

고자 하는 의지나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 一자+부분돌출 형의 지붕 형태

4.1.3 一자 + 완전돌출 형

一자+완전돌출 형은 면적이나 크기에 있어서 완전히 한 칸 이상 돌출되거나 덧붙여지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 형태는 一자+부분돌출 형의 다음 단계로 판단되는 형태이며 193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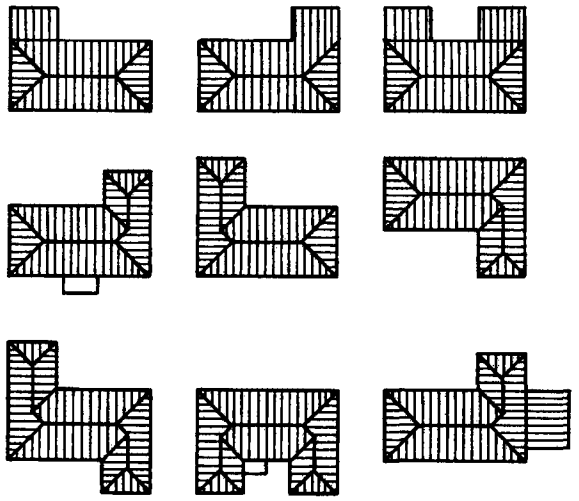
돌출하거나 덧붙여지는 실은 마루를 제외한 모든 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고팡과 찻방이 완전 돌출되어 나타나는 빈도가 많으며, 작은방, 부엌도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안방은 1950년대까지는 돌출된 형태가 없고 1960년대에도 간혹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4-1>에서 보면 一자+완전돌출 형은 1940년대 이후로는 그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가 되면 완전돌출의 빈도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지어진 도시주택의 절반정도가 완전돌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빈도는 一자형의 약 2배, 一자+부분 돌출의 약 1.5배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一자+완전돌출 형의 지붕은 모임지붕이며, 그 형태는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불규칙 ㄹ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붕형태는 一자+부분돌출 형의 지붕형태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一자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비해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고팡이나 찻방이 돌출된 경우는 주로 一자형 지붕에 돌출된

부분을 잇거나 눈썹지붕으로 하여 전체적으로는 一자형의 지붕을 유지하는 빈도가 높다. 그러나 부엌이나 방이 돌출된 경우는 주로 ㄱ자형이나 ㄷ자형 그리고 불규칙 ㄹ자형으로 지붕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많다.

一자+완전돌출 형에서는 부분 돌출과 완전 돌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예가 많다. 완전 돌출이 일어나는 면은 건물의 정면과 배면이며, 1960년대에는 건물 측면에서 완전 돌출이 일어나는 특수한 예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 一자+완전돌출 형의 지붕 형태

도시주택의 평면 외형의 흐름은 대략 194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전시대에는 一자형의 외형을 유지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40년대는 일종의 과도기로써 一자형의 빈도와 부분 돌출과 완전 돌출을 합한 빈도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 시대는 해방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의한 건축적 영향이 직, 간접적으로 건물의 외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며, 또한 도시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1950년대 이후는 一자형의 빈도가 줄어든 반면에 부분 돌출과 완전 돌출형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60년대에는 완전돌출 형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94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전시대는 一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40년대 과도기를 거쳐 1950년대 이후에는 돌출형이 주를 이루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시대별 형태 변화

4.2.1 1920년대

1. 一자형

1920년대 一자형 도시주택은 4칸형만이 조사됐으며, 안팎거리형으로 건물이 2채가 배치된 경우에도 밖거리(바깥채)는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과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一자형 도시주택의 전체 6채 중에서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과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각각 3채로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① 안방+고팡 분리형(4칸형),

② 안방 분리형 중 부엌+고팡+챗방 형(4칸형),

③ 안방 분리형 중 부엌+고팡 형(4칸형)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①번형은 제주도 민가의 웃3알4칸형의 평면구성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다. 이 평면형태는 제주도 민가의 전통적인 내부공간구성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도시주택의 평면구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주도 민가의 전통적 공간구성을 달리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주택은 제주도 전통민가가 변화 또는 발전되어 가는 하나의 유형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런 유형이 도시주택의 여러 가지 형태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은

①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② 안방+부엌+찻방 형(4칸형)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 조합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평면형태이며, 다른 평면형에 비해 가장 많은 건축빈도를 보이고 있다.

2. 一자+부분돌출 형

1920년대 一자+부분돌출 형은 4칸형 1채만이 조사되었다. 부분 돌출은 고팡 부분이 약간 돌출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돌출된 부분의 지붕은 원래의 지붕에 돌출된 부분만 이어서 덮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 중에서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자 조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4.2.2 1930년대

1. 一자형

1930년대 一자형 도시주택은 3칸형과 4칸형이 각각 1채로 조사되었으며, 안·밖거리형은 조사되지 않았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과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안방 분리형 중 부엌+찻방 형(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은

①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② 안방+부엌+찻방 형(3칸형)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一자+부분돌출 형

1930년대 一자+부분돌출 형은 4칸형으로 4채가 조사되었다. 부분돌출은 고팡에서만 일어나고, 현관의 덧붙임에 의해서 마루 앞 전퇴 정면에서 돌출이 일어나고 있다. 지붕은 전체적으로 一자형 모임지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팡의 돌출부는 지붕을 이어서 덮거나 눈썹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고, 현관지붕은 덧붙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①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②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L자 조합형(4칸형)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一자+완전돌출 형

1920년대에서는 완전돌출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930년대에도 4칸형 1채만이 조사되었다. 돌출은 고팡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변소가 덧붙여진 주택이다. 고팡이 돌출된 부분의 지붕은 눈썹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L자 조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4.2.3 1940년대

1. 一자형

1940년대는 평면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一자형 도시주택은 4칸형이 17채, 3칸형이 4채로 조사되었다. 안 · 밖거리형으로 건물이 2채가 배치된 경우에 안채는 모두 4칸형이고 바깥채는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 별동부엌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 · 부엌) 분리형은

① 안방+고팡 분리형(3칸형),

② 안방 분리형 중 부엌+고팡+찻방 형(4칸형),

③ 안방 분리형 중 부엌+고팡 형(4칸형)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 · 부엌) 조합형에서는

①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② 안방+부엌+찻방 형 중 전면부엌형(4칸형),

③ 안방+부엌+찻방 형 중 후면부엌형(4칸형),

④ 안방+부엌+고팡 형(4칸형),

⑤ 안방+부엌 형(3칸형)의 5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별동부엌형은 부엌이 별도로 독립되어 별채로 구성된 형태이며, 안방 뒤에 찻방이 배치되어 있는 형이 조사되었다. 이 경우에 고팡은 별동부엌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 一자+부분돌출 형

1940년대 一자+부분돌출 형은 3칸형이 1채, 4칸형이 5채가 조사되었다. 안·밖거리형으로 배치된 주택은 안·밖거리 모두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분돌출은 작은방, 고팡, 찻방, 벽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현관의 덧붙임에 의해서 마루 앞 전퇴 정면에서 돌출이 일어나고 있다.

작은방이 돌출되는 경우는 지붕이 ㄱ자형을 이루고, 고팡, 찻방이 돌출되는 경우는 지붕을 이어서 덮거나 눈썹지붕의 형태를 하며, 현관지붕은 덧단 형태를 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3칸형으로서, 안방 분리형 중 부엌 단독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에서는

①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② 안방+부엌+찻방 형 중 전면안방형(4칸형),

③ 안방+부엌+찻방 형 중 전면부엌형(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3. 一자+완전돌출 형

1940년대 一자+완전돌출 형의 주택은 3칸형이 3채, 4칸형이 5채로 조사되었다. 완전 돌출은 고팡, 부엌, 작은방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부분 돌출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많다. 완전 돌출된 부분에서 3채는 ㄱ자형의 지붕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5채에서는 눈썹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분 돌출된 부분에서는 지붕을 이어서 덮거나 눈썹지붕과 덧단 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안방+고팡 분리형이며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에서는

①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②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중 L자 조합형(4칸형),

③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중 I자 조합형(3칸형)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4.2.4 1950년대

1. 一자형

1950년대 一자형 도시주택은 7채가 조사되었으며 4칸형으로 구성되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고팡 분리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안방이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고 부엌후면에 고팡이 위치하고 있다. 챗방은 부엌과 마루사이에 위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에서는

①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②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중 L자 조합형(4칸형),

③ 안방+부엌+챗방 형 중 전면부엌형(4칸형)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一자+부분돌출 형

1950년대 一자+부분돌출 형은 3칸형이 2채, 4칸형이 5채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 돌출되는 면적이 다소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부분 돌출은 고팡, 챗방에서 일어나며, 현관의 덧붙임에 의해서 마루 앞 전퇴 정면에서 돌출이 일어나고 있다. 고팡, 챗방이 돌출되는 경우는 돌출부분만 지붕을 이어서 덮거나 눈썹지붕의 형태를 하고, 현관지붕은 덧단형태를 취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과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

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부엌 단독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은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3. 一자+완전돌출 형

1950년대는 3칸형이 3채, 4칸형이 3채가 조사되었으며, 개개의 건물이 다른 평면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완전 돌출은 고팡, 찻방, 작은방, 부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 돌출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2채는 완전 돌출 부분에서 지붕이 ㄱ자로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3채는 완전 돌출 부분에만 지붕을 눈썹지붕으로 덧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① 안방 분리형 중 부엌 단독형(3칸형),

② 안방 분리형 중 부엌+찻방 형(3칸형)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에서는

①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②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L자 조합형(4칸형),

③ 안방+부엌+고팡+찻방 형의 L자 조합형 중 속부엌형(3칸형)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4.2.5 1960년대

1. 一자형

1960년대는 1940년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대는 4칸형보다 3칸형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一자형 도시주택은 6채가 조사되었으며 모두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안방이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고 부엌과 마루사

이에 찻방이 위치하는 형이다. 이형에서 부엌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에서는

①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중 □자 조합형(4칸형),

③ 안방+부엌+찻방 형 중 후면부엌형(4칸형)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一자+부분돌출 형

1960년대 一자+부분돌출 형은 3칸형이 6채, 4칸형이 3채로 조사되었다. 부분돌출은 안방, 작은방, 고팡, 부엌에서 일어나고, 현관의 덧붙임에 의해서 마루 정면에서 돌출이 일어나고 있다. 툇마루가 덧붙는 형태도 보이는데 이것은 툇마루가 소멸되면서 덧붙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팡이 돌출되는 부분에서는 지붕을 이어서 덮거나 눈썹지붕의 형태를 하고, 안방, 작은방이 돌출되는 경우는 ㄱ자형으로 지붕이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관과 툇마루가 덧붙은 부분의 지붕은 덧단 형태의 지붕을 하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 별동부엌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4칸형으로 부엌+찻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은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며

① 안방+부엌+고팡+찻방 형의 L자 조합형 중 속부엌형,

② 안방+부엌+찻방 형 중 후면부엌형,

③ 안방+부엌 형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별동부엌형은 고팡이 안방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찻방이 마루후면에 위치하는 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별동부엌은 고팡과 가까이 위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一자+완전돌출 형

1960년대는 一자+완전돌출 형이 전시대에 비해 그 수가 많고, 평면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칸수를 나누기 어려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략 3칸형이 10채, 4칸형이 3채로 조사되었다. 돌출은 고팡, 찻방, 작은방, 안방, 부엌, 현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팡이 돌출되는 경우는 지붕이 ㄱ자형으로 꺽이지 않고 눈썹지붕이나 덧단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관의 경우에도 덧단지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챗방, 작은방, 안방, 부엌이 돌출되는 부분에서는 지붕이 ㄱ자형으로 꺽이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ㄷ자형이나 불완전ㄹ자형의 지붕형태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서 동시에 돌출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평면유형은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은

① 안방+고팡 분리형(3칸형),

② 안방 분리형 중 부엌+고팡+챗방 형(4칸형)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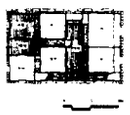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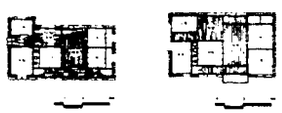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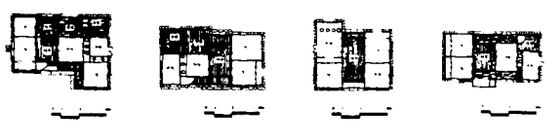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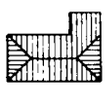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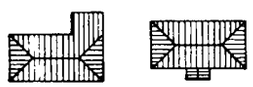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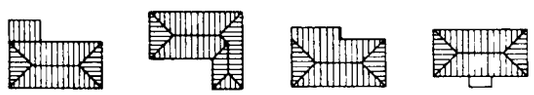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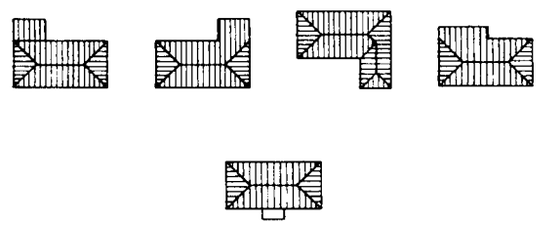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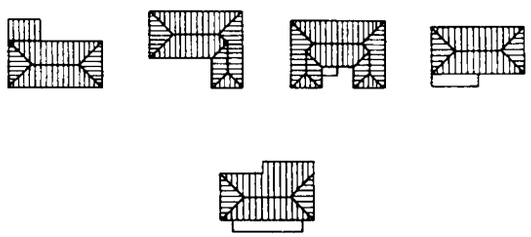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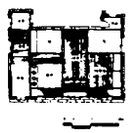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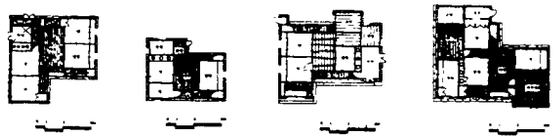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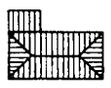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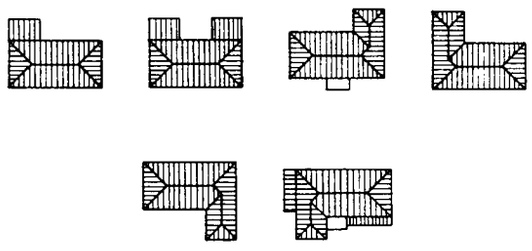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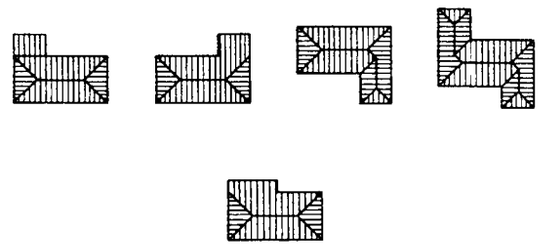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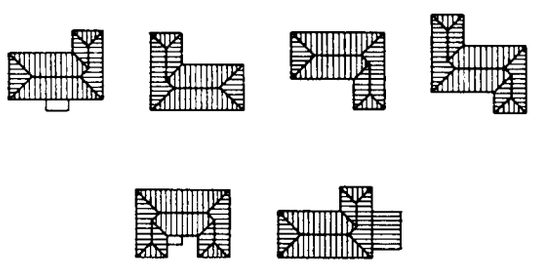
① 안방+부엌+고팡+챗방 형의 □자 조합형 중 속부엌형(4칸형),

② 안방+부엌+고팡+챗방 형의 L자 조합형 중 속부엌형(3칸형),

③ 안방+부엌+챗방 형 중 전면부엌형(4칸형),

④ 안방+부엌+챗방 형 중 전면안방형(3칸형),

⑤ 안방+부엌+고팡 형(3칸형)의 5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형 \ 연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一자형 (전체: 42채)	평면도					
	대표적 지붕 형태					
	돌출실	없음(건물수:6)	없음 (건물수:2)	없음 (건물수:21)	없음 (건물수:7)	없음 (건물수:6)
一자 + 부분 돌출형 (전체: 27채)	평면도					
	대표적 지붕 형태					
	돌출실	고팡(건물수:1)	고팡, 현관 (건물수:4)	작은방, 고팡, 찻방, 부엌, 현관 (건물수:6)	작은방, 고팡, 찻방, 현관 (건물수:7)	안방, 작은방, 고팡, 찻방, 부엌, 현관 (건물수:9)
一자 + 완전 돌출형 (전체: 28채)	평면도					
	대표적 지붕 형태					
	돌출실		고팡 (건물수:1)	작은방, 고팡, 부엌 (건물수:8)	작은방, 부엌, 고팡, 찻방, 현관 (건물수:6)	작은방, 부엌, 고팡, 찻방, 사무실 (건물수:13)

<그림 4-4> 연대별 평면 및 지붕형태

4.3 각 실의 면적 변화

도시주택의 시대별 실 면적의 변화는 안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했다. 안채는 마루를 기준으로 안방, 부엌, 고팡, 챗방, 작은방 등으로 구성되며, 간혹 마루방이 배치되기도 한다. 이중에서 안채의 가장 중요한 실 구성요소이며 제주도 전통초가의 3칸형과 4칸형을 이루는 실 구성요소인 안방, 마루, 부엌, 고팡, 챗방을 기준으로 했다.

도시주택에서 평면형은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것은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주택에서 3칸형과 4칸형의 평면 구성요소 중에서 제주도 전통초가의 독자적인 평면구성요소인 고팡과 챗방의 존재는 196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시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주도 전통초가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도시주택은 전통초가의 지속적인 요소와 변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실면적 변화는 제주도 전통초가 평면구성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고팡과 챗방 그리고 주요실인 안방과 마루 그리고 부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4.3.1 안방

도시주택에서 안방은 부부의 침실로서 집안의 가장이 기거하는 실이다.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안거리의 큰구들이 도시주택의 안방과 그 의미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주택에서도 안방을 큰구들로서 명명하는 예가 많았으며, 안·밖거리형 배치를 보이는 주택에서도 대부분 안거리(안채)에 있는 큰구들을 안방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큰구들과 안방은 그 의미와 기능이 서로 거의 유사하나 시대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서 명칭에 구분을 주었다.

도시주택에서 안방의 면적은 벽장의 면적을 합한 것이며 시대별로 그 변화를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다. <표 4-2> 연대별 실면적 분석표를 보면 안방의 면적은

평균 8.48㎡(2.57坪)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에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제외하고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1920년대의 안방의 면적은 7.36㎡(2.23坪)에서 1960년대에는 9.20㎡(2.79坪)으로 약 1.84㎡(0.56坪)이 증가했다.

<표 4-2> 연대별 실 면적 분석표 단위 : ㎡, ( )안은 坪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평 균
안 방	7.36 (2.23)	8.77 (2.66)	8.76 (2.65)	8.33 (2.52)	9.20 (2.79)	8.48 (2.57)
마 루	11.50 (3.48)	11.41 (3.46)	11.01 (3.34)	9.56 (2.90)	9.68 (2.93)	10.63 (3.22)
부 엌	9.03 (2.74)	7.84 (2.38)	7.44 (2.25)	7.07 (2.14)	5.95 (1.80)	7.47 (2.26)
찻 방	6.64 (2.01)	6.15 (1.86)	6.40 (1.94)	6.03 (1.83)	5.75 (1.74)	6.19 (1.88)
고 팡	4.64 (1.41)	5.08 (1.54)	4.85 (1.47)	4.46 (1.35)	4.79 (1.45)	4.76 (1.44)

안방의 면적이 시대별로 지속적 증가를 보이는 것은 안방을 사용하는 부부의 실 면적 확대욕구가 강하게 일어났다고 보이며, 이러한 것은 안방이 부엌 옆으로 이동하여 세대별 공간분화가 일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다른 실, 특히 마루와 부엌의 면적 감소에 따른 안방면적으로의 면적 흡수나 타실의 면적감소에 따른 안방 면적의 상대적인 면적증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실에 비해서 안방의 면적변화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도시주택의 평면구성의 변화요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것은 도시주택의 평면변화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4.3.2 마루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상방의 기능은 조상에의 제사, 가족의 단란, 여름철의 취침, 접객, 식사 등의 다양한 용도가 있으며 여기에서 부엌, 침실, 고팡 등으로 직접 연결되므로 민가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63] 도시주택의 마루는 제주도 전통초가의 상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한 칸 전체를 통칸으로 사용하며, 간혹 찻방이 마루의 뒤편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찻방은 식사를 할 때는 식사공간으로 쓰이지만, 그 이외에는 마루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4-2>를 보면 마루의 면적은 평균 10.63㎡(3.22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60년대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1920년대 11.50㎡(3.48坪)이던 마루의 면적은 1960년대는 9.68㎡(2.93坪)으로 약 1.82㎡(0.55坪)가 줄어들었다.

전통민가(초가)에서 상방의 넓이는 평균 3.3평으로 다른 방에 비해 큰 편이다. 상방은 제례 때 제관들이 상방의 큰구들 문 반대쪽에 뒤로 한 사람이 다닐 정도로 떨어져 서서 절을 할 수 있도록 그 크기가 정해져 8-9尺(2.4-2.7m)정도가 최소의 폭이 되는 듯하다.[64] 도시주택의 마루 면적은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는 전통민가의 상방 면적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1950년대 이후로는 약 2.9평으로 전통민가의 3.3평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루는 부엌과 함께 도시주택에서 면적감소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마루 면적을 크게 하기보다는 안방이나 작은방과 같은 침실을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마루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3.3 부엌

도시주택에서 부엌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면적이 점차

---

63)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27권112호, 1983. 6, 29쪽.

64)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한대박논, 1991, 146쪽.

작아지는 면적 감소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난방방식과 연료의 변화이다.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정지(부엌)가 차지하는 면적은 2칸집에서 1/2, 3칸집에서 1/3, 4칸형에서 1/4이 일반적이다.[65]

도시주택에서 부엌의 면적은 이러한 전통적인 부엌의 면적에 변화를 보인다. 즉 시대가 흐르면서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급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히 1960년대가 되면 확연히 드러난다. <표 4-2>를 보면 1920년대에 부엌의 면적은 9.03㎡(2.74坪)에서 1960년대에는 5.95㎡(1.80坪)로 약 1평정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실 즉, 마루, 찻방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면적감소이다.

도시주택에서 부엌의 면적이 감소하는 요인은 우선 난방방식의 변화에 따른 부엌의 구조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제주도 전통초가의 정지(부엌)에서는 전통적으로 취사와 난방을 분리하여 서로 딴 아궁이를 가지고 있다. 즉 취사용 아궁이는 난방에 관계없이 한쪽 벽 특히 외부에 면하는 벽에 아궁이를 설치하여 여기에 솥을 걸고 불을 땐다. 따라서 자연히 불의 열기는 취사에만 사용되고 난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난방용 아궁이는 굴묵이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취사와는 별도로 난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주택의 부엌 아궁이는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한다. 간혹 아궁이가 취사와 난방용으로 분리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극소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취사와 난방은 동시에 부엌과 면한 방의 벽장하부에서 이루어진다. 즉 부엌과 안방 또는 작은방은 벽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면해 있는데, 이 벽장의 상부는 방에서 수장공간으로 이용되고 하부는 부엌에서 아궁이로 이용된다. 따라서 불때기에 필요한 공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엌의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부엌의 면적이 전통초가에 비해 작게 구성되었다는 것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한 아궁이에서 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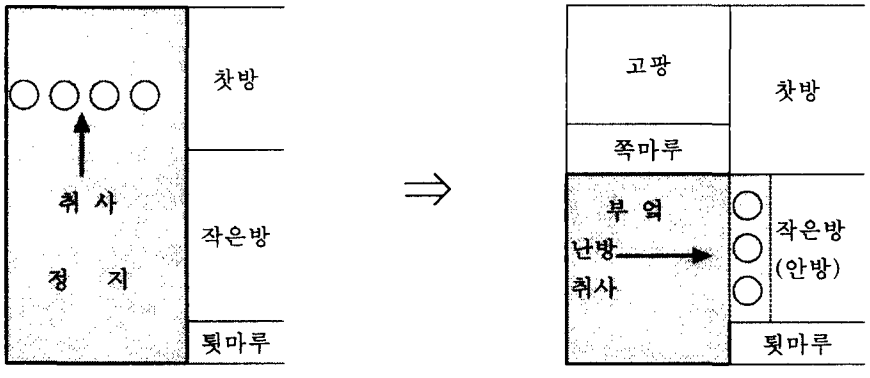
도시주택의 부엌면적 감소는 고팡의 부엌 내 이동과 부분적으로 찻방의 부엌 내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건물정면에서 볼 때 부엌의 폭보다

---

65) 제주도건축사회, 「제주건축 제2집 -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1992, 29쪽.

는 깊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찻방에서 부엌이나 부엌에서 고팡을 원활하게 연결시키기 위해 쪽마루를 설치하는데, 이로 인해 부엌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고팡이 외부로 돌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료의 변화에 따라 연료의 점유면적이나 작업 소요공간의 축소가 가능해졌으며 이것은 부엌 면적의 축소를 가져왔다. 도시주택 초기에는 농업 부산물이나 장작을 주연료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나무의 채취나 장작의 구입이 용이치 못하게 된다. 더욱이 195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와 산림자원의 고갈은 특히 도시에서 연료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땔감으로서 연탄이 제안되었다.[66] 이후 도시주택에서 취사 및 난방재료는 주로 연탄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불때기에 필요한 작업공간이 점차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부엌공간이 차츰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림 4-5> 부엌의 구조 변화

4.3.4 찻방

찻방은 주로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서 제주도 전통초가의 찻방의 기능과 거의

66)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59쪽.

같다. 도시주택에서 찻방은 식사를 하는 공간인 동시에 유사시 실내 작업공간의 역할도 담당한다. 도시주택에서 찻방의 존재는 고팡의 존재와 더불어 전통요소의 계승을 판단하는 제1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제주도 전통초가의 근대적 공간분화가 도시주택에서도 그대로 계승,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주택에서 찻방은 항상 부엌과 면하거나 근접해 있으며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해석할 수 있다.

찻방의 면적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소폭이지만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표 4-2> 연대별 실면적 분석표를 보면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찻방의 면적은 1940년대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920년대에 6.64㎡(2.01坪)에서 1960년대에 5.75㎡(1.74坪)로 0.89㎡(0.27坪)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찻방은 다른 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의 감소는 크지 않다. 이것은 식사공간인 찻방을 일정면적으로 항상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찻방 공간의 기능적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주택에서 찻방의 면적에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부엌의 축소와도 연관성이 깊다. 제주도 민가에서 부엌은 그 주요기능이 취사, 식사, 실내 작업장, 건조장, 수장공간으로 다채롭게 이용[67]된다. 도시주택에서 부엌은 면적의 축소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취사와 식사에 관련된 행위와 일부 식기류의 수장만을 하게 된다.

반면에 찻방의 기능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전통민가에서 찻방은 주로 식사위주의 공간인데 반해 도시주택의 찻방은 식사공간 외에 주부의 실내 작업장이나 수장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가 되면서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주택에서는 부엌의 기능이 일부 찻방에서 수행됨으로 인해 찻방의 면적은 시기가 내려올수록 조금씩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67) 조성기, 앞책, 29쪽.

4.3.5 고팡

도시주택에서 고팡은 다른 실에 비해 면적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팡이 가지는 수장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제주도 전통초가와 별 차이가 없지만 위치에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시주택에서 고팡이 있다는 것은 수장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전통적인 실공간의 유지, 계승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고팡은 시대별로 면적의 변화가 미미하며, 평균면적은 1.5坪 내외로 구성되고 있다. <표 4-2>를 보면 고팡의 시대별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데, 특별한 면적의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대가 흐르면서 고팡의 수장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고팡이 원래의 기능(식량류의 저장)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 크기는 일정한 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시주택에서는 고팡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있더라도 아주 작은 면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이 경우에 꼭 필요한 식량저장고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그 이상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제5장 구조 및 의장 특성

5.1 가구방식

민가의 구조 기술은 간단할 것 같지만 그 수효가 많은 것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민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목구조 기술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의 발전 과정은 건축재료의 생산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므로 사회경제사와도 연관된다.[68]

일제 강점기에 이르면 압록강변이나 강원도 심산의 삼림이 개발됨으로 인해 비교적 값싼 목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1920년경에는 목재 재재치수도 규격화되지만 1935년 이후에는 일인들이 일으킨 전쟁과 심한 공출로 인해 모든 물자가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났다. 해방 이후에 계속되는 물자부족현상으로 지리산·한라산·강원도 등지의 산림을 훼손한 덕택에 195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목재의 공급이 계속되었다. 이후 산림자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됨에 따라 정부에서 산림개발을 규제하였으므로, 건축재료로서의 목재는 1960년에 들어서면서 시멘트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69]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가구법의 간이화 또는 변형화 현상은 목재의 생산이나 목재치수의 규격화 또는 장인수의 감소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제주도 사회, 경제상황이 건축활동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 본토와의 건축 전반에 걸친 연관성까지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가구방식의 변천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가구방식의 변천을 명확하게 분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대신하고자 한다.

도시주택에서 가구방식에 대한 것은 상방(마루)에서 본 구조를 중심으로 서술

68)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69쪽.
69) 김홍식, 앞책, 57쪽에서 재정리.

하려고 한다. 현장조사시 한계성으로 인하여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할 수 없으나, 이 장에서 구조를 다루는 것은 대상시기의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가구수법이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쓰이는 전통적 가구수법(2고주 7량)에서 벗어나는 형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러한 지붕 가구방식의 변화는 제주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타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가구방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가구방식이 제주도 민가의 전통적 가구방식과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1 5량 구조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모커리라던가 헛간채에서는 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량으로 결구된다.[70] 이런 경우 5량집은 대개 무고주 5량으로 결구된다.

도시주택에서 5량집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5량집은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같이 부속채인 모커리나 헛간채에서 보이고 있으며, 특히 퇴가 있는 안채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5량은 2고주 5량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무고주 5량이나 간이식 5량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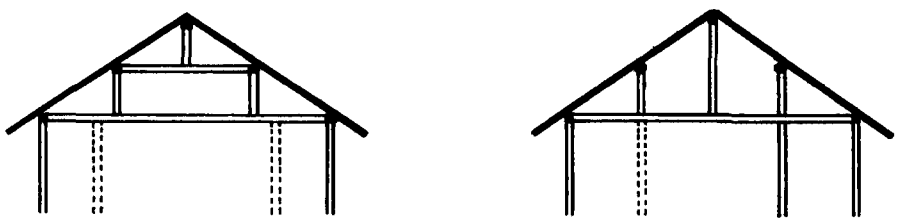
<그림 5-1>의 ⓐ는 이도1동 1330-5번지 박인상氏 가옥의 바깥채에서 보이는 가구방식인데 제주도 전통초가의 무고주 5량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구방식을 보면 대들보를 걸치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우며 동자주와 동자주에는 종보를 건다. 종보 위에는 종도리를 받치는 동자기둥을 세운다. ⓑ는 무고주 5량의 변형인 간이식 5량으로써, 일도1동 1243-1번지 문순여氏 가옥의 바깥채와 이도1동 1533번지 강을생氏 가옥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간이식 5량은 무고주 5량과 가구방식이 거의 유사하나, 그림에서와 같이 종보가 없고 종도리를 받치는 동자기둥이 대들보에서 바로 종도리까지 올라가 종도리를 받치는 형태이다. 건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들보는 퇴칸까지 단일부재로 사용하고 있다.

전통초가의 모커리나 헛간채에서 주로 쓰였던 무고주 5량 구조는 도시주택에

---

70) 제주도, 『제주의 민속Ⅳ - 주생활편』, 1996, 472쪽.

서 또한 주로 바깥채나 부속채에 쓰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주택의 안채의 규모가 협소할 경우에는 무고주 5량이나 이것의 변형인 간이식 5량이 가구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고주 5량이나 간이식 5량 구조는 조사된 건물수는 비록 적지만 도시주택에서 건물이 협소한 경우에 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안채보다는 바깥채나 부속채의 가구수법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고주5량　　ⓑ간이식5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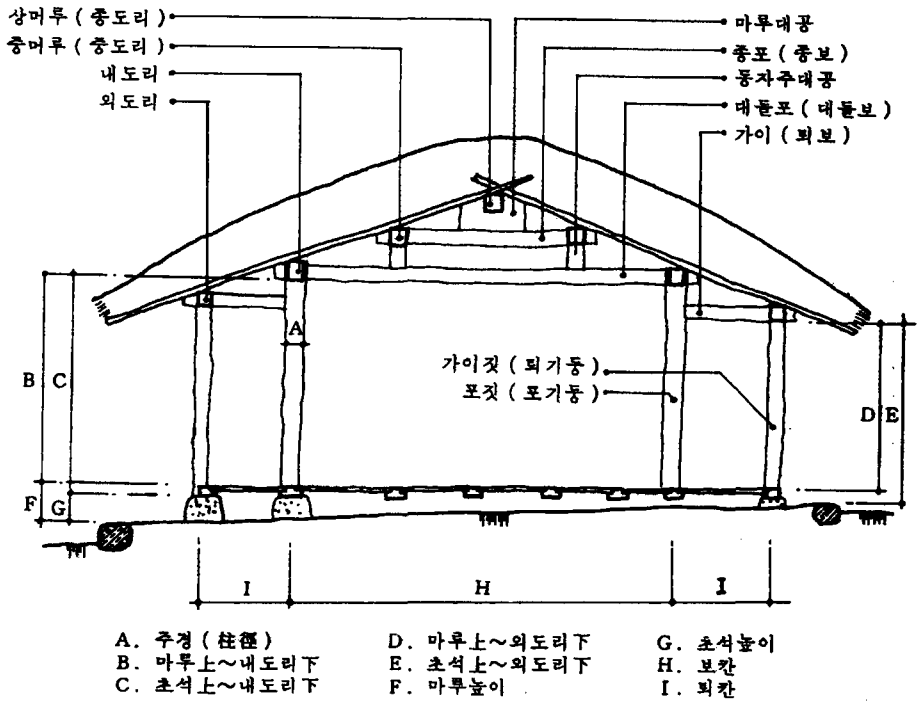
<그림 5-1> 도시주택의 무고주 5량

5.1.2 7량 구조

제주도 민가의 구조는 7량집으로 5량집인 한국본토의 양식과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권위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3칸 7량 전후좌우퇴집의 가구법과 유사하다. 이 가구법은 역학적으로 극히 우수한 수법이다. 상모루(종도리)와 중모루(중도리)는 역학적으로 간단한 내민보 형식이고, 춘연과 서리는 역시 내민보 형식을 응용하였으며, 지붕틀은 삼각형 결구를 많이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일체식 가구에 가까운 구조가 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구법의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지붕틀 가구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무게의 지붕을 견디고, 대단한 풍하중을 견디어 내는 것이라 보인다.[71]

71) 김정기 · 김홍식, "주택",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304쪽.

지붕틀은 내도리의 구조형태에 따라 산방낭형과 곱은도리형으로 분류된다.[72]



<그림 5-2> 제주도 전통초가의 가구방식 - 2고주 7량[73]

제주도 전통초가의 안거리 가구방식이 2고주 7량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반해서 도시주택은 두거리형(複棟型)으로 배치되는 건물이나 외거리형(單棟型)으로 이루어진 건물 모두에서 2고주 7량뿐만 아니라 2고주 7량의 간이식, 간이식 5량, 간이식 7량의 구조도 보이고 있다. 간이식 7량 구조는 다시 그 가구방식에 따라 4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기둥이 고주없이 무고주로 구성된다. 2고주 7량 구조나 2고주 7량의 간이식 그리고 간이식 5량은 제주도 민가 고유의 지붕 가구방식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간이식 7량 구조는 2고주 7량 구조의 한

72) 제주도, 『제주의 민속 Ⅳ - 주생활편』, 1996, 528쪽.
73)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석논, 1987, 16쪽.

변형으로 생각한다.

간이식 5량과 2고주 7량의 변형으로 생각되는 간이식 7량은 간이 수법으로 일반 서민주택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표 5-1>에서 보면 도시주택에서 지붕 가구방식이 7량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에 2고주 7량보다 무고주로 구성된 간이식 7량의 사용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 연대별 가구형식 분석표 - 7량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2고주7량	5	4	8	7	4	28
간이식7량	1	-	15	7	14	37
소계	6	4	23	14	18	65

1. 2고주 7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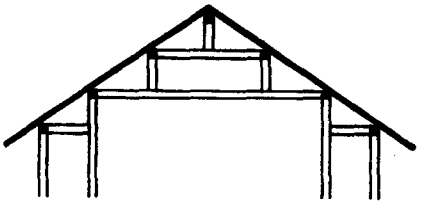
도시주택의 가구 구조는 안채의 마루위 지붕가구 구조에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지붕 가구수법에 대해서는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검증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현상조사시 각 실의 천장에 반자를 설치하여 내부구조를 확인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붕틀의 구조가 유일하게 보이는 마루 천정의 지붕틀 구조만을 가지고 논하려고 한다.

도시주택의 2고주 7량 구조는 간이식 7량과 함께 도시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가구수법이다. 이러한 2고주 7량은 전통적인 가구형태인 2고주 7량과 2고주 7량의 간이식 또는 변형인 간이식 2고주 7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3>에서 보면 ⓐ는 제주도 전통초가의 가구수법과 같은 2고주 7량의 가구형태를 보이고 있다. 종도리를 받치는 동자기둥은 전통초가에서와 같이 판대공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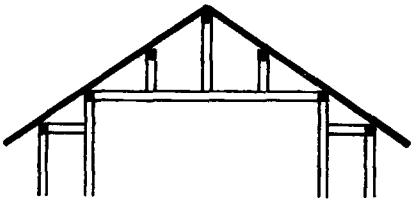
ⓑ 2고주 7량-간이식1은 2고주 7량의 구조에서 종보가 없이 종도리를 받치는 기둥이 대들보에서 종도리까지 바로 올라가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 가구법은 전통적인 가구법보다는 일식의 간이식 가구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한

다. ⓒ 2고주 7량-간이식2는 ⓑ 2고주 7량-간이식1보다는 전통적인 가구법에 유사한 구조이다. 이 구조는 대들보 위에 종보가 있지만 이 종보는 절단되어 종도리를 받치는 동자기둥에 맞춤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종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지지대의 역할만을 할뿐이다. 종도리를 받치는 동자기둥 또한 대들보에서 종도리까지 바로 세워져서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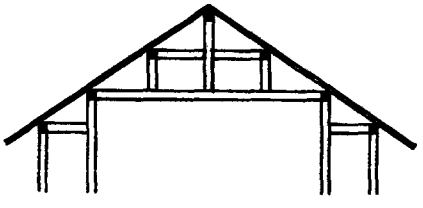
도시주택의 2고주 7량 구조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2고주 7량과 그 가구 수법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며, 그 변형인 2고주 7량-간이식 또한 전통초가의 가구수법에서 약간 변형되었을 뿐이며 기본적인 가구수법은 유지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2고주 7량이나 2고주 7량-간이식 구조는 제주도 초가의 전통적 가구수법을 유지, 계승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간이화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반 서민주택의 일반적인 가구수법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2고주 7량



ⓑ 2고주 7량-간이식1



ⓒ 2고주 7량-간이식2

<그림 5-3> 도시주택의 2고주 7량

2. 간이식 7량

제주도 전통초가에서는 간이식 7량의 구조가 보이지 않지만 도시주택에서는 간이식 7량이 조사됐으며, 건물에 나타나는 빈도 또한 2고주 7량 구조보다 다소 많다. 이러한 간이식 7량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4>에서 보면 간이식 7량은 ⓐ, ⓑ, ⓒ, ⓓ의 4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구법 중에서 ⓐ는 전통적인 가구법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 ⓓ는 전통적인 가구법보다는 일식의 간이식 가구법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 간이식 7량-1은 대들보 위에 중보가 없이 종보만으로 결구된 형식이다. 중보가 없기 때문에 종보를 받치는 동자기둥은 대들보에 바로 세워지고 동자기둥이 길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간이식 7량-2는 대들보만 있고 중보와 종보가 결구되지 않는 형식이다. 따라서 중보와 종보를 받치는 동자기둥은 대들보에서 바로 중도리와 종도리밑까지 세워져서 각각의 도리를 받치는 형태이다. 이 구조는 각각의 동자기둥이 다른 형식에 비해 길어지는데, 특히 종도리를 받치는 동자기둥이 상당히 길어지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 구조법은 중보와 종보가 없기 때문에 횡력에 상당히 약한 구조로 볼 수 있다.

ⓑ 간이식 7량-2는 위의 2고주 7량-간이식2의 구조에서 포기둥이 고주에서 평주로 변하면서 대들보와 퇴보가 같은 높이에서 결구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고주와 같은 장대재 기둥부재를 쓸만한 목재의 부족 또는 기둥길이의 규격화로 인하여 포기둥이 평주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간이식 7량-3은 간이식 7량-2와 그 형식이 동일한 구조이다. 단지 이 형식에서 보이는 특징은 전면 툇마루와 마루사이 그리고 후면 툇마루와 마루사이의 기둥이 서로 엇갈려서 서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면에서 전면 툇마루와 후면 툇마루의 넓이가 서로 다를 경우에 주로 보이는 가구수법이다.

ⓓ 간이식 7량-4는 특히 건축연대가 내려올수록 주로 나타나는 가구법으로써 중보는 있으나 종보가 없이 결구된 형식이다. 종보가 없으므로 중보에서 종도리까지 동자기둥이 세워져서 종도리를 받치는 형식이다. 특히 이 구조는 중보와 대들보사이에 작은 토막기둥이 서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종보가 없이

종도리 받침기둥이 바로 중보에 세워지게 됨으로 인한 상부하중의 중보 집중현상에 의하여, 중보가 휘어지거나 전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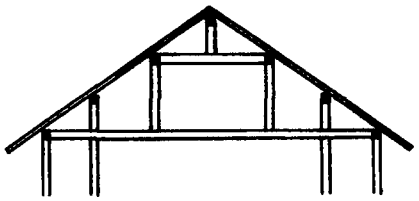
간이식 7량은 구조부재의 단면과 길이가 작아짐에 따라 2고주 7량의 가구구조를 할 수 없는 당시의 간이식 가구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식 7량 구조가 도시주택의 지붕 가구방식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도시 서민주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가구수법의 한 유형으로 정착됐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다양한 구조방식은 구조의 발달이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만 발전하는 일원적인 발전법칙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산양식이 시작되면 집의 규모는 커지고 새롭고 다양한 기능이 수용되기는 하지만 구조체는 오히려 간단하게 생략된다[74]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조체나 간잡이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만 진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규모가 커지면서도 구조와 간잡이의 짜임새는 간이한 것으로 되었다가 차츰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며, 생산양식이 변화하여 집의 규모가 커지면 또다시 구조기법은 간단한 짜임새로 발전하는 변증법적 운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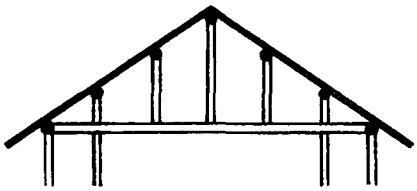
또한 도시주택의 다양한 구조방식은 사용목재의 수종에 따른 강도상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전통민가에서는 주로 가시나무(참나무)와 사오기나무(벚나무)를 재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도시주택에서는 주로 소나무를 재목으로 사용[76]함에 따라 강도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이로 인해 간이식 구조방법이 널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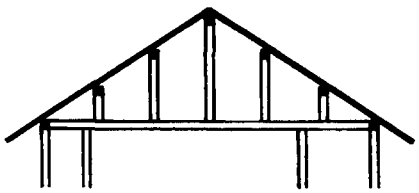
74)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37쪽.
75) 김홍식, 앞책, 39쪽.
76) 목재의 수종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현장조사시 많은 수의 가옥에서 재목으로 소나무를 사용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오랫동안 목수를 했던 김요안氏(77세, 제주시 이도1동 1543-1)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소나무로 많은 수의 집이 건축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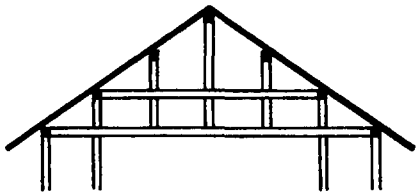
ⓐ 간이식 7량-1



ⓑ 간이식 7량-2



ⓒ 간이식 7량-3



ⓓ 간이식 7량-4

<그림 5-4> 도시주택의 간이식 7량

3. 가구방식의 변천

가구방식의 여러 가지 형태는 위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가구방식의 변화는 시대별로 구분이 되며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시대에 여러 가지 가구법이 혼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구방식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시대별로 구분지어 그것의 변화·발전과정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가구방식은 상방(마루)에서 본 것만을 가지고 논하고 특히, 다른 부분의 가구법에 대한 고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다소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우선 마루에서 나타나는 주요 가구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일반적인 변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제주도 전통가구법의 변화·발전과정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안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도 전통가구방식은 2고주 7량을 기본으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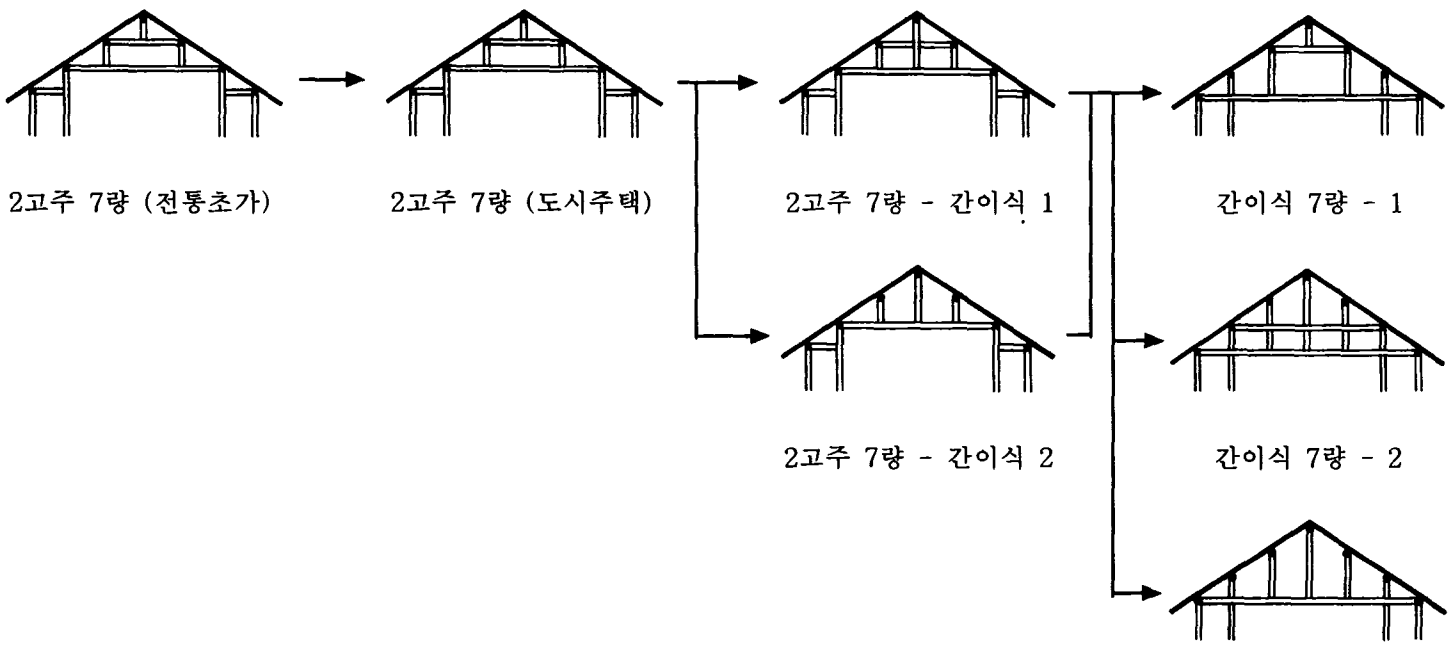
있다. 이러한 가구법은 도시주택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2고주 7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부재가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가구방식은 전통민가의 2고주 7량의 가구방식을 따르고 있다.

도시주택의 2고주 7량은 그 시대의 상황 즉, 목재의 산출감소에 따른 장대재의 부족, 장인수의 감소, 일식의 간이식 가구법의 영향 등에 따른 간이화 경향으로 변형되거나 간이화된 2고주 7량(간이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가 흐르면서 더욱 현저한 양상을 보이며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써 무고주의 간이식 7량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되거나 간이화된 가구방식은 도시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가구법으로 보이며, 동시대에 여러 가지의 가구형태가 혼재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고주 7량의 가구방식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가구방식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지속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주택의 가구방식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가구방식의 연장선에서 변화·발전되어 나타나는 간이식 가구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간이식 2고주 7량이나 간이식 7량 등과 같은 형태를 취하며 나타나고 있다. (그림 5-5) 참고

<그림 5-5> 가구변천 추정도 - 7량



5.2 구조부재 변천

가구구성부재의 단면적 변화는 연도별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략 1920년대의 가구부재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각 부재의 단면적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재의 단면적 변화는 당시의 목재의 생산과 그 재재수법 그리고 사용목재의 樹種[77] 등에 따른 요인으로 판단한다.

5.2.1 기둥

기둥은 구조적으로 상부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매개물이며 의장적으로는 수직적 요소가 되어 수평적 요소인 기단, 도리, 처마선, 지붕 마루선과 대조를 이룸으로써 입면구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78]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기둥 단면은 4모, 역4모, 8모, 배불린 8모기둥으로 나타나며 이중 역4모 기둥은 제주도에서만 나타나는 기둥형태이다.[79]

도시주택의 기둥은 원주가 없이 정방형과 장방형의 각주로만 나타난다. 연도별 정방형과 장방형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 5-2>에서와 같이 기둥의 단면형태가 조사된 전체 100채 중에서 정방형은 82채(82%)로 나타나고 장방형은 18채(18%)

---

77) 한라산 산림에 대한 일반인들의 건축 자재용의 허가사항(1921년-1931년사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21년 : 도토리나무, 잡목, 적송 65본(10척), 도토리나무 120본(171척), 闊葉椎 雜 190본, 구상나무 9본

1923년 : 서리나무 258본(177척), 도토리나무 50본(85척), 잡목 20본(12척), 때죽나무 23본(4척)

이 외의 벌채허가 주용도는 땔감, 표고버섯재배용, 분재, 목기제작 등에 한한 것이었다. 따라서 1923년 이후에는 건축자재용 목재의 허가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들의 한라산 임산물 착취로 건축자재의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1995, 531-641쪽.

78) 박명덕, 『한국건축의 구조적 의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논, 1981, 47쪽.

79) 신석하, 앞책, 35쪽.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방형보다 정방형 기둥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194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2> 연대별 기둥 단면형태 분석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정방형	6	7	34	10	25	82 (82%)
장방형	3	1	6	4	4	18 (18%)

*각 연대별 건물의 채수가 연구대상 주택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주택도 일부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기둥의 단면적은 <표 5-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도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20년에 108x112mm(약 110x110mm)이던 것이 1960년대가 되면 102x102mm(약 100x100mm)정도로 기둥 직경이 약 10mm정도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연대별 구조부재 치수 분석표 단위 : mm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기둥	108x112	105x105	104x104	104x104	102x102
대들보	116x157	115x183	115x136	118x135	108x144
내도리	112x130	110x131	108x120	109x116	105x124
서까래	108 (60x60)	96 (48x48)	89 (50x50)	91 (50x50)	81 (53x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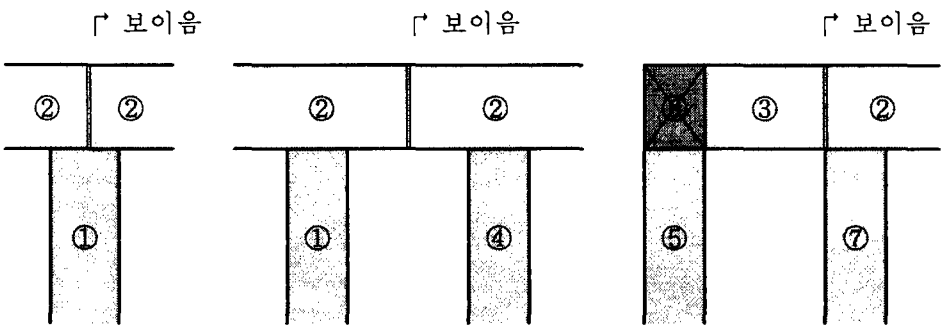
*각 부재별 수치는 연대별 평균치이므로 실제 부재치수와는 다르다.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입쟁이라는 기둥이 있다. 입쟁이는 대들보 양쪽 끝에 서

있는 주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샛기둥이다. 입쟁이는 보의 휨을 방지하고 지붕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며, 귀틀을 여기에 맞추게 하여 귀틀의 길이가 짧아지게 한다. 일종의 보조기둥으로 그 위에 도리를 걸치지 않는 기둥이다.[80]

도시주택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샛기둥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칸가름(칸나눔)기둥이다. 칸가름기둥은 칸나누기를 위해 쓰이며 문을 다는 벽선의 역할도 한다. 특히 도시주택에서 보를 단일 부재로 쓰지 못하여 이어서 쓸 때가 많은데, 이때 보의 이음은 칸가름기둥의 주두 위에서 하거나, 주두 바로 옆에서 한다. 따라서 이 기둥은 주기둥과 같은 단면과 높이를 가지며 지붕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칸가름기둥은 반드시 주칸의 정중앙에 놓이지 않으며 중앙에서 약간 좌우로 치우쳐서 서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칸가름기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보와 같이 단면과 길이가 상대적으로 큰 장대재(長大材)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구조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①칸가름기둥 ②대들보 ③퇴보 ④문설주 ⑤퇴주 ⑥도리 ⑦포주

<그림 5-6> 칸가름기둥과 보의 이음

80) 제주도, 「제주의 민속Ⅳ - 주생활편」, 1996, 535-6쪽.

5.2.2 대들보

보는 지붕 또는 상층에서 오는 하중을 받는 재로서 기둥 또는 벽체 위에 수평으로 걸린 구조 부재이다.[81] 제주도 전통초가에서 대들보의 단면 형태는 상하면을 평평하게 하고, 측면을 항아리형으로 옆으로 불러져 나온 것과 정방형의 것이 있는데 대부분 정방형 보이다.[82]

도시주택에서 보이는 대들보의 단면 형태는 대부분 정방형과 장방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간혹 원형보도 나타나고 있다. <표 5-4> 연대별 대들보 단면형태 분석표에서 보면 정방형보와 장방형보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5-4>는 전체 대상가옥 112채 중에서 50채의 대들보의 단면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보는 방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1940년대 이후로 정방형 보의 사용빈도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규격화된 목재를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재의 규격화는 보 부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가구부재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표 5-4> 연대별 대들보 단면형태 분석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정방형	1	-	9	9	3	22 (44%)
장방형	5	2	7	4	7	25 (50%)
원형	-	-	3	-	-	3 (6%)

본 논문 대상 도시주택의 전체 113채 중에서 조사된 보의 단면을 보면 1930년대에 약간 커지는 경향을 보이나 대체로 단면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3>을 보면 1920년대에 116x157mm(약 115x155mm)정도로 보의 춤이 폭에 비

81) 장기인, 「한국건축대계Ⅳ - 한국건축사전」, 1996, 94쪽.
82) 신석하, 앞책, 43쪽.

해 40mm정도 크게 나타나던 것이, 1960년대가 되면 108x144mm(약 110x145mm) 정도로 보의 춤이 폭에 비해 30mm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보의 폭과 춤의 차이가 10mm정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0년대에 비해 1960년대 보의 폭은 5mm정도 줄어들었으나 춤은 10mm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면적이 큰 부재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대들보의 폭보다 춤의 감소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5.2.3 내도리

도리는 보와 직각으로 걸어 서까래를 받는 수평재이며 지붕을 꾸미는 뼈대[83]이다. 도리는 그 위치에 따라 외도리, 내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도리, 즉 퇴와 마루사이의 기둥(포주) 위에 올려진 도리의 단면 변화를 위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나머지 도리 또한 그 크기와 형태가 내도리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 또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주도 전통초가에서는 단면형태에 따라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된 납도리, 원형으로 된 굴도리, 8모로 된 8모도리가 있다.[84] 도시주택에서 나타나는 도리는 정방형, 장방형, 원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방형과 장방형이 비슷한 빈도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도리 밑에 장혀를 받치는 경향도 일부 주택에서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지붕을 꾸미기 위한 것보다는 지붕하중에 대한 보강으로서 지붕틀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도리의 단면 크기는 <표 5-3>에서 보면 기둥과 대들보의 단면 크기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단면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20년대 내도리의 크기는 112x130mm(약 110x130mm) 정도로 나타나며, 1940년대는 108x120mm, 1960년대는 105x124mm로 부재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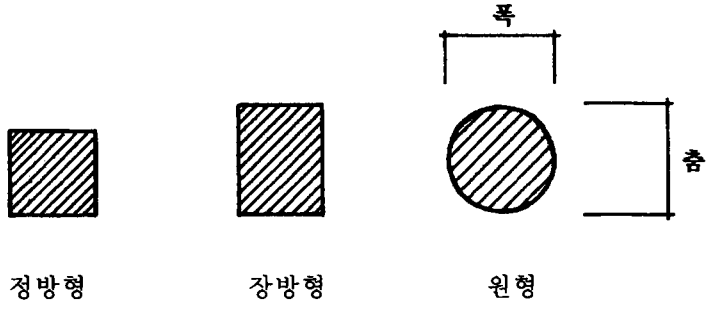
83) 장기인, 앞책, 97쪽.
84) 신석하, 앞책, 44쪽.

내도리의 단면크기는 1920년대에서 60년대까지 폭은 그 크기의 감소가 7mm로 완만하나, 춤은 그 크기가 1950년대까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 또한 기둥, 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단면적이 큰 부재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내도리의 폭보다 춤의 감소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5> 연대별 내도리 단면형태 분석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정방형	3	4	13	6	5	31 (48%)
장방형	4	5	10	2	8	29 (45%)
원형	-	1	3	-	-	4 (7%)

*각 연대별 건물의 채수가 연구대상 주택수와 다른 것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주택도 일부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7> 내도리 단면형태

5.2.4 서까래

서까래는 지붕경사에 따라 처마도리, 중도리, 마룻대 위에 경사지게 걸쳐 대어

지붕을 덮거나 산자를 엮어대는 경사재[85]이며, 지붕틀의 가장 위에 위치하는 부재로서 건물의 지붕선과 외관의 성격을 결정짓는 부재[86]이다. 제주도 전통초가의 서까래 단면은 4모, 8모, 둥구리 형태이며, 서까래 굵기는 평균 2寸(약 6㎝)정도이다. 중심간격은 평균 1尺3寸이며 내밀기는 2尺(약 60㎝)정도이다.[87]

<표 5-6>에서 보면 도시주택에서 서까래 단면 형태는 정방형, 장방형, 원형이 나타나며, 이 중에서 원형이 주를 이루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원형 서까래는 통재로 쓰며 끝부분을 원추형이나 6각, 8각의 형태로 다듬어 사용한다. 끝부분을 다듬어 사용하는 것은 서까래 마구리 부분이 처마 정면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둔한감을 없애기 위한 의장적 수단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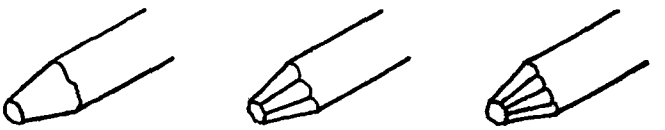
<표 5-6> 연대별 서까래 단면형태 분석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정방형	2	2	6	5	4	19 (22%)
장방형	-	2	2	3	3	10 (11%)
원형	7	7	28	6	10	58 (67%)

*각 연대별 건물의 채수가 연구대상 주택과 다른 것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주택도 일부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서까래의 단면 크기는 방형일 경우 1930년대 이후로는 주로 50x50mm의 수치를 보이며 원형인 경우는 단면 크기의 감소가 연대별로 나타나고 있다. 1920년대에 108mm(약 110mm)에서 1960년대는 81mm(약 80mm)로 약 30mm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상기의 기둥, 대들보, 내도리의 감소수치보다 현저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85) 장기인, 앞책, 101쪽.
86) 박언곤외, 「한국 전통건축의 언어와 의미」, 건축과 환경, 1985. 2, 58쪽.
87) 신석하, 앞책, 50-51쪽.



ⓐ원추형　　ⓑ6모　　ⓒ8모

<그림 5-8> 처마서까래 끝부분 단면 모양

도시주택의 서까래 내밀기는 평균 519mm(약 520mm)이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는 1920년대에 비해 무려 170mm정도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까래 간격은 평균 411mm(약 410mm)정도이며 1950년대까지 간격이 커지다가 60년대에는 다시 간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7> 연대별 서까래 내밀기 분석표　　단위 : mm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평균
내밀기	593	495	560	521	424	519

*각 연대별 수치는 평균치이므로 실제 치수와는 다르다.

<표 5-8> 연대별 서까래 간격 분석표　　단위 : mm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평균
간 격	396	408	407	432	414	411

*각 연대별 수치는 평균치이므로 실제 치수와는 다르다.

5.3 벽체 및 각 실의 구조

5.3.1 벽체구조

1. 전통초가의 벽체구조

(1) 내벽

벽체 구조방식은 심벽구조로 기둥과 기둥사이에 벽을 만들었다. 벽체의 두께는 얇을 때는 6㎝, 두꺼울 때는 8㎝까지 있다. 그러나 심벽구조에서는 대략 6.6 - 8.9㎝이며 그 크기의 진폭이 별로 없다. 요즘에는 그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7.26 - 8.25㎝ 내외인데, 평균 7.26 - 7.59㎝까지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오래된 집일수록 벽의 두께가 두껍다.[88]

(2) 외벽

외벽의 주요재료는 흙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지며, 난간 부분과 출입구를 제외하고 난층쌓기로 덧쌓아 올린다. 외벽의 높이는 160㎝ 정도이고 외도리에서 30㎝ 정도 낮은 높이까지 쌓는다. 벽체의 두께는 밑을 45㎝ 정도, 위는 20㎝ 정도로 위로 갈수록 얇아진다. 외벽의 안쪽은 진흙으로 마감을 하는데, 고팡의 경우에는 안쪽에 나무를 가로 또는 세로로 대어 진흙으로 마감하기도 한다.[89]

외벽의 덧쌓기는 제주도 민가의 독특한 입면구성 요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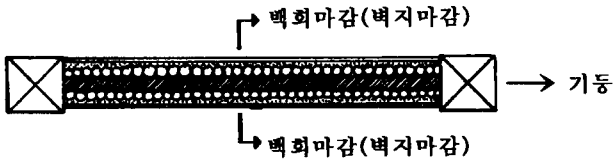
2. 도시주택의 벽체구조

(1) 내벽

도시주택의 내벽구조는 제주도 전통초가의 내벽구조와 그 구조에서 거의 유사하다. 전통초가와 다른 점은 전통초가에서는 벽체 하부에 빈지널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시주택에서는 내벽 상부에서 하부 전체를 외를 엮어 구성한다. 보통 벽두

88) 제주도, 『제주의 민속Ⅳ - 주생활편』, 1996, 535쪽.
89) 제주도, 앞책, 534쪽.

께는 대략 6 - 8㎝정도로 심벽구조이며 내실쪽에서 회반죽마감을 하거나 종이를 발라서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5-9> 도시주택의 내벽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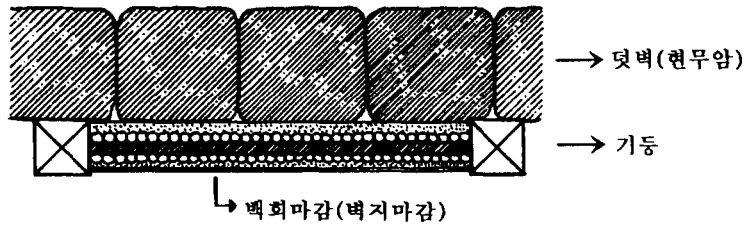
(2) 외벽

외벽체의 일반적인 구성은 내벽과 거의 유사하며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돌을 쌓는다. 이것은 풍다의 상황하에서 한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재는 현무암으로 정방형에 가깝게 다듬질하여 쌓는다. 돌과 돌사이에는 잔자갈(잔사)로 채우며, 흙으로 채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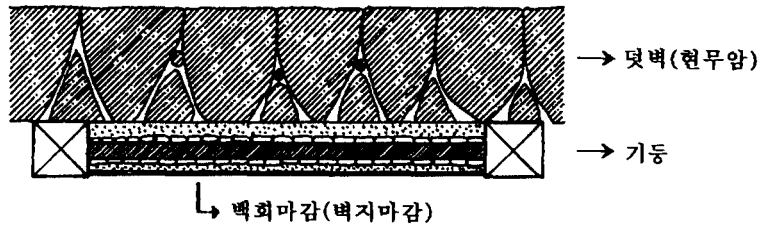
초기에는 다듬는 정도가 완만하였으나 후기에 오면서 그 다듬는 정도가 많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60년대에 오면 거의 정방형에 가깝게 돌을 다듬어서 쌓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돌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겠다.

돌을 쌓는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그림 5-10>의 ⓐ와 같이 방형의 돌을 그대로 쌓는 형태인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돌쌓기법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그림 5-10>의 ⓑ와 같이 돌을 방형의 형태로 쌓는 것이 아니라 돌의 뒷뿌리를 만들어서 쌓는 것이다. 따라서 돌의 형태는 네모뿔형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돌의 형태는 외부에서는 방형의 형태로 평평하게 나타나지만 내부에서는 뿔형태를 하게 된다. 이것은 견치돌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써 일식의 영향이 다소 가미된 것으로 생각한다.[90]

90) 이것은 현장조사시 만난 한 석공(석공경력 30년)의 증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석공의 증언에 의하면 돌에 뒷뿌리를 만들어 쌓는 것은 일식의 영향이 다소 가미된 것이라고 한다.



ⓐ



ⓑ

<그림 5-10> 도시주택의 외벽 단면도

5.3.2 각 실의 구조

1. 안방 및 작은방

안방과 작은방은 침실로써 그 구조에서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뚜렷한 구조상의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천장과 바닥은 대개 종이를 바르고 있으며 벽은 대부분 흙을 바른 후에 종이로 마감을 하고 있다. 안방과 작은방은 온돌방으로써 굴묵에서 난방을 하며, 부엌과 면해 있을 때는 부엌에서 난방을 하며 동시에 취사도 이루어진다.

안방과 작은방에는 수장공간인 벽장이 한쪽 벽에 시설되어 있다. 벽장의 상부는 이불이나 궤 그리고 옷 등을 보관하는 수장공간으로 이용되고, 하부는 난방공간으로 이용된다. 벽장이 부엌과 면할 경우 벽장 하부는 부엌에서 취사 및 난방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벽장에는 간혹 문을 달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문을 달고 있는데, 이

것은 수장물을 시각적으로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벽장문은 4짝 미서기 판문으로써 안·밖으로 종이를 바르고 있다. 간혹 상류주택에서 쓰이는 안고지기문도 사용되고 있다.

벽장 높이는 <표 5-9>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평균 697mm로 나타나고 있으며, 뚜렷하지는 않지만 1930년대 이후로는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960년대에는 약간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벽장의 폭(깊이)는 2尺~3尺 정도로 구성되며, 대부분 2尺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5-9> 연대별 벽장 높이 분석표 단위 : mm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평균
방바닥上-벽장下	647	745	705	688	698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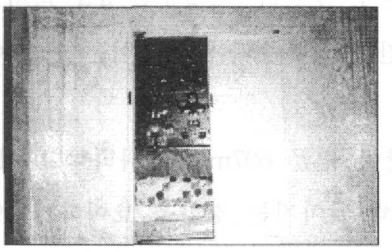
*벽장 높이는 각 연도별 평균치이므로 실제 치수와는 다르다.

굴묵은 난방공간으로써 보통은 벽장 하부 전체로 구성되고 있으며, 굴묵 공간의 좌우에는 연료를 쌓아두기도 한다. 난방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는 수장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표 5-10>에서 보면 굴묵 입구의 크기는 평균 820x942mm이며, 폭보다는 높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대별로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1930년대 이후로 굴묵 입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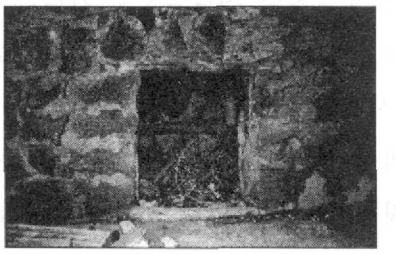
<표 5-10> 연대별 굴묵 입구 크기 분석표 단위 : mm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평균
가로(폭)	878	900	824	763	734	820
세로(높이)	905	1017	992	857	938	942

*굴묵입구 크기는 각 연도별 평균치이므로 실제 치수와는 다르다.



벽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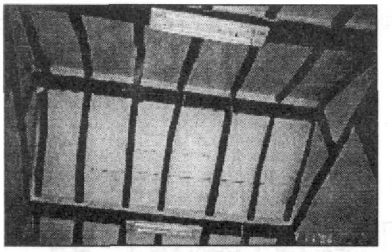
굴 묵

<사진 5-1> 벽장과 굴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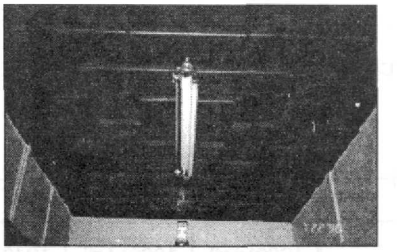
2. 마루

마루(상방)는 처음에는 천장을 꾸미지 않았으나 위생적인 문제와 시각적인 차폐를 위해서 차후에 천장을 가설한 주택이 많았다. 천장을 꾸미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붕틀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연등천장의 구조이며,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자틀을 짜서 윗부분에 판자로 막거나 격자틀 하부에 종이를 바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마루의 바닥은 대부분이 원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물마루, 장마루, 쪽마루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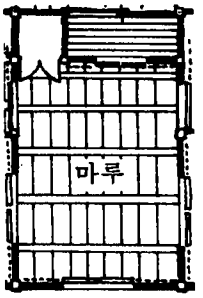


천장 1(노출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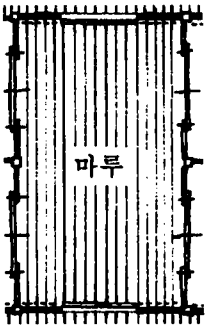
천장 2(반자설치)

<사진 5-2> 마루 천장



우물마루
삼도2동 1158-23,73
김수종, 방재신
(1940년대)

장마루
일도1동 1261
고학봉
(1940년대)



쪽마루
건입동 1340
김두욱
(1940년대)

<그림 5-11> 마루의 종류

3. 찻방 및 고팡

찻방과 고팡의 천장은 언제부터 반자를 설치하여 천장을 구성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된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천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종이를 발라 마무리하고 있었다. 간혹 고팡에 천장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도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지붕틀 구조가 노출되고 있다.

찻방의 바닥은 마루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고팡의 바닥은 대부분 마루를 깔고 있으며, 간혹 토방으로 구성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4. 부엌

부엌의 천장은 처음에는 마루와 같이 노출천장이었으며, 이후에 연료의 변화나 주생활의 변화에 따라 천장을 가설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은 대부분이 흙바닥이었다가 현재는 많은 주택이 콘크리트 바닥이나 마루바닥으로 개량되어 있다.

부엌의 바닥이 흙바닥으로 되어있는 주택의 바닥높이는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척~4척 정도 낮았으며, 평균 3척 정도의 고저차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부엌의 바닥은 연료의 변화에 따라 그 구조 또한 변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부엌내 수장공간의 축소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엌에 면한 벽장의 하부에서 취사 및 난방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솥은 3~5개 정도(평균 4개)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4 의장

5.4.1 기단

제주도 초가의 기단은 현무암으로 높이가 15㎝ 내외로 매우 낮다. 간혹 40 ~ 50㎝ 정도의 높은 기단이 있으나 기단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다. 낮은 기단은 폭이 처마선보다 약간 더 넓게 해서 지붕의 낙수로 인해 마당이 파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기단은 마당 주위의 잇돌과 연결되며 낮은 만큼 마당과 퇴의 공간연결이 원할하다.[91]

도시주택에서 기단은 거의 모든 주택에서 볼 수 있으나, 1960년대가 되면 기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단의 설치는 건물주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多雨지역에서 습기와 침수방지를 위하여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92]

기단은 보통 1-3단, 평균 2단정도로 형성되며 기단 한 단의 높이는 일정치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략 130mm에서 230mm까지 분포하며 평균 155mm로 나타나고 있다. 기단은 대개 전면부와 배면부에 설치되며 간혹 측면부에 설치되기도 한다. 전면부보다 배면부의 기단의 단수가 적은 특징을 보이며, 전면부는 대개 정면 전체에 기단을 설치하지만 배면부는 후퇴나 마루 후면부에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기단의 재료는 암회색 현무암이며 기단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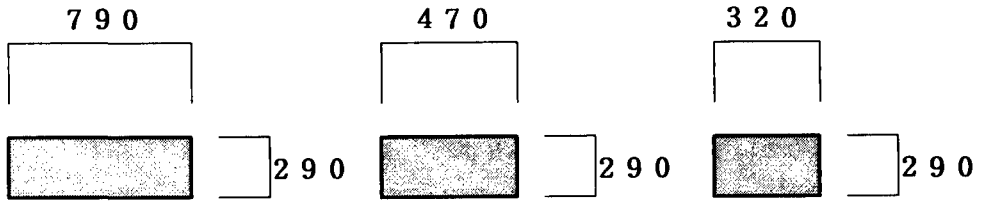
---

91)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박논, 1992. 42쪽

92) 오홍석, 『제주도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박논, 1974, 89쪽.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략 30에서 10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길이의 기단이 번갈아가며 놓여지고 다듬질하여 평평한 형태의 돌을 사용한다.

대략 1960년대가 되면 기단이 없는 형태의 주택이 나타나기도 하며, 시멘트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기단은 시멘트나 벽돌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기단이 타재료로 대체되거나 사라지면서 기단의 기능적이고 의장적인 특징 또한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계단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단이 점차 소멸해 가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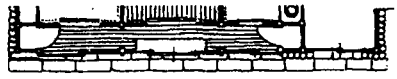


단위 : MM

이도1동 1330-5. 박인상氏

<그림 5-12> 기단석 크기의 여러 형태

전면 1단 (삼도2동 1158-5 김성훈)



전면 2단 (일도1동 1243-1 문순여)

전면 3단 (이도1동 1539-6 김영순)

후면 1단 (삼도2동 1158-5 김성훈)

후면 2단 (일도1동 1243-1 문순여)

<그림 5-13> 기단 설치의 여러 형태

기단은 연대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표 5-11>에서 보면 대체적인 변화는 알 수 있다. GL에서 기단의 최상단까지의 평균 높이는 189.4mm로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를 제외하면 시기별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20년대에 229mm이던 것이 1960년대에는 123mm로 106mm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단이 평균 2-3단에서 1단 정도로 그 단수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1960년대가 되면 기단은 1단 정도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연대별 기단 및 마루높이 분석표 단위 : mm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평균
GL-기단	229	187	187	221	123	189.4
기단내밀기	494	445	456	639	535	513.8
기단-마루上	223	239	270	257	238	245.4
GL-마루上	452	426	457	470	361	434.8

*각 연대별 수치는 평균치이므로 실제 수치와는 다르다.

기단 내밀기는 시대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1950년대 이후가 되면서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단에서 마루상단까지의 높이는 1940년대까지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GL에서 마루상단까지의 높이는 1930년대에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960년대가 되면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4.2 창호

제주도 전통초가의 창호 종류는 살문과 밀장(미닫이), 널문(판장문), 지게문 등으로 대별된다. 살문은 아랫부분에 청널이 없는 것인데 구들에 이용된다. 지겟문은 살문이지만 아랫부분에 청널이 있는 것으로서 각종 샛문에 쓰인다. 밀장은 용(用)자 살로서 구들의 창안에 이중으로 설치되는 안쪽의 미닫이창으로 쓰인다. 널문은 샛문에서 고팡문과 모든 외부에 면한 문에 이용되며 널판으로 만든다.[93]

도시주택의 창문은 대개 미서기, 미닫이, 여닫이문이 주를 이루며 건축시기나 실에 따라 그 형태나 개폐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내에서 사용되는 문은 대개 종이를 바른 문을 사용하고 외부에 면하는 문은 주로 널문이나 유리문을 사용한다. 툇마루와 마루 또는 방을 연결하는 문은 두짝 미닫이문에서 차츰 2짝 또는 4짝 미서기문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고팡문과 부엌과 외부를 연결하는 문은 주로 쌍여닫이 널판문에서 외미닫이 판문 또는 유리문으로 시대에 따라 바뀌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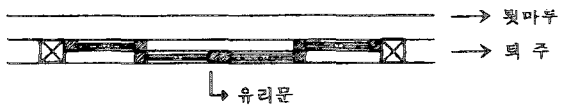
툇마루 전면문은 유리문으로써, 하부는 널판이며 상부는 유리로 되어 있다. 툇마루문을 다는 방법은 2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그림 5-14> ⓐ와 같이 퇴주와 퇴주 사이에 문을 다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퇴주는 외기에 면하게 되어 비나 바람에 의해서 부식될 염려가 있다. 다른 하나는 ⓑ와 같이 퇴주의 바깥으로 문을 다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 퇴주는 퇴문에 의해 비나 바람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방과 마루사이의 문은 종이문으로써 2짝 또는 4짝 미서기문을 사용하고 있다. 방과 방사이의 문 또한 종이문인데, 간혹 전체가 널판으로 된 널판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서로 면한 방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툇마루 좌, 우측에 설치되는 수납장은 외여닫이 판문이며, 2단 또는 3단으로 구성되는

93) 제주도, 앞책, 538-9쪽.

경우도 있다. 고팡창은 대부분 고정창이며, 유리창이거나 살창으로 하고 있다.

창호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창호의 변화에 따른 입면의 구성은 도시주택의 특징을 이루는 하나의 의장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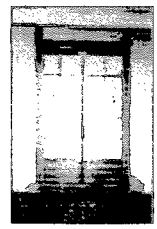


ⓐ

ⓑ

<그림 5-14> 툇마루 전면문 설치 형태

창호위치	창호종류	형 태	창호위치	창호종류	형 태
툇마루 전면	미서기문		방과 마루 사이	미서기문	
부엌전면 (외부)	여닫이문		고팡외벽	고정창	

툇마루와 마루 사이	미닫이문		툇마루 수납장 전면	여닫이문	

<사진 5-3> 창문의 종류 및 형태

5.4.3 덧벽

제주도에서는 石多의 환경으로 조악한 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실과 風多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를 감안하여 가장 적절하게 선택된 재료가 석재[94]이다. 도시주택은 외부 벽체에 돌쌓기를 하는데, 돌은 현무암이며 막돌로 쌓지 않고 약간 다듬어서 사용하고 있다. 1958년 이후부터 시멘트 생산이 본격화[95]되고 1960년대에 시멘트의 공급이 보편화되면서 돌쌓기 줄눈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는 현상을 보인다. 시멘트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외벽의 돌쌓기(덧쌓기) 대신에 시멘트 몰탈 마감으로 대체하기도 하며, 덧쌓기를 하더라도 그 위에 시멘트 몰탈을 덧바르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림 5-15>는 외부 덧벽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도시주택의 의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덧벽을 처마밑까지 전부 쌓지 않고 1尺~1.5尺 정도 남기고 쌓는 것은 지붕의 둔중함과 덧벽의 무거움을 심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덧벽을 처마밑까지 쌓지 않아도 빗물에 의한 외벽체의 손상을 처마에 의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까지만 돌을 쌓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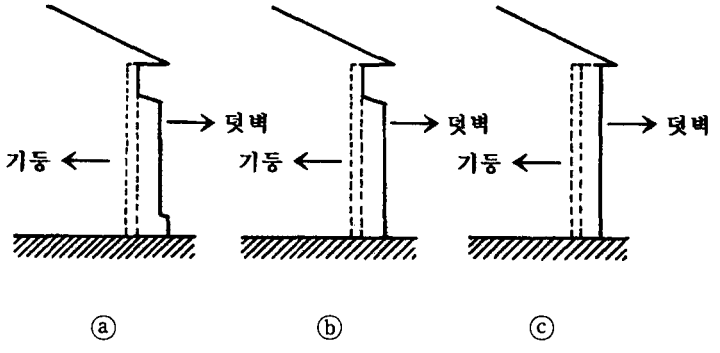
<그림 5-15>의 ⓐ와 ⓑ는 1920년대에서 1950년대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보이

94)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한대박논, 1991, 97쪽.

95) 신수현, 주남철, 『조선시대말기이후 서울의 일반주택 변천에 관한 연구(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1호 통권3호, 1986. 2, 4쪽.

는 덧벽쌓기 형태이며, ⓒ는 특히 1960년대에 나타나는 덧벽 쌓기 형태이다. ⓐ와 ⓑ는 덧벽을 처마에서 1尺~1.5尺 정도 남기고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약간 경사지게 쌓는 형태이다. 특히 ⓐ는 덧벽 하부에서 내쌓기를 하는데, 대략 1~2단을 약 10㎝ 정도 내밀어 쌓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는 덧벽을 처마밑까지 전부 쌓으며 하부에서 상부까지 거의 경사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전통초가나 와가에서도 외부 덧벽을 일정한 높이까지만 쌓으며, 상부와 하부가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도시주택의 이러한 외형상의 특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전통요소의 유지, 계승이라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주택의 의장적 요소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5-15> 덧벽의 형태

덧벽의 두께는 <표 5-12>에서 보면 평균 285mm이며 연대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GL에서 덧벽上은 덧벽만의 높이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1960년대에 올수록 덧벽의 높이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체 처마높이가 높아지는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덧벽上에서 처마下까지의 높이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높이만큼 덧벽의 높이에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덧벽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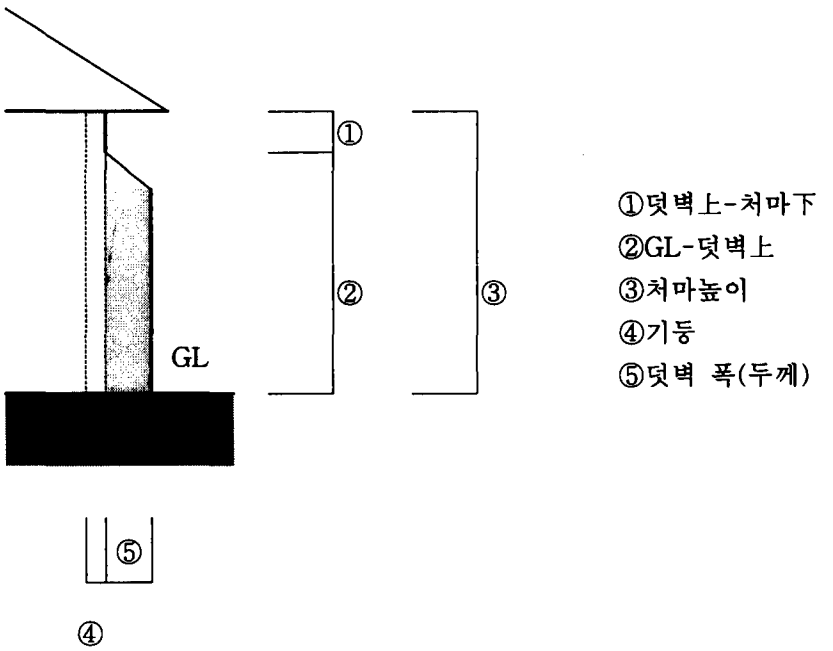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처마의 높이는 평균 2586mm로 나타나고 있다. 처마높이는 1930년대에 일시적으로 작아지기는 하지만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높

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 덧벽上에서 처마下까지의 높이가 특히 감소하여 나타나는 것은 1960년대에 오면 외부 덧벽을 지반에서 처마하부까지 모두 쌓아버리는 경향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5-12> 외부 덧벽 분석표 단위 : mm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평균
두 께	277	289	283	285	289	285
GL-덧벽上	2079	2122	2185	2302	2496	2230
덧벽上-처마下	434	349	448	352	164	349
처마높이	2513	2471	2633	2654	2660	2586

*각 연대별 수치는 평균치이므로 실제 수치와는 다르다.



<그림 5-16> 덧벽의 두께 및 높이

5.4.4 지붕

제주도 전통초가의 지붕형은 한국 본토에서 볼 수 있는 우진각 지붕의 틀에다 새를 두텁게 덮었기 때문에 추녀마루의 선이 보이지 않고, 길고 둥글게 된 모양이다. 지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추녀마루의 각을 살리지 않고 둥글게 한 것은 강풍지역에서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형태라 생각한다.[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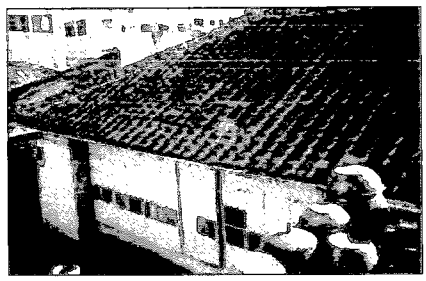
도시주택의 지붕은 전체가 일식기와를 덮고 있으며, 최초 신축시에는 새를 덮었다가 차후에 지붕개량으로 인해 일식기와나 슬레이트를 덮고 있는 주택도 다수 보이고 있다. 도시주택의 지붕에 그 당시 새보다 상대적으로 값비싼 기와를 덮은 것은 경제적인 여유의 유무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가옥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붕재료의 변화는 도시주택이 가지는 의장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기와 사이에 회를 바르며 이것이 하얀 띠의 형태로 보이는 것이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920년에 제주를 자전거로 일주한 후지시마의 견문기에 의하면 정의골의 향교, 관아건물의 지붕에 모두 회를 바른 하얀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그전부터 비바람이 많았던 남해안지대에서는 권위건축인 경우 지붕에 회를 바르는 기법이 있었고 이것이 19세기 말 이후 민가로까지 파급된 것으로 추측된다.[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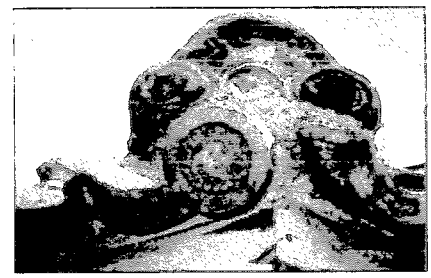
이러한 일식기와는 대부분이 흙기와이며, 1960년대가 되면 시멘트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시멘트 기와도 나타나고 있다. 조사된 일식기와는 귀딴 평기와와 수마루장이며 이들의 각부 치수는 <그림 5-17>과 같다.

---

96) 제주도, 앞책, 534쪽.
97) 김홍식,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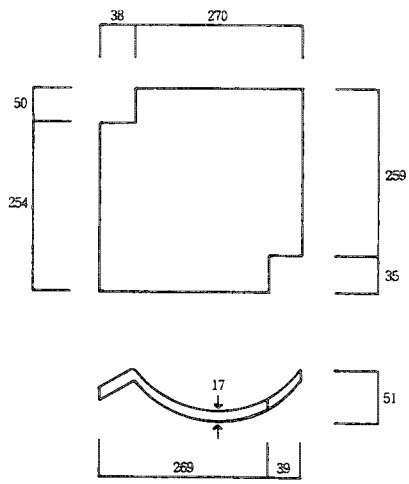


ⓐ 지붕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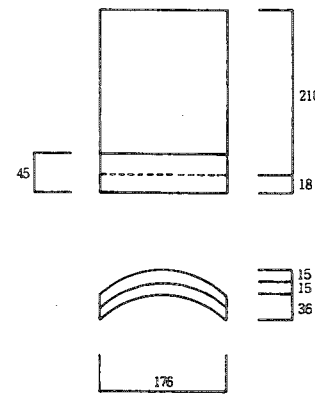


ⓑ 귀처마 기와

<사진 5-4> 지붕 및 기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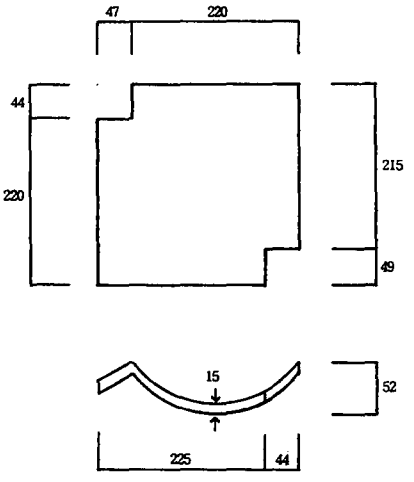


귀딴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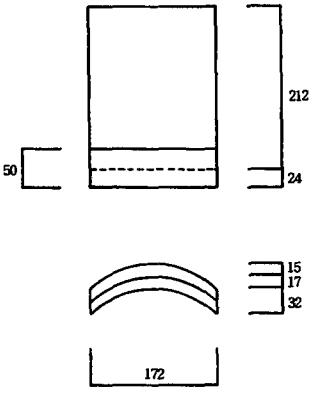


수마루장

일도1동 1396 김홍길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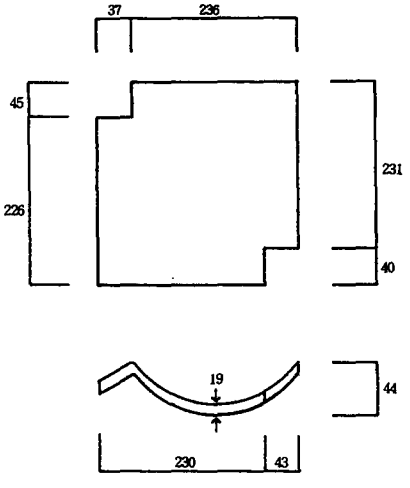


귀딴 평기와



수마루장

일도1동 1484-9 백경랑 (1950년대)



귀딴 평기와

용담동 364-38 문두은 (1960년대)

<그림 5-17> 일식기와의 형태

제6장 결론

6.1 본문요약

도시주택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평면형태이며, 그것이 변화·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도시주택에 대한 배치, 평면, 구조, 입면 등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다.

도시주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평면형태이며, 또한 이러한 것은 경제적인 차이, 주생활의 변화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이 위치한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주택은 나름대로의 제약에 따라 구성되고, 이러한 것이 도시주택의 특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부공간 및 배치유형

도시주택의 외부공간은 살림채를 비롯하여 대문, 마당 및 정원, 우영, 화장실, 굴뚝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것은 도시주택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대문은 경계물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범, 출입제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징적, 심리적 보호물의 역할도 하고 있다. 마당공간은 고유하고 다양한 기능을 보이기보다는 공간의 축소로 통로나 넓은 옥외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영은 개별적인 공간에 설정되지 않고 마당의 한쪽이나 정원에 부속되어 시설되고 있다. 화장실은 통시의 형태와 대문에 부속되는 형태 그리고 별도로 짓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실을 새로 신축할 때는 원래의 자리에 짓는 경우가 많다. 전통민가에서 보이는 안뒤라는 공간 대신에 작은 뒷마당이 설정되고, 이러한 뒷마당은 1960년대가 되면 대체적으로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시주

택에 정원이 나타나고 굴뚝이 존재하는 것은 전통민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도시주택의 배치유형은 두거리형(複棟型)과 외거리형(單棟型)으로 나눌 수 있다. 두거리형(複棟型)은 二자, ㄱ자, ㄷ자 등의 배치형태를 보이며, 대지에 대한 제약으로 다소 불완전한 배치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두거리형(複棟型)과 외거리형(單棟型)의 안채 좌향은 일정한 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남향이 많으며 북향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진입로는 두거리형(複棟型)이나 외거리형(單棟型)에서 대부분 4M미만의 보행자전용도로로써 막다른 도로나 통과도로의 형식을 취하며, 가지형 도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두거리형(複棟型)의 진입방향은 남향과 북향이 가장 많으며, 이때 안채 좌향은 남향이고 필지 형태는 남북장방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외거리형(單棟型)의 진입방향은 동향과 서향이 가장 많고, 이때 안채 좌향은 주로 서향과 남향을 하고 있다. 필지 형태는 서향일 때 동서장방형이 많고, 동향일때는 동서장방형과 남북장방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진입로에 면해 있는 대문은 살림채와 ㄱ자나 二자의 배치형태를 하고 있으며, 직접 살림채 내부로 시선이 향하지 않게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ㄱ자나 二자 배치는 두거리형(複棟型)과 외거리형(單棟型)에서 비슷한 빈도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2. 평면유형

도시주택은 실 구성에 의하여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과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별동정지형과 외래형이 특수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가사공간 조합형이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 분리형은 안방과 고팡이 부엌의 반대편에 위치한 안방+고팡 분리형과 고팡은 부엌의 안이나 부엌에 근접 배치되고 안방만이 부엌의 반대편에 위치한 안방분리형으로 세분된다. 안방 분리형은 다시 부엌+고팡+찻방 형, 부엌+고팡형, 부엌+찻방 형, 부엌 단독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가사공간 조합형은 안방과 고팡이 부엌과 근접, 배치되어 안방, 부엌, 고팡, 찻방이 하나의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마루를 기준으로 좌

측 또는 우측에 가사공간인 부모세대공간이 위치하고 그 반대편에는 작은방으로 구성된 자녀세대공간이 위치하여 세대별 공간분화를 보이고 있다.

가사공간 조합형은 가사노동공간의 조합형태에 따라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안방+부엌+찻방 형, 안방+부엌+고팡 형, 안방+부엌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안방+부엌+고팡+찻방 형은 □자 조합형, L자 조합형, I자 조합형으로 세분되며, 안방+부엌+찻방 형은 전면 부엌형, 후면 부엌형, 안방 전면형으로 세분된다.

특수형 중 별동부엌형은 전통민가의 딴정지형이 유형적으로 지속된 형이며, 외래형은 전통적 공간 구성을 보이지 않는 평면형이다.

도시주택은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며, 4칸형이 주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4칸형은 3칸형에 비해 하나 정도의 실이 더 많으며, 이로 인해 평면면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칸형은 1940년대 이후에 지속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는 4칸형의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평면형으로 보인다.

고팡이 부엌으로 이동하여 부엌, 고팡, 찻방이 하나의 가사노동군을 형성하는 것은 근대적 공간구성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고, 안방이 부엌으로 이동하면서 가사노동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중시키면서 근대적 공간구성의 완결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부공간 구성은 결과적으로 부모세대공간과 자녀세대공간으로 양분되어 세대별 공간분화를 낳고 있다.

3. 평면형태

도시주택의 평면형태는 一자형, 一자+부분돌출 형, 一자+완전돌출 형으로 나눌 수 있다. 一자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돌출없이 一자형의 평면형태를 유지하는 형이고 지붕은 꺽임이 없는 一자형의 모임지붕으로 나타나고 있다.

一자+부분돌출 형은 평면이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을 말하며, 부분 돌출은 주로 고팡과 찻방에서 일어나며, 부엌과 작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붕은 모임지붕으로써, 고팡, 찻방, 부엌이 돌출될 때는 一자형이며 작은방이 돌출될 때는 ㄱ자로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一자+완전돌출 형은 하나의 실이 완전히 돌출되는 형태를 말한다. 완전 돌출은 주로 고팡과 찻방에서 일어나며, 작은방, 부엌도 돌출된다. 안방은 1960년대가 되면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붕은 모임지붕이며,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불규칙 ㄹ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면에서 돌출이 일어나는 면은 정면과 배면이며 측면에서는 거의 돌출이 없고, 부분 돌출과 완전 돌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예가 많다.

안방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1920년대에 비해 1960년대가 1.84㎡의 면적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안방면적의 확대요구, 세대별 공간분화, 타실의 면적 감소에 의한 안방으로의 면적 흡수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마루는 대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1920년대에 비해 약 1.82㎡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마루가 가지는 일반적인 기능의 분산이나 사회적 기능의 약화로 볼 수 있다.

부엌은 타실에 비해 면적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난방방식과 연료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부엌면적은 1920년대에 비해 1960년대에는 약 1평정도 줄어들고 있다. 찻방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면적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찻방이 식사공간뿐만 아니라 수장공간이나 실내작업공간으로도 이용되면서 기능적 중요성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고팡은 평균 1.5평 내외로 구성되고 있으며, 뚜렷한 면적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고팡 수장물의 성격이 일정하여 식량저장고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그 이상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구조 및 의장

도시주택의 가구방식은 5량 구조와 7량 구조로 나눌 수 있다. 5량 구조는 무고주 5량과 간이식 5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채보다는 주로 바깥채나 부속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7량 구조는 2고주 7량과 간이식 2고주 7량 그리고 간이식 7량으로 세분할 수 있다. 2고주 7량은 전통민가의 구조방식이 지속된 가구법이며, 이것의 간이식 또는 변형이 간이식 2고주 7량이다.

간이식 7량은 무고주로 구성된 가구방식으로써, 간이식 2고주 7량이 변형되면

서 나타나는 가구방식이며 일반 서민주택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부재의 단면적은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둥은 정방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됐으며, 보 부재의 이음으로 인한 구조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칸가름 기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보는 일반적으로 정방형과 장방형이 사용됐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보와 같은 장대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의 폭보다 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도리는 정방형과 장방형이 주로 사용됐으며, 보와 같이 장대재로 구성되는 부재로 인해 폭보다 춤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까래는 원형이 주로 사용됐으며, 마구리 부분을 원추형이나, 6모, 8모로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가 되면 지름이 30MM 정도 감소하고 있다. 서깨래 내밀기도 점진적으로 작아지고 있으며, 간격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주택의 내벽은 상부에서 하부 전체를 외를 엮어 구성하며, 두께는 평균 6-8㎝이며, 회반죽 마감을 하거나 벽지를 바르고 있다. 외벽의 구조는 내벽과 거의 동일하며, 외부에 덧쌓기를 한다. 덧쌓는 석재는 가공술의 발달에 따라 다듬는 정도가 많아지고 있다.

도시주택의 기단은 보통 2단으로 구성되고, 높이는 평균 155mm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단은 대개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며, 1960년대에는 시멘트나 벽돌로 기단을 만드는 예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후 계단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단은 점차 소멸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창호는 각 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주로 미서기, 미닫이, 여닫이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덧벽은 처마에서 1-1.5尺정도 남기고 쌓으며, 이것은 1960년대가 되면 처마까지 모두 쌓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붕은 일식기와를 덮고 있으며, 대부분이 흙기와이고 시멘트의 보급으로 시멘트 기와도 나타나고 있다.

6.2 분석종합

도시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주도 전통민가의 연장선으로 해석한 것은 도시주택의 분석 결과 나타난 결론적인 것이다. 이것은 최초에 본 연구자가 도시주택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정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연구결과 나타난 도시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도시주택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주거유형으로써, 그 연구의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시라는 대표적인 도시주거지를 선택했으며, 시간적 범위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의 한 시점과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된 시점을 선택하였다.

일제강점기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건축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로 인해 건축에 반영된 결과는 그 시대의 건축적 특성을 낳았다. 해방이 되고 6.25사변이 지나간 이후 건축 특히, 주거건축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연료의 변화였다. 이후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건축은 많은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도시주택의 분석을 위한 틀은 김홍식 교수의 『한국의 민가』에 서술된 가사노동의 변화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해 도시주택을 제주도 전통민가의 연장선으로 해석했으며, 그것이 변화·발전된 주거형태가 도시주택이다. 따라서 도시주택의 이러한 변화·발전된 건축적 특성이 20세기초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에서 6.25 이후 특히 경제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도시주택을 외부공간, 배치, 평면, 구조, 입면에 걸쳐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주도 전통민가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발전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도시주택은 주생활의 변화에 따른 가사노동 및 가사노동공간의 변화로 하나의 평면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평면유형은 개개의 조건과 제약에 의해 다양한 평면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외부공간은 도시적 입지 특성에 따라 전통민가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와 기존 요소의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一자형의 평면형태는 시대에 따라 一자형의 지속된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다양한 형태로 돌출되어 변화된 평면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지붕형태의 변화로 이어져서 一자형의 지붕형태뿐만 아니라 꺽임지붕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구조방식의 유지와 변화는 목재의 생산이나 기술에 따라 간이식 5량, 간이식 2고주 7량, 간이식 7량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것은 사회경제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면 형태는 위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한 외적표현으로 판단하며, 이것은 전통요소의 유지와 변화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면서 도시주택의 입면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시주택에 대한 연구에서 보이는 단점과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이것은 도시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과 개개의 요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의미하며, 본인의 연구능력의 한계를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차후에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로 도시주택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택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건축사를 연구하는 건축학도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Keiser, M.B., 「Housing on Environment for Living」, Macmillan pub N.Y., 1978.

石毛直道, 「住居空間의 人類學」, 東京, 鹿島出版會, 1976.

Rapoport A.,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1969.

대한건축학회, 「주거론」, 기문당, 1997.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91.

,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1992.

, 「한국의 민가 - 제2권」, 한길사, 1992.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제, 1998.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장기인, 「한국건축대계Ⅳ - 한국건축사전」, 1996.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김석윤, "전통가옥", 「제주도 민속자료」, 제주도, 1987.

제주도, 「제주의 민속Ⅳ - 주생활편」, 1996.

제주도, 「제주도지 上」, 1982.

제주도건축사회, 「제주건축 제2집 -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1992.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1995.

제주시, 「도시계획 40년사」, 1994.

2. 논문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한대박논, 1991.

오홍석, 「제주도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박논, 1974.

송인호,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박논, 1990.

임창복, 「한국 도시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논. 1989.

박명덕, 「한국건축의 구조적 의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논, 1981.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대박논, 1992.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석논, 1987.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박논, 1996.

박시익 · 이정덕, 「풍수지리설에 의한 주택배치의 성격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84. 4.

김혜숙 · 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공간의 구성에 관한 연구-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3집(인문 · 사회과 학편), 1991.

3. 학회지/건축잡지

김선우, 「한국 주거난방의 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3권90호, 1979. 10.

김정기, 「주택사적 민가론-민가의 형성과 변천과정, 주거사적 측면에서 본 민가의 의미」, 건축과 환경 8710.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27권112호, 1983. 6.

박언곤외, 「한국 전통건축의 언어와 의미」, 건축과 환경, 1985. 2.

4. 보고서

김정기 · 김홍식, "주택",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부록 1> 연구대상 주택 - 건축연대

도면번호	지 번	소유주	건축연대	건축연대 확인
50-2	일도1동 1100-9	채종완	195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50-20	1102-11	김송형	1958 **	구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60-12	1103-1	장보배	1963	건축물대장, 증언
20-1	1243-1	문순여	1920년대	건축물관리대장, 증언(추정)
40-23	1261	고학봉	1943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40-21	1353-1	김근보	1943	건축물대장, 증언
50-12	1396-1	김홍길	1955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50-17	1484-7		1958	구등기부등본
50-1	1484-9	백경랑	195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50-16	1485	박연수	1950년대	구등기부등본
60-31	1486	신호근	1960	구등기부등본
40-20	1486-2*	박옥채	1944	구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50-18	1486-2*	박준택	1959	구등기부등본
50-13	1486-2*	김병만	1958	구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60-18	일도2동 1040-1	현우정	196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15	1040-4	김희호	196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16	1040-21	현상종	196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17	1040-23	부영자	196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21	1043-16	강윤철	1965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20	1043-22	신보성	1965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19	1043-25	김승훈	196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1	이도1동 1254-5	김홍국	1965	건축물대장, 증언
60-2	1254-13	황정자	1965	건축물대장, 증언
60-3	1254-32	송산실	1965	건축물대장, 증언

* 1486-2번지는 하나의 큰 필지이며 15채 정도가 지어져 있다. 필지는 타인 소유이며, 개개의 건물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필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다. 현재도 필지가 각 건물별로 분할되지 않아 하나의 지번인 1486-2번지로 되어있다.

** 이 주택은 최초 건축주의 자손이 살고 있어서 면담과정에서 건축연대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확실한 건축연대를 입증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구등기부등본에 1958년으로 되어있고 주위의 건물들이 대개 1950년대에 지어진 점으로 미루어 일단 당해 연도로 분류하였다.

도면번호	지 번	소유주	건축연대	건축연대 확인
40-18	이도1동 1330-5	박인상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40-19 60-11	1330-38	김상선	1947 1964	건축물대장, 증언
40-15	1504-11	고두식	1947	건축물대장, 증언
60-5	1505-2	곽기순	1960년대말	증언
40-10	1529-3	김광진	1947	건축물대장, 증언
40-13	1529-21	김범용	1945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40-7	1533	강을생	1941	상량문(소화 16년)
40-8	1535	장금향	1946	상량문(병술년)
40-9	1539-5	황순오	1947	건축물대장, 증언
40-11	1539-6	김영순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40-16	1543-1	김요안	1947	구등기부등본, 증언
40-12	1543-12	김용훈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40-6	1554	정원식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40-4	1554-3	장태훈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40-1	1555-3	현재천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40-17	1555-8	한일랑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40-3	1555-9	안준부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4	1555-17	현학송	1967	건축물대장, 증언
60-8	1559-11	이경현	1965	건축물대장
40-14	1560-1	이계생	1947	건축물대장, 증언
40-2	1695-1	김태운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6	1706-1	현경아	1969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50-15	1707-3	김인탁	1950년대	구등기부등본(추정)
40-5	1708-5	안창렬	1947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언
60-7	1708-7	장인환	1969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60-9 60-10	1709-11	김태만	1960년대	증언 (추정)
60-14	삼도1동 153	강영화	1964	건축물대장, 증언
40-33	907-7	송종선	1945	상량문(을유년)
30-7	913-5	양부창	1930년대	구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추정)
40-34	삼도2동 41	김유택	1948	건축물대장, 증언
60-22	829-2	고일부	1965	건축물대장

도면번호	지 번	소유주	건축연대	건축연대 확인
40-32	삼도2동 830-9	임재찬	1945	건축물대장, 증언
40-35	830-13	김형규	1949	건축물대장, 증언
40-25	1063-1	전일혜	1940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0-4	1158-5	김성훈	1920년대	구등기부등본, 증언
40-29	1158-23,73	김수종 방재신	1942	상량문(소화 17년)
20-6	1158-30	양익수	1920년대	건축물관리대장 (추정)
50-5	1158-33	김수종	1950년대초	건축물대장, 증언
20-7	1158-49	현창훈	1929	건축물관리대장 (추정)
50-4	1161-13	채원배	1950	상량문(단기 4283)
30-6	1167-16	구영모	1934	건축물관리대장
20-5	1174-5	김중현	1924	건축물관리대장, 증언(추정)
40-27	1175-1	서영훈	1943	건축물관리대장, 증언
30-4	1176-7	오천수	1939	건축물관리대장, 증언
30-1	1176-10	양홍식	1931	건축물관리대장, 증언
30-5	1179-5	김재수	1938	건축물관리대장, 증언(추정)
30-3	1179-7	김태준	1938	건축물관리대장, 증언(추정)
50-3	1179-17	김영배	1952	건축물대장, 증언
40-26	1179-22	박인애	1940	건축물대장, 증언
40-28	1179-23	이창수	1944	건축물대장, 증언
30-2	1179-28	조상홍	1932	건축물관리대장, 증언(추정)
50-19	1204-1	좌응기	1955	구등기부등본
50-7	건입동 1103-3	양배완	1954	건축물대장, 증언
50-14	1103-7	강좌기	1954	건축물대장, 증언
50-6	1103-10	송복선	1954	건축물대장, 증언
50-10	1189-9	고점양	1950년대말	건축물대장, 증언
40-37	1189-11	고자환	1949	건축물대장, 증언
50-8	1189-16	고점양	1955	상량문(단기 4288)
50-9	1189-19	고성철	1951	건축물대장, 증언
40-31	1256-2	임창준	1945	건축물대장, 증언
50-11	1274-5	장근종	1959	건축허가서류, 건축물대장
60-13	1274-7	황수일	1965	건축물대장, 증언

도면번호	지 번	소유주	건축연대	건축연대 확인
40-36	건입동 1275		1947	구등기부등본
40-30	1297	정태봉	1944	건축물대장, 증언
20-2	1320	고공립	1929	구등기부등본, 증언
40-22	1332	김준경	1945	건축물대장, 증언
40-24	1340	김두욱	1947	건축물대장, 증언
20-3	1357-1, 2	고정기	1920년대	건축물관리대장, 증언(추정)
60-30	용담1동 13	고갑생	1963	건축물대장
60-29	374-3	문용보	1963	건축물대장, 증언
60-26	용담2동 357-17	한광섭	1966	건축물대장, 증언
60-25	357-18	김재원	1963	건축물대장, 증언
60-24	358-16	(주)제주상호신용금고	1963	건축물대장, 증언
60-28	364-17	고명률	1963	건축물대장, 증언
60-27	364-38	문두은	1963	건축물대장, 증언
60-23	622-5	김관옥	1963	건축물대장, 증언

<부록-2> 논문조사표-1

1920년대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일도일동 1243-1 문순여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조심벽		370	가
건입동 1320 고공림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조심벽			나
건입동 1357-1 고정기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60	나
삼도이동 1158-5 김성훈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현:슬레이트)		목조심벽			나
삼도이동 1174-5 김중현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430	가
삼도2동 1158-30 양익수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400	나
삼도이동 1158-49 현창훈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초가→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430	나

1930년대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삼도이동 1176-10 양홍식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조심벽		380	나
삼도이동 1179-28 조상홍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나
삼도이동 1179-7 김태준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골조	흙+돌	450	가
삼도이동 1176-7 오천수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90	가
삼도이동 1179-5 김제수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290	가
삼도이동 1167-16 구영모	안채	일자	3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골조	흙+돌	330	나
삼도일동 913-5 양부창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420	나

1940년대(1)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방 식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구 조	재 료	두 께	
이도일동 1555-3 현재천	안채	ㄱ자	3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목조심벽		410	가
이도일동 1695-1 김태운	안채	일자	4칸	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400	나
이도일동 1555-9 안준부	안채	ㄱ자	4칸	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425	다
이도일동 1554-3 장태훈	안채	일자	4칸	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320	나
이도일동 1708-5 안창렬	안채	일자	4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목조심벽			가
이도일동 1554 정원식	안채	ㄱ자	4칸	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400	나
이도일동 1533 강을생	안채	ㄱ자	3칸	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5량	목조심벽		390	다
이도일동 1535 장금향	안채	일자	4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40	다
이도일동 1539-5 황순오	안채	일자	3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목조심벽		365	나
이도일동 1529-3 김광진	안채	일자	3칸	전,후퇴	모임	슬레이트	간이식7량	목조심벽		410	다
이도일동 1539-6 김영순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조심벽		460	
이도일동 1543-12 김용훈	안채	ㄱ자	4칸	전,후, 측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30	다
이도일동 1529-17 김범용	안채	일자	3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420	
이도일동 1560-1 이계생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50	나
이도일동 1504-11 고두식	안채	일자	4칸	전퇴	모임	슬레이트	간이식7량	목조심벽		450	다
이도일동 1543-1 김요안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조심벽		440	가
일도이동 1555-8 한일랑	안채	일자	3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조심벽		435	나

1940년대(2)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이도일동 1330-5 박인상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이도일동 1330-38 김상선	안채2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400	나
일도일동 1486-2 박옥채	안채	일자	3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400	나
일도일동 1353-1 김근보	안채	ㄱ자	3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나
건입동 1332 김준경	안채	ㄱ자	3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2고주7량	목조심벽		380	나
일도일동 1261 고학봉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90	가
건입동 1340 김두욱	안채	ㄷ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180	나
삼도이동 1063-1 전일해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다
삼도이동 1179-22 박인애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90	다
삼도이동 1175-1 서영훈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슬레이트 (과거:흙기와)		목골조	흙+돌	415	나
삼도이동 1179-23 이창수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90	나
삼도이동 1158-23 김수종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430	나
건입동 1297 정태봉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골조	흙+돌	420	다
삼도2동 830-13 김형규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400	나
건입동 1256-2 임창준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430	나
삼도1동 830-9 임재찬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380	가
삼도1동 907 송종선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30	가
건입동 1189-11 고자환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시멘트마감	340	나

1940년대(3)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건입동 1275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현재:슬레이트)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35	나
삼도2동 41 김유택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440	가

1950년대(1)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일도이동 1484-9 백경랑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흙+돌	380	나
일도일동 1100-9 채종완	안채	ㄱ자	3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5량으로 추정	목조심벽		445	다
삼도이동 1179-17 김영배	안채	ㄱ자	4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2고주?량	목골조	흙+돌	420	가
삼도이동 1161-13 채원배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410	가
삼도이동 1158-33 김수종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70	나
건입동 1103-10 송복선	안채	일자	4칸	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90	나
건입동 1103-3 양배완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슬레이트		목골조	흙+돌	405	
건입동 1189-21 고점양	안채	ㄱ자	3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395	가
건입동 1189-19 고성철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395	가
건입동 1189-9 고점양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70	나
건입동 1274-5 장근종	안채	일자	4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400	가
일도1동 1396-1 김홍길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425	가

1950년 대(2)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일도일동 1102-11 김송형	안채	일자	4칸	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370	가
건입동 1103-7 강좌기	안채	일자	3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목골조	흙+돌	420	다
일도일동 1485 박연수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50	다
일도일동 1484-7	안채	ㄱ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350	나
삼도이동 1204-1 좌웅기	안채	일자	3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량	목골조	흙+돌	400	다
일도일동 1486-2 김병만	안채	일자	3칸	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목조 비늘판벽	110	나
이도일동 1707-3 김인탁	안채	일자	4칸	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55	나
일도일동 1486-2 박준택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400	나

1960년 대(1)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이도일동 1254-5 김홍국	안채	ㄱ자	3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480	나
이도일동 1254-13 황정자	안채	ㄱ자	3칸	무	모임	시멘트 기와		목조심벽		350	나
이도일동 1254-32 송산실	안채	ㄱ자	3칸	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280	가
이도일동 1555-17 현학송	안채	ㄱ자	3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목조심벽		345	가
이도일동 1505-2 곽기순	안채	일자	3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30	나
이도일동 1706-1 현경아	안채	ㄱ자		무	박공	시멘트 기와	7량으로 추정	조적조		290	나

1960년대(2)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이도일동 1708-7 장인환	안채	ㄱ자		무	박공	시멘트 기와		조적조		275	나
이도일동 1559-11 이경현	안채	일자	4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80	나
이도일동 1709-11 김태만	안채1	ㄱ자	3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350	나
	안채2	ㄱ자	3칸	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260	나
이도일동 1330-38 김상선	안채1	ㄱ자	3칸	전퇴	모임	흙기와		목조심벽		400	가
일도일동 1103-1 장보배	안채	일자	3칸	후퇴	모임	흙기와		목골조	흙+돌	410	다
건입동 1274-7 황수일	안채	ㄷ자	4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목골조	흙+돌	425	
삼도1동 153 강영화	안채	일자	3칸	無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270	
일도2동 1040-4 김희호	안채	일자	3칸	無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340	나
일도2동 1040-21 현상종	안채	일자	3칸	無	모임	시멘트 기와		목골조	흙+돌	340	나
일도2동 1040-1 현우정	안채	ㄱ자	3칸		모임	시멘트 기와		목골조	흙+돌	350	
일도2동 1040-25 부영자	안채	일자	3칸		모임	시멘트기와(현:슬레이트)		목골조	흙+돌	350	다
일도2동 1043-25 김승훈	안채	ㄱ자	3칸	無	모임	시멘트 기와		목골조	흙+돌+인조석	370	나
일도2동 1043-22 신보성	안채	일자	3칸	無	모임	시멘트 기와		목골조	흙+돌+인조석	430	나
일도2동 1043-16 강윤철	안채	일자	3칸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360	나
삼도1동 829-2 고일부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목골조	흙+돌	410	나
용담2동 622-5 김관옥	안채	ㄱ자	3칸	전,후퇴	모임	시멘트 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20	나
용담2동 358-16 (주)제주상호신용금고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440	다

1960년대(3)

단위 : mm

주 소	구 분	평면 형태	평면구성 (칸수)	퇴 (유무)	지 붕		가구구조	벽 체			상태
					모 양	재 료	방 식	구 조	재 료	두 께	
용담2동 357-18 김재원	안채	ㄱ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295	나
용담2동 357-17 한광섭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440	나
용담2동 364-38 문두은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390	나
용담2동 364-17 고명률	안채	일자	4칸	전,후퇴	모임	초가 (현:슬레이트)	2고주7량	목골조	흙+돌	405	나
용담1동 374-3 문용보	안채	일자	4칸		모임	시멘트 기와		목골조	흙+돌	380	나
용담1동 13 고갑생	안채	ㄱ자	4칸	전퇴	모임	시멘트 기와	간이식7량	목골조	흙+돌	440	다
일도일동 1486 신호근	안채	ㄷ자	4칸	전,후퇴	모임	흙기와	간이식7량	목조심벽		100	나

ABSTRACT

Typology and Transformations of Urban Houses in Cheju City from 1920's to 1960's

Kim, Hyung-Nam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Myong 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im, Hong-Sik

This study focused on typology and transformations of urban houses in Cheju City from 1920's to 1960's. Urban houses of Cheju City shows multiple type from changing with developing for plan shape that extend from traditional housing in Cheju island.

1. Outside space and lay out type.

The main gate function as guard, security and restriction of entrance, with symbolic and psychological shelter. A yard is used as open space or path by reduction of the space, *Wooyoung* is located in the side of yard or belong to garden. Bathroom types are *Tongsi* type or a type which belongs to the main gate, and other type built are separated from house. Built new bathroom, it were usually built the same old place again and small backyard placed in back of the housing, that disappeared from 1950's.

Urban houses types are *Dugeri* type(Double-unit type) and *Wegeri*

type(single-unit type). Main bedroom mostly sit on southside of house, and some is built in northside. Entrance shows less than 4-meters for only walkers, as a blind alley or passing road and branch type road.

An approach direction of *Dugeri* type mostly look to the north and south, and in this case the exposure of the main bedroom normally look to the south. An approach direction of *Wegeri* type mostly look to the east and west, and in this case the exposure of the main bedroom normally look to the west and south. Front entrance door is laid out as ㄱ shape or ㄷ shape from main house, and can not see directly to inside main house.

2. plan type.

Urban houses are divided into separated types and combination types of household affairs space. Other special types are separated-kitchen type and alien type. Separated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is mostly built.

Separated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were sitting room + *Gopang* separate type and separate sitting room type. Combination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made from sitting room, kitchen, *Gopang* and *Chabang*(Dining room) put together as space differentiation, also into classes sitting room + kitchen + *Gopang* + *Chabang* type, sitting room + kitchen + *Chabang* type, sitting room + kitchen + *Gopang*, sitting room + kitchen type by combination household cares space type.

Separated-kitchen type was one of the special type from separated-kitchen type of traditional housing, and type with continuous. alien type was not showing traditional space make up as plane type.

Urban houses were 3 kan type and 4 kan type. 4kan was mostly built .

3. plan shape

— shape is kept as plan shaped of straight shape, and roof shape is showed as — shape gathering roof. — shape + part projection type talls part projecting type as happened in *Gopang*, and *Chabang*. Roof is gathering roof, and when it is showed ㄱ shape by *Gopang*, *Chabang*, and kitchen are projected. — shape + total projection shape is one of the room become totally

projected by *Gopang* and *Chabang*, can be happen with small room or kitchen, and roof as gathering roof shaped with ㅡ shape, ㄱ shape, ㄷ shape, unsystematic ㄹ shape, and various shapes. Continuously sitting room is getting bigger, living room that floor is wooden floor becomes smaller, and kitchen remarkably becomes much smaller than any other rooms. It result in changes by heating, and heating fuel. *Chabang* has some space as a result of functional consequence as well as dining room, and store space or work shop. *Gopang* has not been changed as 1.5 pyung.

4. structure and design

5 ryang structure has mugoju(無高柱) 5 rang and ganisig(簡易式) 5 rang, that mostly found outside building of main house and a building belong to main house than main house. 2 goju(高柱) 7 rang is traditional housing structure figure, that comes long time continues a way of build housing, further more ganisig or changed to 2 goju 7 rang. Ganisig 7 rang is composed housing style from mugoju, and that housing style appear from during transformation of ganisig 2 goju 7 rang, and generally used to common people.

A cross sectional area of the structural lumber has minutely been decreased continuously. In case of girder and cross-beam are shorter than wide because of more difficult to get long material by time to time. Rafter is generally used round shape and butt end is used as cone or six sided shape or eight sided shape.

Interior wall of city housing is used lath from up to bottom, and exterior wall becomes much better way to pile up stones by development of skill to cutting stones.

Platform of city housing is usually made 2 steps, built in front and back of building. Windows and door are both side sliding doors(windows), swing doors and sliding doors(windows). Veneer constructure wall is piled up bottom to up, leaving space 1-1.5 measure from eaves, and this way began changing to pile up to eaves in 1960's. Roof is used japanese style tile made from clay and began to use cement tile by popularized cement.